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평노래 사설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허 은 정

2015년 2월

# 평노래 사설 연구

지도교수 허 남 춘

허 은 정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허은정의 석사학위 논문을 승인함

심사위원장 조성훈  
위 원 한승환  
위 원 허남춘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12월

# A Study on the Lyrics of the Pheasant Songs

Eun-Jeong, Heo

(Supervised by professor Nam-Chun, H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4.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Abstract>

I. 서론	1
II. 평노래 존재 양상과 전승 과정	8
1. 평노래의 존재 양상	8
1) 평노래의 형태와 내용	9
2) 평노래의 형식과 가창방식	12
2. 평노래의 전승 과정	16
III. 평노래 유형 분석	24
1. 단형	24
2. 장형	31
1) 암수갈등형	31
2) 시집살이형	38
IV. 평노래 전승의 의의 및 특징	46
1. 평노래 전승의 의의	46
1) 현실 비판	46
2) 소통의 매개체	50
3) 개방적 수용방식	52
2. 제주도 평노래의 특징	56
V. 결론	64

## <참고문헌>

## <부록>

<Abstract>

## **A Study on the Lyrics of the Pheasant Songs**

Heo, Eun-Jeong

The Pheasant Song is a folk song that is found throughout South Korea. This paper does not seek to categorize folk songs conventionally, but rather focuses on classifying types in a unique manner and analyzes their narratives or texts. Accordingly, this paper describes the significance of the handing-down of the pheasant songs, and also summarizes the features that are unique to pheasant songs of Jeju Island.

Pheasant Song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short-form style and long-form (narrative) style. The short-form style song starts with the calling of the 'male pheasant'. The basic version is about greeting the male pheasant, but the extended version describes the appearance of the male pheasant, the appearance of a hunter; an extended version also includes an element such as a house-building. The narrative style of the song describes pheasants searching for food in the midwinter and finding beans. The female pheasant tries to dissuade the male from eating them but the male persists to eat them and ends up dying. That is, the narrative takes the form of the 'male-female conflict structure'. In addition, in a 'married life' story a daughter-in-law pretends to be a deaf mute in order to cope with the difficulty of fitting in with her in-laws; nevertheless she is banished from her parents-in-law. She sings the Pheasant Song and the misunderstanding is cleared-up through her song. Eventually, she is welcomed back by her in-laws.

The short-form pheasant song is frequently sung by children in a dramatic performance. It varies in its types: call and response chanting structure or

chorus chanting structure. In contrast, the extended version of the short-form style and the long-form style were mostly enjoyed by adults and were sung as solos.

In terms of the process of transmission of the Pheasant Song, it mainly consists of a 'short-form' style and a 'long-form' style. The 'long-form (narrative)' style features the 'male-female conflict' structure and the 'married life' structure, but is considered to have been passed down separately as respective songs. Most research has been carried on the short-form style song, showing that it has widely spread and thus considered to be the oldest. The male-female conflict structure is considered to have first started as Pansori, "Korean genre of musical storytell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Later the song evolved into a ballad and novel, and eventually back into its present form as a folk song. It is unknown when and how the story of 'married life' originated, and it is unclear whether the original form is added to a tale, or is originally a song featuring an epic. Thus, it is regarded as the most degraded form.

The significance of the succession of pheasant songs firstly reflects reality in the conflict composition of characters, and secondly lies at a crossroads between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forms of the song. Thirdly, it is an active exchange between genres of literature as well as types of pheasant songs.

There are several features of Pheasant Songs that are unique to Jeju: they are incantatory; an element such as a house-building is included; wordplay is evident; and occasionally short-form and long-form styles are combined together to be sung. Above all, the story about assimilating in-law families to seafood was added as well as the usage of shaman songs, establishing that oral transmission of these features was essential to the creation of the work.

## I. 서론

평노래는 우리나라 남한 일대에 전국적으로 분포된 노래이다. 그러나 기존의 민요 연구에서 학자마다 기준이 달라 평노래의 분류가 모호하였다. 또한 평노래에 관한 연구가 동요나 서사민요의 어느 한 측면에서만 다루어졌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존의 모호한 분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유형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평노래의 사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원범은 「한국 전래동요 연구」에서 전래동요를 기능동요와 비기능동요로 내용을 분류하고 그 중 비기능동요에 동물동요를 포함하였다. 또한 동물동요를 다시 소재별로 조류(25종), 곤충류(16종), 짐승류(20종), 어류(12종)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를 보이는 것은 조류였다. 그리고 수집된 동요를 보면 조류에서도 평이 46편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sup>1)</sup> 물론 이는 동요에 국한된 범위에서만 분포를 파악한 것이기는 하지만, 평과 관련된 노래가 동물요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편 임동권의 『한국민요집Ⅱ』<sup>2)</sup>에는 동요가 따로 수록되어 있지 않고, 민요를 ‘노동요, 신앙성요, 내방요, 정연요, 만가, 타령, 설화요’로 분류하였다. 그 중 평과 관련된 노래는 ‘타령>조류타령’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민요집Ⅴ』<sup>3)</sup>에는 민요편과 동요편이 구분이 되어 있고,<sup>4)</sup> 민요편은 ‘노동요, 신앙성요, 내방요, 정연요, 만가, 타령, 설화요, 가사적민요’로, 동요편은 ‘동물요, 식물요, 연모요, 애무와 자장요, 정서요, 자연요, 풍소요, 어희요, 수요, 유희요, 기타요’로 분류되었다. 그중 평노래가 민요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동요편에는 ‘동물요>조류요’로 분류되어 있다. 조류요에 등장하는 새는 ‘제비(9편), 피꼬리(2편), 까치(9편), 까마귀(4편), 평(11편), 기러기(6편), 황새(3편), 파랑새(13편), 비둘기(7편), 부엉이(5편), 솔개(2

1) 전원범, 「한국전래동요연구 - 내용분류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992, p.272.

2)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80.

3) 임동권, 『한국민요집Ⅴ』, 집문당, 1980.

4) 엄밀히 따지면 ‘민요’의 범위 안에 ‘동요’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임동권의 민요의 분류가 성인요와 동요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성인이 부른 노래를 ‘민요’로, 아동이 부른 노래를 ‘동요’로 이해하기로 한다.



편), 종달새(1편), 닭(3편), 잡새(12편), 백꼭새(1편)’ 등이다. 자료를 보면 이 역시 조류 중에서도 꿩과 관련된 노래가 꽤 많이 수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조류와 관련된 대개의 노래들은 ‘새타령’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요로 불리지만, 꿩과 관련된 노래만큼은 동요와 민요를 넘나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꿩이 그만큼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동물이며 친숙한 존재라는 소재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꿩노래는 수집된 노래의 개수만큼이나 ‘꿩꿩 장서방, 꿩요, 꿩놀래, 꿩노래, 꿩타령, 장끼 타령, 까투리 타령’ 등 그 명칭 또한 다양하다. ‘꿩꿩 장서방’은 사실의 시작이 ‘꿩꿩 장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이 외에 ‘-요’나 ‘-노래’, ‘-타령’이 붙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꿩과 관련된 사실을 선율에 얽어 부르는 것들을 기존의 명칭 설정과 상관없이 ‘꿩노래’라 칭하기로 하겠다. 여기서 꿩노래의 범주는 장끼와 까투리를 포함하여 꿩이 사실에 직접 언급되는 경우와 ‘꿩꿩 장서방’처럼 꿩의 울음소리나 장끼를 비유한 어휘가 들어간 경우 모두를 포함하기로 한다.

한편 꿩노래가 조사된 자료와 그 자료상의 분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민요집성』<sup>5)</sup>에서는 구전민요편, 영남내방가사편, 제주도민요편을 나누고, 다시 구전민요를 창자의 성별에 따라 나누어 ‘부요(결혼요/가정불화/연정요/노동요/사천가/영물·서사/특수가), 남녀공요, 남요’로 분류하였다. 그 중 꿩노래는 ‘구전민요>부요>영물·서사>꿩 노래, 꿩서방’으로 분류하였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는 민요를 기능을 중심으로 나누어 ‘기능요(노동요/의식요/유희요)와 비기능요’로 분류하였다. 그중 꿩노래를 ‘유희요>풍소유희요>동물유희요>꿩 노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세련된 사실로 구성된 ‘장끼 타령’은 비기능요로 처리하였다.<sup>6)</sup>

『한국민요대전』<sup>7)</sup>에서는 ‘노동요, 의례요, 유희요, 신세타령’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그중 꿩노래를 ‘유희요>동요>새를 보면서 하는 노래, 유희요>심심풀이

5) 김사엽·최상수·방중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Ⅲ)』, 1992, p.102.

7) MBC, 『한국민요대전』, 1992~1995.

노래>서사민요, 신세타령>시집살이노래'의 3가지로 나누어 살펴왔다.

『한국민요집』<sup>8)</sup>에서는 민요를 세대에 따라 나누어 '민요(노동요/신앙성요/내방요/정감요/만가/타령/설화요), 동요(동물요/식물요/연모요/애무와 자장요/정서요/자연요/풍소요/어희요/수요/유희요/기타의 동요)'로 분류하였다. 그중 평노래 사설이 짧은 것은 '동요>조류요>평요'로, 사설이 긴 것은 '민요>타령>조류타령>평요'로 분류하였다.

위의 자료를 정리하여 보면 다양한 평노래는 창자의 측면에서 민요(혹은 부요)나 동요 종류를 포함하고, 기능의 측면에서 유희요와 비기능요를 포함, 동요와 서사민요 그리고 시집살이 노래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즉 하나의 소재를 다룬 노래가 다양한 사설 양식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 노래는 거의 없다.

한편 비슷한 내용의 사설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민요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sup>9)</sup> 어떤 경우에는 동요로 분류가 되기도 하였다.<sup>10)</sup> 혹은 같은 자료집 안에서도 동요, 서사민요, 시집살이요의 분류가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sup>11)</sup>

따라서 평노래의 분류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평노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동요에 관한 연구, 「장끼전」과 관련한 연구, 시집살이요와 관련한 연구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동요에 관한 연구로 좌혜경의 「제주전승동요연구」,<sup>12)</sup> 전원범의 「한국 전래동요 연구 - 내용분류를 중심으로」,<sup>13)</sup> 김영돈의 「제주동요의 한 모습」,<sup>14)</sup> 강혜인의 「한국 전래동요의 음악문화 연구」,<sup>15)</sup> 모형오의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 사설·유희·음악의 지역별 전승양상을 중심으로」<sup>16)</sup>가 있다.

8) 임동권, 『한국민요집 I ~ VII』, 집문당, 1980~1992.

9)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앞의 책, 1948, p.155. <부록> 1-(11) 참조.

10) 임동권, 『한국민요집 I』, 집문당, 1980, p.324. <부록> 1-(12) 참조.

11) 특히 MBC의 『한국민요대전』에서 그런 혼동이 많다. 예를 들면, <부록> 2-가-(6)과 <부록> 2-가-(9)는 장끼와 까투리의 갈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는 노래인데, 전자는 서사민요로, 후자는 동요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부록> 2-나-(4)와 <부록> 2-나-(5)는 평을 분육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는 노래인데 전자는 시집살이요로, 후자는 동요로 분류가 되어 있다.

12) 좌혜경, 「제주전승동요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5.

13) 전원범, 앞의 글, 1992.

14) 김영돈, 「제주동요의 한 모습」, 『제주의 민요』, 민속원, 1999.

15) 강혜인, 「한국 전래동요의 음악문화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음악문화학과 철학박사학위논문, 2006.

16) 모형오,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 사설·유희·음악의 지역별 전승양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한국음악(이론) 전공, 2011.

좌혜경은 창자의 연령·용어·사고·생활 등이 민요와 다르기 때문에 민요와 다른 위상에 터전해서 동요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창기록과 내용위주로 총체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 전원범은 한국전래동요만을 독자적으로 다뤄 전반적인 체계를 세우고,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김영돈은 동요에 대한 수집과 연구가 거의 외면되는 실정에 대해 비판하고 제주의 한 지역에서<sup>17)</sup> 전승되는 동요를 일부 소개하고 그들의 삶과 연관하여 이를 풀이하려고 하였다. 강혜인은 전래동요를 음악 문화적 층위에서 유기체적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모형오는 한국전래동요의 분류와 전승실태를 정리하고 사설·유희·음악의 전승양상을 살폈다. 김헌선은 총체학과 개체학으로서의 동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좌혜경은 꿩노래를 서민들의 애환이 꿩의 삶에 비유되어 불리는 동식물요로 보았다. 전원범 역시 꿩노래가 서민생활의 애환이 비유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영돈은 꿩노래가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밝혔는데, 하나는 넉넉하지 못한 실정에서도 오달지고 튼실하게 살아가는 도민의 삶을 잘 반영한 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서사민요의 형태로 이야기 줄거리를 갖추어 기다랗게 불리는 것인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꿩에 대해 동류의식 혹은 자기회기적 발상이라고 보았다. 강혜인은 꿩노래를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아동의 심리와 연관 짓고, 자연 환경과 만남을 시도하고 있음을 밝혔다. 모형오는 현지조사 결과 꿩노래가 전국에 걸쳐 70편이 발견되며 새를 소재로 한 노래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지역에 따라 꿩의 서식처나 꿩의 먹이를 물어보는 내용으로 불리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꿩을 지칭하는 말이 지역에 따라 크게 ‘꺄꺄·꺄꺄’ 혹은 ‘꺄꺄’으로 불린다고 정리하였다.

다음 「장끼전」과 관련한 꿩노래 연구로 권영호는 「장끼전의 민요화와 그 의미」<sup>18)</sup>에서 꿩노래의 양상과 「장끼전」과의 관계를 살핀 후 「장끼전」에서 민요로 전환된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기록물로부터 구전물로의 전환 때문에 구비전승에 의한 축소현상, 기억의 한계에 의한 착오와 함께 전승자 의식에 의한 변용, 구연자

17)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이곳은 제주도를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의 행정 구역이었던 (구)제주시의 북동쪽 지역이다.

18) 권영호, 「장끼전의 민요화와 그 의미」, 『문학과 언어』 11, 문학과언어연구회, 1990.

의 무의식적인 개작 등이 일어났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야기로부터 노래로의 이행이 되면서 창자의 의식세계가 노래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되어 갔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최혜진은 「<장끼전> 작품군의 존재 양상과 전승 과정 연구」<sup>19)</sup>에서 설화, 민요, 판소리, 가사 계열, 소설 계열 등 약 150여 종의 이본을 통해 <장끼전>의 갈래별 존재 양상을 살폈다. 그리하여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민요 ‘뽕뽕 장서방’ 계열이 19세기 초 서사화되면서 초기 판소리가 성립되었고, 이후 판소리 「뽕타령」은 갈가마귀의 등장과 청혼 삽화까지 서사가 확대되었으나 19세기 후반 실창(失唱)되었다고 하였다. 19세기 중후반경 판소리의 서사는 가사로 전환되어 「자치가」류로 유통되었으며 다양한 결말을 양산하면서 활발히 전파되어 소설, 서사민요, 설화의 갈래로 전환하며 이본을 파생시켰다고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시집살이요와 관련한 연구로 양영자의 「제주민요 시집살이노래 연구」,<sup>20)</sup> 허남춘의 「‘서사민요’란 장르규정에 대한 이의 - 제주 시집살이 노래를 중심으로」,<sup>21)</sup> 서영숙의 「시집살이에 대한 알레고리」<sup>22)</sup>가 있다.

양영자는 제주민요 중 시집살이노래의 전승양상을 살피고, 전개유형과 구조, 표현상의 특징, 내용상의 특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허남춘은 제주 시집살이노래를 분석하여, 작업의 특성에 맞게 독창으로 길게 불리던 것이 선후창으로 짧게 불리게 된 변화를 찾아내고, 이 노래의 서사적 한계성을 살폈다. 그리하여 제주 시집살이 노래가 서정적 주제양식과 서사적 주제양식의 노래가 공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서영숙은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우의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서사민요인 ‘뽕노래’와 ‘방아깨비노래’를 비교하여 두 노래가 어떻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의식을 문학적으로 형성화하고 있는지, 두 노래는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지를 비교 고찰하였다.

양영자의 글에는 뽕노래가 1편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를 통해 시집살이 노래의

19) 최혜진, 「<장끼전> 작품군의 존재 양상과 전승 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20) 양영자, 「제주민요 시집살이노래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전공 석사학위 논문, 1991.

21) 허남춘, 「‘서사민요’란 장르규정에 대한 이의-제주 시집살이 노래를 중심으로」, 『제주문화연구』 (현지김영돈박사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22) 서영숙, 「시집살이에 대한 알레고리 -<뽕노래>와 <방아깨비노래> 비교」, 『한국민요학』 31, 한국민요학회, 2011.

원형은 서사적이었을 것이라 보았다. 허남춘은 평노래를 통해 단편구비서사시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서영숙은 평노래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고 보고 서사민요의 전승양상에 대한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요 연구 자체가 민요 연구에 비해 미진한 관계로 평노래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평노래에 관한 연구가 시집살이요나 「장끼전」과 관련하여 논의되긴 하였으나 두 유형이 함께 다뤄진 바는 없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평의 친숙성 때문에 그와 관련한 설화 및 민요 등 구비전승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설화인 경우 『한국구비문학대계』를 살펴더라도 남한 지역 전반에서 채록이 되었으며, 제주도 현지조사에서도 평과 관련한 설화가 조사된 바가 있다. 또한 민요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남한 일대에서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료 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을 우리나라 남한 일대로 한정하여 평과 관련된 노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자료의 수집은 문헌,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음원, 녹음자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97편을 수집하였다. 문헌 자료는 『조선민요집성』,<sup>23)</sup>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sup>24)</sup> 『한국구비문학대계』,<sup>25)</sup> 『한국민요대전』,<sup>26)</sup> 『한국민요집』,<sup>27)</sup> 『한국 전래동요집』<sup>28)</sup>과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sup>29)</sup>의 부록을 참조하였다.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은 <한국구비문학대계> 음원 자료를 참조하였고, 녹음 자료는 모형오<sup>30)</sup>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와 서귀포시 도순동 현지조사를 통해 평노래에 대한 구연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sup>31)</sup>

23)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앞의 책, 1948.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2013.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980~1995.

26) MBC, 앞의 책, 1992~1995.

27) 임동권, 앞의 책, 1980~1992.

28) 신경림, 『한국 전래 동요집』, 창작과비평사, 1991.

29) 모형오, 앞의 글, 2011.

30) 모형오, 녹음자료(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007.

31)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임계순(여, 1932년생), 전옥순(여, 1951년생) 면담. 2014년 11월 3

이외에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평노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도 민요연구(상)』,<sup>32)</sup> 『제주의 민요』,<sup>33)</sup> 『제주전래동요사전』,<sup>34)</sup> 『제주전승동요』<sup>35)</sup> 및 김성우, 모형오, 현승환·김승연의 현지조사<sup>36)</sup> 자료를 참고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기존의 민요 분류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노래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평노래의 사설을 분석하여 크게 단형과 장형의 2가지로 유형을 정리하고, 유형에 따라 사설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하나의 소재가 다양한 유형으로 전승되는 양상을 정리하고, 그 전승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더불어 제주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평노래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창자나 기능에 의한 민요의 분류 기준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던 평노래에 대한 연구를 총체적으로 살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평노래를 통해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평노래가 어떻게 장르 간, 유형 간 활발하게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

일.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 이무식(여, 1943년생) 면담. 2014년 11월 5일.

32)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33) 김영돈, 『제주의 민요』, 민속원, 1999.

34) 윤치부, 『제주전래동요사전』, 민속원, 1999.

35) 좌혜경, 『제주전승동요』, 집문당,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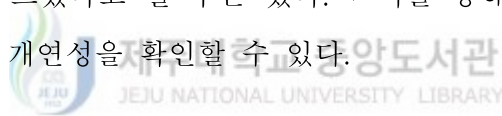
36) 현승환·김승연, 제주도 제주시 이도일동 현지조사(이계생(여, 93세)), 2014년 8월 18일.

## II. 꿩노래 존재 양상과 전승 과정

꿩은 농촌·산간초지·도시공원 등에서 서식하는 흔한 텃새로 한국의 대표적인 사냥새이다.<sup>37)</sup> 또한 예부터 꿩고기는 맛이 좋아 진기한 음식으로 여겨 왔다.<sup>38)</sup>

꿩과 관련한 고대의 문학작품으로는 고구려 유리왕이 지었다는 「황조가」가 있다. 이 작품의 배경설화에는 유리왕의 두 계실, 화희(禾姬)와 치희(雉姬)가 등장한다.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둘이 서로 다투었는데, 화희가 치희를 욕되게 하자, 치희가 부끄럽고 분함을 참지 못하여 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다.

여기서 이름을 풀이하면 치희는 ‘꿩 아가씨’이고, 화희는 ‘벼 아가씨’가 된다. 이것은 두 부족의 상징적 명칭으로, 두 사람의 대립은 수렵 부족과 농경 부족의 대립, 즉 종족 간의 갈등을 반영한 사건으로 보는 학설이 있다. 이 학설에 대해 이론이 있겠으나, 치희라는 명칭에서 꿩은 고대 신화시대의 부족의 상징이거나 아름다움의 표상으로 쓰였다고 할 수는 있다.<sup>39)</sup> 이를 통해 꿩과 관련된 노래가 고대에서부터 불렀을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 1. 꿩노래의 존재 양상

꿩노래에는 다양한 사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길이가 짧은 노래와 긴 노래의 형태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짧은 형태의 꿩노래를 ‘단형’, 긴 형태의 꿩노래를 ‘장형’이라고 하겠다.

이 절에서는 각 형태의 내용을 정리하고, 각각의 형식과 가창 방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3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1994, p.168.

38)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p.129.

39)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위의 책, 1992, p.128.

## 1) 꿩노래의 형태와 내용

### (1) 단형

단형의 꿩노래는 꿩의 생태를 관찰하고 이를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대체로 ‘꿩 꿩 장서방’ 형태의 장끼를 부르는 말로 시작하여 장끼의 안부를 묻게 된다. 장끼의 안부는 대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어디에서 잤는지 등을 묻는다. 이에 대해 전원범은 가난한 서민생활의 애환이 꿩노래에 담겨 있다고 해석하였다.<sup>40)</sup> 즉 이 노래는 꿩에 빗대어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입을 것을 제외한 먹을 것과 잠을 자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 보고 있다. 염려가 담긴 화자의 질문에 꿩은 다행스럽게도 ‘그럭저럭 살고 있소’라고 답하여 주며 안심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어 장끼의 아름다운 모습을 인간의 의복에 빗대어 묘사하기도 한다. 꿩노래에 등장하는 꿩은 오색을 갖춘 비단옷을 말끔히 차려 입고 등장한다. 무명천으로 바지나 치마, 저고리를 해 입었던 조선 시대 평민들의 삶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렇듯 소박한 자신들의 처지에 비해 화려한 복색을 갖춘 장끼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꿩이 마냥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꿩은 언제나 포수의 등장에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간혹 “청축궂든 매 아덜놈(매 아들놈)”이나<sup>41)</sup> “원수놈의 방울새”가<sup>42)</sup> 등장하기도 하지만, 꿩노래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포수이다. 직접적으로 ‘포수’라고 하기도 하지만, “꿩마치는 게아덜놈(꿩 맞히는 게 아들놈),”<sup>43)</sup> “날잡으러 오는채시(날 잡으러 오는 처사),”<sup>44)</sup> “총쟁이,”<sup>45)</sup> “놀매궂든 도둑놈(매처럼 날쌔 도둑놈)”<sup>46)</sup>로 비유되며 총을 들고 등장한다. 이런 위협에 시달리는 까닭에 장끼는 가족들을 데리고 깊고 깊은 산 속으로 숨어들어갈 수밖에

40) 전원범, 『한국전래동요연구』, 바들산, 1995, p.290.

41) 한국구비문학대계 음원 자료. 제주 지방. <부록> 1-(54) 참조.

42) 모형오, 앞의 글, 2011, p.496. <부록> 1-(74) 참조.

4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 1983, pp.455~457. <부록> 1-(6) 참조.

44) 임동권, 『한국민요집 I』, 집문당, 1980, p.325. <부록> 1-(17) 참조.

45) MBC,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민요해설집』, 1995, p.711. <부록> 1-(42) 참조.

46) 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민요해설집』, 1992, p. 235. <부록> 1-(49) 참조.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그러한 처지 역시 서민들의 생활상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노래의 대부분이 ‘그럭저럭 산다’고 하여 창자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꿩은 비단옷을 입고 화려한 차림을 하고 있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매나 인간들에 의해 먹고 사는 일이 고달픈 꿩의 생태는 힘겹게 살아가는 하층민의 궁핍상을 대신 드러내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꿩노래의 단형은 짧게는 4행,<sup>47)</sup> 길게는 29행으로<sup>48)</sup> 되어 있다. 그중 꿩에게 안부를 묻는 형태를 기본형으로 볼 수 있고, 꿩을 묘사하는 내용이나 포수가 등장하는 내용 등이 덧붙는 것을 확장형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꿩노래는 우리나라 남한 일대에 전국적으로 분포된 노래이다. 그 중에서도 단형의 꿩노래는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고루 수집되었다. 따라서 이 단형의 꿩노래는 광포형의 노래로 전국에서 전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장형



단형에 비해 비교적 긴 형태인 장형의 꿩노래는 서사성이 담긴 노래이다. 꿩노래에 담긴 서사에는 까투리와 장끼의 갈등을 그린 내용과 병어리 노릇을 한 며느리가 꿩노래를 불러서 다시 시집에서 잘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는 전자를 ‘암수갈등형’으로, 후자는 ‘시집살이형’으로 구분하기로 하겠다.

### ① 암수갈등형

암수갈등형 꿩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겨울에 까투리와 장끼가 아홉 아들 열두 딸을 거느리고 먹이를 찾으러 나섰다가 콩 하나를 발견한다. 이에 장끼가 먹으려 하자 까투리가 만류를 한다. 그런데 장끼가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고 콩을 먹어 버리고, 결국 뒷에 치어 죽고 만다. 까투리가 신세한탄을 하면서 장끼의

4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8-5 경상남도 거창군편』, 1980, p.753. <부록> 1-(5) 참조.

4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 1983, p.455~457. <부록> 1-(6) 참조.

장사를 지내준 후 수절을 하거나 개가를 한다.

암수갈등형의 꿩노래는 단형에 비해 풍자성이 강한 노래이다. 조선조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매우 낮았다. 그런 사회의 모습이 까투리의 반복적인 만류에도 듣지 않는 장끼의 태도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당시 여성의 정절을 강조했던 풍조를 비판하기도 하는데 까투리는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심지어 열두 낭군이 있었다고 하면서 상부(喪夫)한 내력을 밝히기도 한다. 또는 노루나 오리, 장끼 등 다른 동물에게 개가를 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까투리와 장끼가 갈등하다가 장끼의 죽음을 맞이하는 부분을 전반부로 보고, 까투리가 장끼의 장례를 치르고, 수절을 하거나 개가를 하는 부분을 후반부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반부만 드러나 있으면 비교적 짧고, 후반부가 드러나 있으면 비교적 긴 노래가 될 터이다.

그러나 암수갈등형 꿩노래는 같은 서사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면<sup>49)</sup> 노래가 길어지고, 서사의 축약이 많이 이루어지면<sup>50)</sup> 노래가 짧아진다. 또한 창자의 개성에 따라 사설 내용이 어느 한 대목에서 길어진 노래도 있다.<sup>51)</sup> 그리고 예외적으로 꿩노래의 단형 뒤에 암수갈등형이 덧붙여진 형태도 있다.<sup>52)</sup>



## ② 시집살이형

시집살이형 꿩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의 당부에 따라 병어리 행세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자 시집에서 진짜 병어리라고 오해를 받고 친정으로 내쫓기게 된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날아가는 꿩을 발견하고는 꿩을 잡아 분육해서 시집식구들에게 대접하고 싶다는 노래를 부른다. 그제서야 병어리가 아님이 밝혀지고 다시 시집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4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7-9 경상북도 안동시·안동군편』, 1980, pp.595~600. <부록> 2-가-(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8-13 경상남도 울산시·울주군편』, 1986, pp.185~186. <부록> 2-가-(3).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80, pp.781~782. <부록> 2-가-(4).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80, pp.782~785. <부록> 2-가-(5) 참조.

50) MBC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민요해설집』, 1995, p.667. <부록> 2-가-(6).

MBC,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민요해설집』, 1993, p.679. <부록> 2-가-(7).

MBC,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민요해설집』, 1995, pp.569~570. <부록> 2-가-(8) 참조.

51) 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민요해설집』, 1992, pp.47~49. <부록> 2-가-(9) 참조.

52) MBC, 위의 책, 1992, pp.323~324. <부록> 2-가-(10).

모형오, 녹음자료, 2007. <부록> 2-가-(11) 참조.

암수갈등형이 풍자성을 띤 노래라면 시집살이형은 고발성이 강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병어리 행세뿐만 아니라 귀머거리, 장님 행세를 하면서 살아야 할 정도로 시집살이는 고단한 생활이었다. 그러나 시집살이를 잘 견디기 위해 병어리 행세를 한 것이 도리어 화가 되어 시집에서 쫓겨나게 될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자신이 병어리가 아님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저 시집에서 하라는 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친절으로 내쫓기고 있다. 그러다가 핑을 발견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 부르는 핑노래는 핑을 분육해서 시집식구들에게 대접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시집식구들을 핑의 부위에 비유해서 그동안의 자신을 힘들게 했던 행태들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며느리는 시집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노래의 핵심은 시집 식구들에 대한 고발과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부르는 핑노래는 위의 서사 내용이 모두 드러나 있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sup>53)</sup> 며느리가 부르는 핑노래만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다.<sup>54)</sup> 그리고 뒤에 단형의 핑노래가 덧붙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sup>55)</sup> 시집살이요가 덧붙는 노래도 있다.<sup>56)</sup> 그리고 예외적으로 서사는 드러나지 않고 며느리의 감정을 핑에 이입시킨 노래도 있다.<sup>57)</sup>

## 2) 핑노래의 형식과 가창방식

많은 민요가 후렴이 있고 절로 나뉘어져 있어서 선후창으로 부르는 데 비해, 핑노래는 후렴이 없는 연속체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가창방식은 독창, 교환창, 선후반복창, 제창 형식 등 다양하다.

5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5-1 전라북도 남원군편』, 1980, pp.66~67. <부록> 2-나-(1).

MBC, 앞의 책, 1992, pp.80~82. <부록> 2-나-(5) 참조.

54) 임동권,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p.240. <부록> 2-나-(3).

MBC,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민요해설집』, 1993, p.273. <부록> 2-나-(4) 참조.

한국구비문학대계 음원자료, 경남 함안 지방. <부록> 2-나-(6) 참조.

5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5-7 전라북도 정주시·정읍군편』, 1987, pp.580~581. <부록> 2-나-(2) 참조.

56) MBC, 앞의 책, 1992, pp.80~82. <부록> 2-나-(5) 참조.

57) 임동권,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p.240. <부록> 2-나-(3) 참조.

## (1) 단형

단형의 꿩노래는 주로 흥미 위주의 노래로 여겨지며 아이들과 성인들 모두가 공유하는 노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형 중 꿩에게 안부를 묻는 기본형의 형태가 가장 많이 수집이 되었는데, 내용상 장끼의 안부를 묻고 ‘그럭저럭 산다’는 대답을 통해 안도를 유도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노래는 사설에서 비취지는 분위기처럼 우울해하거나 안도를 하면서 부르지는 않는다. 동네 주변을 다니다가 꿩을 발견하고 쫓으면서 부르기도 하고,<sup>58)</sup> 길에서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단체로 발맞춰 걸으면서 부르기도 했다.<sup>59)</sup> 혹은 다리뺨기를 하면서 부르기도 하였다.<sup>60)</sup>

즉 단형 중 기본형은 장끼의 안부를 묻는 형식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노래의 길이가 극히 짧으므로 아동들이 노래를 새로 익히거나 함께 부르기에도 부담이 없는 형태이다. 또한 아이들이 일 대 일, 혹은 일 대 다수의 대립쌍을 이루어 주고 받으며 부르기도 한 것이다.

편해문에 의하면 이러한 유형은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부르며, 둘이 말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부른다고 한다.<sup>61)</sup> 단형의 꿩노래는 장끼를 대상으로 삼고 장끼의 신세를 화제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화자와 장끼 간에 장끼의 신세와 관련하여 문답을 주고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둘 이상의 아이들이 화자 입장에서, 장끼의 입장에서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부르기에 알맞은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안부를 묻는 기본형에 장끼의 외형을 묘사하거나 포수나 다른 포식자가 등장하여 위협하는 사설이 덧붙여져 노래가 확장이 된다. 이때에는 사설의 길이가 길어진 만큼 아동들이 부르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형태가 된다. 따라서 주로 성인들이 모여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대개 민요를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나누고, 노동의 동작에 수반되는 노동요를 한정하여 분류하였지만, 실제로 노동현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노래가 불렸다. 단형이 확장된 형태의 꿩노래를 성인들은 단순

58)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 이무식 제보자는 꿩을 발견하면 쫓으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했다. 2014년 11월 5일 면담 내용.

59)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전옥순. 2014년 11월 3일 면담 내용.

6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중편 한국구비문학대계 2-11 강원도 정선군』, 2013, pp638~639.

61) 편해문, 『옛아이들의 노래와 놀이 읽기』, 박이정, 2002, p.51.

히 유희의 현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노동의 현장에서도 불렀다.<sup>62)</sup>

아이들이 향유하는 노래에 확장형의 썩노래가 불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이들은 기본형의 노래들을 아이들끼리, 혹은 어른들과 함께 공유하며 불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에도 문답을 주고 받는 교환창으로, 혹은 다같이 함께 부르는 제창으로,<sup>63)</sup> 그 형식이 다양했다. 반면에 단형 중 확장형의 썩노래는 성인이 향유했을 것이며 사설의 길이를 감안했을 때 주로 독창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sup>64)</sup>

따라서 단형의 썩노래는 창자에 아동과 성인 모두가 해당된다. 기본형의 썩노래는 아동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이고, 확장형의 썩노래는 성인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라고 볼 수 있다.

## (2) 장형

수집된 자료 중 장형은 암수갈등형이 11편, 시집살이형이 6편이다. 임동권의 『한국민요집』에는 제보자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암수갈등형 2편은 제보자의 성별을 알 수 없다. 현재 정리된 바로는 암수갈등형 2편만이 제보자가 남성이다. 시집살이형이 며느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래이므로 여성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지만, 암수갈등형은 제보자의 수가 많지 않다고 해서 여성요라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 ① 암수갈등형

까투리와 장끼의 갈등을 그린 암수갈등형 썩노래는 서사를 전개하기 위하여 노래의 형식을 띠고 있다. 수집된 자료 중 가장 짧은 형태는 16행으로 이루어

62)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임계순 제보자는 밭에서 김을 매면서 별의별 노래를 다 했다고 한다. 할머니나 어머니가 밭에서 김을 매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노래를 많이 배운다고 했다. 썩노래 역시 그렇게 들어서 익힌 것이라고 했다. 2014년 11월 3일 면담 내용.

63) 제보자가 조사자와 다리뽑기를 하며 썩노래를 불렀다고 구연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2-11 강원도 정선군』, 2013, pp.638~639.

또한 제주도 제주시 신촌리 전옥순 제보자는 길을 왔다갔다 하면서 아이들끼리 어울려 단체로 불렀다고 한다. 2014년 11월 3일 면담 내용.

64) 제주도 조천읍 신촌리 임계순 제보자는 단형 중 확장형의 썩노래를 부르면서 어렸을 때 김 매러 가면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기억해서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2014년 11월 3일 면담 내용.

져 있고,<sup>65)</sup> 가장 긴 형태는 223행으로 이루어져 있다.<sup>66)</sup> 따라서 아동들이 부르기에 터무니없이 긴 노래이므로, 주로 성인이 향유했던 노래이며, 독창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형의 평노래가 장끼의 신세를 대변하는 노래였다면 암수갈등형은 상부(喪夫)한 까투리의 신세를 노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까투리와 같은 입장이라 볼 수 있는 여성들의 노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노래가 판소리에서 가사로, 가사에서 민요로 전이되었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그러나 과연 이 노래를 여성만이 향유했던 것일까 하는 데에는 선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조동일은 서사민요를 길쌈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서사민요와 길쌈 노동과는 관계없이 부르는 서사민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서사민요의 각 유형은 원래 길쌈노동요로써 생겨났고, 길쌈노동요로써 불리면서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불리게 되었고, 차츰 길쌈 노동과 관계없이 불리는 경우가 그 전보다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서사민요를 부른 남성창자들은 탁월한 기억력과 창작력을 지니며, 연령이 33.7세로 비교적 젊다고 하면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여성의 노래를 듣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근래에 여성의 노래를 배운 젊은 사람들이라 하였다.<sup>67)</sup>

그러나 암수갈등형의 평노래가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을 때, 과연 여성요로만 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암수갈등형을 부른 남성 제보자가 각각 진성호(제주, 1921년생, 1980년대 조사), 고운일(제주, 1933년생, 2007년 조사)이므로 조사 당시의 연령을 따져보더라도 위에서 조동일이 언급했던 비교적 젊은 제보자라 보기엔 어려운 면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제주에만 한정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현재로써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암수갈등형의 평노래는 서사성을 띤 긴 형식의 노래로 독창으로 부르면서 성인들이 향유했던 노래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65) MBC,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민요해설집』, p.667 <부록> 2-가-(6) 참조.

물론 이 노래의 가사는 음보로 행이 구별되어 있지는 않다. 이 노래는 장단을 기준으로 행을 나눴다고 생각되며, 그렇다면 음보로 행을 구별한 다른 노래와는 행의 수에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도 사실이 매우 축소된 형태로 노래가 불렸으므로, 가장 짧은 형태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66)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80, pp.782~785. <부록> 2-가-(5) 참조.

67)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pp.83~98.

## ② 시집살이형

시집살이형 썩노래가 앞의 단형과 암수갈등형과 가장 다른 점은 바로 화제가 썩이 아니라 며느리의 신세라는 점일 것이다. 게다가 화자 역시 며느리이다. 이때 대상은 시집식구이며 그들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만 여기서 썩은 사냥감으로서 시집식구를 우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하나, 간혹 썩 자체가 며느리와 동일시되어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노래의 창자는 성인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서사민요에 대해 서영숙은 혼자 부르기도 하고, 여럿이 모여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혼자 부를 경우에는 낮은 목소리로 느리게 부르며, 여럿이 모여 부를 경우에도 같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불러, 혼자 부를 경우와 부르는 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sup>68)</sup>

서사민요인가 서정민요인가 하는 논란은 있지만<sup>69)</sup> 특히 시집살이 노래는 일상생활 속에서 길쌈을 할 때, 밭일을 할 때, 맷돌을 돌릴 때 등 노동요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간혹 놀면서 부르기도 한다.

시집살이형 썩노래 역시 주제면에서 일반적인 시집살이요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구연상황과 가창방식은 동일했으리라 짐작된다.

## 2. 썩노래의 전승 과정

썩노래를 크게 단형과 장형, 두 유형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특히 전자가 서정성을 강하게 띠고 있고, 후자가 서사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면 둘의 전승 과정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과연 썩노래가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가 하는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앞에서 분류한 유형에 따르면 썩노래의 장형 중 암수갈

68) 서영숙, 「서사민요의 구연 상황 연구」, 『어문연구』 29, 어문연구학회, 1997, p.286.

69) 양영자, 앞의 글, 1991.

허남춘, 앞의 글, 1993.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학출판부, 1970.

등형의 전승 과정에 대해서는 권영호의 「장끼전의 민요화와 그 의미」<sup>70)</sup>가 있고, 시집살이형의 전승 과정에 대해서는 서영숙의 「시집살이에 대한 알레고리-〈핑노래〉와 〈방아깨비노래〉 비교」<sup>71)</sup>가 있으며, 핑노래 전반에 대한 논의로는 최혜진의 「〈장끼전〉 작품군의 존재 양상과 전승 과정 연구」<sup>72)</sup>가 있다.

우선 「장끼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끼가 아내 까투리와 함께 아홉 아들, 열두 딸을 거느리고 엄동설한에 먹을 것을 찾아 들판을 헤매다가 콩 한 알을 발견한다. 굶주린 장끼가 먹으려 하니 까투리는 지난밤의 불길한 꿈을 말하며 먹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나 장끼는 고집을 부리며 그 콩을 먹자 밧에 치어 죽는다. 죽으면서 아내에게 개가하지 말라고 유언한다. 까투리는 장끼의 깃털 하나를 주워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문상 왔던 갈가마귀·물오리 등이 청혼하나 모두 거절한다. 그러다가 문상 온 홀아비 장끼의 청혼을 받아들여 재혼한다. 재혼한 이들 부처는 아들 딸을 모두 혼인시키고 명산대천을 구경하다가 큰물에 들어가 조개가 된다.<sup>73)</sup>

핑노래와 「장끼전」을 견주어 보았을 때, 등장인물이나 배경, 사건 등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둘의 영향관계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백히 밝혀진 바가 없다.

최혜진에 따르면 「장끼전」 작품군은 설화, 민요, 한시, 판소리, 가사 소설 등 다양한 갈래를 가지고 있으며, 설화와 민요는 그 생성시기가 분명치 않고, 고품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소설이나 가사의 영향으로 생긴 것들도 있다고 한다. 이중 가사나 소설은 판소리로 불렸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판소리와 연관된 후대본이라고 추정하였고, 그 근거를 일관된 율문체와 판소리적 어투에서 찾고 있다.<sup>74)</sup>

최혜진은 핑노래를 ‘핑핑 장서방’ 계열과 ‘서사민요’ 계열로 나누고, 현재 ‘핑핑 장서방’ 계열의 민요는 판소리 형성에 영향을 준 것과 후대에 거꾸로 판소리나 가사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긴 ‘서사민요’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함께 공존

70) 권영호, 앞의 글, 1990.

71) 서영숙, 앞의 글, 2011.

72) 최혜진, 앞의 글, 2010.

7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1994, p.142.

74) 최혜진, 앞의 글, pp.360~361.



하며 전승되고 있다고 하였다.<sup>75)</sup>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핑핑 장서방’ 계열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런데 근원설화가 판소리로, 다시 판소리가 판소리계 소설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발전단계인데, 설화가 아닌 민요에서 기원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판소리 「장끼타령」이 현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사가 거의 없는 ‘핑핑 장서방’ 계열의 노래가 어떻게 서사화되어 판소리로 변모하는지 그 과정은 밝히지 않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장끼전」의 근원설화가 무엇인지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없다. 지금까지는 「장끼전」의 근원설화를 『어우야담』에 실려있는 ‘두더지의 혼사 이야기’ 그리고 ‘쟁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sup>76)</sup> 그중 두더지가 자식을 위해 좋은 혼처를 찾다가 결국 두더지끼리 결혼한다는 야서혼설화가 근원설화로 논의되기도 했으나 까투리가 상부한 이후 다른 장끼를 만나 개가를 한다는 내용은 「장끼전」의 여러 이본 중 개가 허용 유형일 뿐이어서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어른다툼을 하는 쟁장설화를 근원설화로 보기도 하는데 이 역시 「장끼전」의 이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이에 이미영의 「핑설화 연구」<sup>77)</sup>에서 제시했던 ‘암수갈등형’ 설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영은 핑이 등장인물로 설정된 설화를 ‘신이형, 보은형, 걸식형, 암수갈등형, 기타’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핑노래’에 관련된 설화 유형은 ‘암수갈등형’이다. 암수갈등형 설화는 경기도,<sup>78)</sup> 평안북도,<sup>79)</sup> 전라북도에서<sup>80)</sup> 조사된 바 있다.

설화의 내용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 ㉠ 까투리와 장끼가 아홉 아들 열두 딸을 데리고 먹이를 찾으러 나섰다가 콩 한 알을 발견한다.
- ㉡ 까투리가 콩을 먹지 말라고 만류한다.

75) 최혜진, 위의 글, 2010, p.367.

76) 우창호, 「<장끼전>의 형성과정 재고」, 『판소리 연구』 36, 판소리학회, 2013, p.184.

77) 이미영, 「핑 설화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0.

7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7 경기도 강화군편』, 1982, p.317. ‘까투리와 오리의 결혼’ 1편.

79)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 I』, 평민사, 1982, pp.24~27. ‘핑과 쥐’ 2편. ‘핑의 죽음’ 1편.

80)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편 II』, 평민사, 1991, pp.229~230. ‘핑과 소리개’ 1편.

- ㉔ 장끼가 콩을 먹고 텃에 치어 죽는다.
- ㉕ 까투리가 신세한탄을 하면서 장끼의 장사를 지낸다.
- ㉖ 까투리가 수절을 하거나 개가를 한다.
- ㉗ 소리개가 와서 새끼를 채 간다.

평안북도 설화 중에는 ㉑에 앞서서 까투리와 장끼가 한겨울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에게 가서 구걸을 하는 내용이 선행하기도 한다. 혹은 장끼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쥐에게 구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평설화 중 ‘걸식형’과 맞물려 있는 화소로, ‘암수갈등형’ 화소만 놓고 보면 위의 ㉑~㉗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중 ㉑~㉔은 설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반면, ㉕~㉗은 설화마다 다르게 등장하는 화소로 각각은 여러 이본들 중 하나의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위의 단락 구성을 보면 고전소설 「장끼전」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혜진은 「장끼전」 서사와 관련된 설화가 오히려 판소리나 가사의 영향을 받아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sup>81)</sup> 즉 ‘핑핑 장서방’ 계열의 민요가 서사화되면서 판소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살폈듯이 **암수갈등형 설화가 전라북도와 경기도를 비롯하여 평안북도에서도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 후기 판소리의 향유 권역은 주로 전라도를 비롯하여 경상도와 충청도, 경기도 일부가 해당된다. 처음부터 판소리의 향유 범위가 넓지 않았고, 조선 후기에 들어서야 지역 및 계급적 차원에서 급속히 넓어진 것이다. 게다가 양반층으로의 확대는 판소리가 열두 바탕으로 전해지던 것이 여섯 바탕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평안북도에 설화가 남아 있다는 것을 판소리의 영향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가사는 주로 영남 지역의 규방문화권에서 향유되던 가사계열로 추정되고 있는 바,<sup>82)</sup> 가사나 소설의 영향으로 후대에 설화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핑핑 장서방’ 계열의 평노래와 서사민요 계열의 평노래가 개별적으로 전승되어 왔다고 보는 편이 적합할 것이다.

한편 소설 「장끼전」 뿐만 아니라 「자치가」 등의 가사 작품에서도 장끼와 까투리의 갈등이 드러나고 까투리의 만류를 무시한 장끼가 죽음에 이르는 서사구조

81) 최혜진, 앞의 글, 2010, p.363.

82) 이문성, 「고대본 <자치가>의 특징과 의미」, 『판소리 연구』 36, 판소리학회, 2013, p.423.

는 민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 일부의 민요는<sup>83)</sup> 4음보의 연속체로 되어 있어 가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장끼전 자치기」나 「까투리가」를<sup>84)</sup> 살펴보면 운율과 문체가 앞에 제시한 민요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만 가사가 인간의 위협이 훨씬 더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점, 까투리의 꿈이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 새벽녘으로 조밀하게 제시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꿈풀이로 만류가 안 되자 고사를 들어 갈등의 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장끼의 장례를 치르는 부분에서 발인, 하관, 요약, 반우제, 삼우졸곡, 소상과 대상까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일부의 민요와 가사에 사용된 문체나 율격이 거의 「장끼전」<sup>85)</sup>과 흡사한 면이 많다. 소설의 시작하는 어구가 “건곤(乾坤)이 배관할 제, 만물이 번성하여 귀할손 인생이요, 천할손 증생이라. 날증생도 삼백이요, 길증생도 삼백이라, 꿩의 화상(畫像) 불작시면 의관(衣冠)은 오색(五色)이요”라고 하여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꿩의 외양묘사나 사건 진행, 장끼와 까투리의 주고받는 대화 부분, 까투리의 상부(喪夫) 내력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민요와 가사, 소설이 매우 밀접하게 교섭하면서 전승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꿩노래가 「장끼전」과 유사한 면이 많아 권영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록물을 대본으로 하여 익힐 때 가능항 현상으로 보고, 꿩노래가 「장끼전」으로부터 전환된 산물로 보았다. 또한 「장끼전」에는 문장체 소설로의 개작 흔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 선행 단계인 「장끼타령」과의 거리가 거의 없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암수갈등형의 꿩노래가 어떤 것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판소리와 소설의 두 장르가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86)</sup>

암수갈등형의 꿩노래는 「장끼전」과 매우 유사한 것이 있는가 하면 서사구조만 유지할 뿐 원래의 형태와 떨어진 것도 있다. 즉 어떤 민요에서는 노래와 말을 섞어서 구연하기도 하고,<sup>87)</sup> 서사구조가 단순화되고,<sup>88)</sup> 지역어를 사용하여 구연을 하며,<sup>89)</sup> 구조에 어울리지 않는 사설이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한다.<sup>90)</sup> 이에 대해 권

83) <부록> 2-가-(2), 2-가-(3), 2-가-(4), 2-가-(5) 참조.

84) 임기중,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www.krpia.co.kr.

85) 전규태, 『한국고전문학전집 소설집 I』, 수문서관, 1981, pp.325~333.

86) 권영호, 앞의 글, 1990, pp.131~138.

87) <부록> 2-가-(1) 참조.

88) <부록> 2-가-(6), 2-가-(7), 2-가-(8) 참조.

영호는 「장끼전」이라는 기록물이 어떤 계기에 의해 민요로 전환되어 불리면서 평노래가 성립된 후 구연현장을 통해 전승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무난한 설명이 된다고 하였다.<sup>91)</sup>

시집살이형 평노래는 단형이나 장형의 암수갈등형에 비해 대상에 대한 감정이 입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 이유는 단형이나 암수갈등형의 평노래의 화제가 각각 장끼의 신세와 까투리의 신세였다면 시집살이형 평노래는 며느리로, 창자와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암수갈등형의 평노래가 부부간의 갈등을 다룬 노래였다면, 시집살이형 평노래는 시집식구들과 며느리간의 갈등을 다룬 노래이다. 표면적으로는 며느리가 시집식구들을 대접하고 싶다는 사실로 되어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시집식구들을 비판하는 풍자적인 노래이다. 평 설화 안에 평노래가 삽입된 경우도 있고, 평노래 자체가 평 설화의 서사 내용을 전부 담고 있는 경우도 있어 평노래와 설화와의 교섭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어리 노릇을 한 며느리 설화’가 있다. 이 설화는 현재 경기도,<sup>92)</sup> 충청남도,<sup>93)</sup> 전라북도,<sup>94)</sup> 전라남도,<sup>95)</sup> 제주도에<sup>96)</sup> 조사된 바가 있다.

- ㉠ 며느리가 시집갈 때 친정에서 삼 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내라고 당부한다. (둘이나 바둑을 넣어 보내는 경우도 있다.)
- ㉡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말을 하지 않고 지내자, 시집에서 병어리라고 오해를 받는다.
- ㉢ 결국 친정으로 다시 내쫓기게 된다.
- ㉣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평을 발견하고 평노래를 부른다.
- ㉤ 며느리가 병어리가 아님을 알게 되고 다시 시집으로 돌아온다.<sup>97)</sup>

89) <부록> 2-가-(9) 참조.

90) <부록> 2-가-(10), 2-가-(11) 참조.

91) 권영호, 위의 글, 1990, p.140.

92) ‘병어리 시집살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9 경기도 용인군편』, 1984, pp.234~238.

93) ‘시집살이 이야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4-6 충청남도 공주군편』, 1984, pp.529~531.

94) ‘둘이 말할 때까지 병어리된 며느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5-2 전라북도 완주군편』, 1981, pp.455~456.

95) ‘병어리 노릇한 며느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6-4 전라남도 승주군편』, 1985, pp.305~307.

96) ‘입은 시어머니, 발은 시누이, 날개는 시아버지, 가슴살은 서방님’.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14, 1997, pp.321~323.

97) 제주도의 경우에는 밭에서 김을 매다가 평노래를 부르는데, 시아버지가 듣고 얼마나 며느리를 괴

위의 ㉔에서 평노래를 말로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노래하듯이 구연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는 노래로 구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연자는 설화 속에 노래가 삽입된 형태임을 인지하고 구연하였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영숙은 평노래의 구연방식을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하였다.<sup>98)</sup>

- ① 배경서사와 핵심노래를 모두 노래로 부르는 경우
- ② 배경서사는 이야기로 하고, 핵심노래만 노래로 부르는 경우
- ③ 배경서사는 생략하고 핵심노래만 노래로 부르는 경우
- ④ 배경서사와 핵심노래를 모두 이야기로 하는 경우

그 결과 평노래가 경남 의령에서 1편, 제주에서 1편을 제외하고는 호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이 노래를 이야기로만 전승한 지역은 순천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호남을 벗어난 영남과 경기 지역으로서, 서사민요가 중심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노래로서의 구연방식이 이완되면서 이야기로 구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sup>99)</sup>

그러나 조사된 민요의 수치를 과연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요의 모든 목록을 제보자에게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평노래인 경우 다른 민요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조사자가 평노래를 아는지 질문하지 않는 이상 구연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조사된 수치에 대해 완벽히 신뢰할 수 없는 처지이다. 또한 경남과 제주에서 조사된 노래가 어떤 경위에서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전파의 과정이 확연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또한 여전히 시집살이형 평노래가 설화의 삽입형이었는지, 원형에 서사 구조가 완벽히 담겨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기로 하겠다.

따라서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평노래는 단형과 장형, 그리고 장형에는 암수갈

---

몹혔으면 이런 노래를 불렀겠냐고, 오히려 딸과 시어머니를 내쫓았다고 되어 있다.

98) 서영숙, 앞의 글, 2011, p.64.

99) 서영숙, 앞의 글, pp.65~70.

등형과 시집살이형의 유형이 존재하며, 각각은 별개로 전승되어 왔다고 여겨진다. 그중 단형은 현재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 있어 광포 유형이면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암수갈등형 평노래는 처음에는 조선 후기에 판소리로 불리다가 가사와 소설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다시 민요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시집살이형 평노래는 그 기원은 언제부터인지 알 길이 없으나 원형이 설화의 삼입형인지 서사성이 강한 노래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다만 전승이 가장 많이 퇴화된 형태라고 여겨진다.



### Ⅲ. 땡노래 유형 분석

땡노래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노래의 길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즉 짧은 노래를 ‘단형’으로, 긴 노래는 ‘장형’으로 대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형은 다시 기본형을 설정하고 사설이 점점 확장해 나가는 면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장형은 내용별로 다시 암수갈등형과 시집살이형으로 나누어 서사가 노래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 선정한 자료 중 공통된 노래를 제외하고 선별한 97편의 땡노래를 지역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땡노래 지역별·유형별 분포도 (단위:편)

지역별	유형별	단형	장형	
			암수갈등형	시집살이형
제주(20)		16	3	1
전남(15)		13	1	1
전북(11)		6	2	3
경남(10)		6	3	1
경북(19)		17	2	0
충남(5)		5	0	0
충북(6)		6	0	0
경기(4)		4	0	0
강원(7)		7	0	0
총계(97)		80	11	6

위 자료들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땡노래가 우리나라 남한 일대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형의 땡노래가 월등히 많이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단형

여러 땡노래 중 비교적 짧은 노래에 해당하는 단형은 수집된 노래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최다빈도형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유형이다. 주로 평에게 안부를 묻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단형은 짧게는 4행으로,<sup>100)</sup> 길게는 29행으로<sup>101)</sup>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민요에서 29행은 그리 짧은 노래가 아니지만 대개 100행이 넘어가는 평노래의 장형에 비하면 그리 긴 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단형 중에서도 비교적 사설이 긴 것은 기본형에서 점점 사설이 덧붙여져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①

핑핑 장서방  
 어땡어땡 살암소  
 그럭저럭 살암소  
 무얼먹고 살암소  
 어엿어엿 땡기땡  
 콩팏죽어먹엉 살암소<sup>102)</sup>

A-②

결결	장서방
자네집이	오덴고
이산저산	넘어서
삿갓집이	내집이네 <sup>103)</sup>



A-③

핑핑핑 평서방  
 무엇 먹고 살았나  
 이웃댁이 콩 한 되  
 아랫댁이 팔 한 되  
 무엇 베고 잤나  
 무수 베고 잤네  
 무엇 덮고 잤나  
 방석 덮고 잤네

10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8-5 경상남도 거창군편』, 1980, p.753. <부록> 1-(5) 참조.  
 10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 1983, pp.455~457. <부록> 1-(6) 참조.  
 10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위의 책, 1983, p.908. <부록> 1-(8) 참조.  
 10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8-5 경상남도 거창군편』, 1980, p.753. <부록> 1-(5) 참조.



무엇 깔고 잤나

짚을 깔고 잤네 (충남 지방)<sup>104)</sup>

노래에 꿩이 의인화되어 등장하는데, 화자가 꿩을 부르면 꿩이 듣고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통 꿩 울음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를 앞세우고 꿩을 부르기 때문에 대개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꿩꿩 장서방’이라 칭하기도 한다.

A-①은 단형의 가장 기본형이라 할 수 있다. 시작구를 ‘꿩꿩 장서방’으로 하여 화자가 장끼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장끼가 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꿩의 울음소리는 ‘꿩꿩, 꺄꺄, 꿩꿩꿩, 꼬공’ 등 다양하게 등장한다.<sup>105)</sup> 꿩을 부를 때에는 주로 ‘장서방’이라 일컫는데, 이는 꿩의 수컷을 가리켜 ‘장끼’라고 부르기 때문에 ‘장서방’이라 하며, 혹은 ‘꿩서방’이라 하는 경우도<sup>106)</sup> 있다.

그 다음 안부를 물을 때에는 주로 무엇을 먹었는지를 묻는다. 또한 A-②처럼 어디에 사는지 등을 묻기도 하고, 간혹 A-③처럼 잠을 자는 과정을 자세하게 묻기도 한다. 그러면 장끼는 이에 대해 답을 해준다.

그렇다면 단형의 기본형은 장끼에게 안부를 묻는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단형으로 수집된 꿩노래 총 80편 중 73편이 안부를 묻는 내용이 들어간다.(〈부록〉 참조)

안부를 묻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대개 꿩의 외양을 묘사하거나 포수가 등장하기도 하며, 혹은 다른 포식자가 위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포수나 다른 포식자의 등장은 꿩에게 위협을 가져다주는 존재이다. 그리고 장끼의 화려한 외양은 그들에게 눈에 띄기 쉽다. 따라서 늘 위협이 도사리는 곳에서 장끼가 잘 지내고 있는지 노래의 앞부분에 안부를 묻는 사실이 있음을 전제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안부를 묻는 사실이 꿩노래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부분이 생략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104) 신경림, 앞의 책, 1991, pp.125~126. 〈부록〉 1-(29) 참조.

105) 이에 대해 모형오는 ‘꿩꿩 장서방’의 시작구를 각 지역별로 정리하고 꿩을 지칭하는 시작구가 ‘꺄꺄’과 ‘꿩꿩’으로 크게 나뉘짐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강원도·경상도·충청북도 단양과 영동은 ‘꺄꺄·꺄꺄’ 등으로 불리고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남도 남해안권에서는 ‘꿩꿩’으로 불린다고 하였다. 모형오, 앞의 글, 2011, pp.62~63.

106) 신경림, 앞의 책, 1991, pp.125~126. 〈부록〉 1-(29) 참조.

A-④

좋일레라 좋일레라  
 꿩이란 놈 신세는 좋을레라  
 초록수건 목에 걸고  
 비단 대단은 꿩지에 달고  
 단풍에 든 콩밭에로  
 가무와 감실이 날아든다<sup>107)</sup>

꿩은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할 만큼 암수의 구별이 뚜렷한 동물이다. 게다가 장끼는 까투리와 달리 외양이 매우 화려하다. 다양한 색깔의 털로 몸을 두르고 있어서 어디서나 눈에 띄는 동물이다. 들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꿩들을 보면서 노래가 만들어진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여느 동물에 비해서 유난히 화려하게 보이는 장끼의 모습은 노래로 불리기에 충분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간혹 장끼의 외양을 묘사하는 사설이 꿩노래에서 단독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좋일레라 좋일레라’ 혹은 ‘졸래더라 졸래더라’처럼<sup>108)</sup> 부러움의 표현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다. 좋은 비단옷을 입고 화려한 치장을 한 장끼의 모습은 창자의 처지와 크게 대조가 되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부러움의 표현이 노래 사설에 그대로 담겨 있다.<sup>109)</sup>

A-⑤

꿩꿩	장서방
무얼먹고	사느냐
앞집이라	콩한섬
뒷집이라	팥한섬
그럭저럭	먹고 사네
나는	
저건네	덤풀밑에
포수땀에	못살겠네 <sup>110)</sup>

107) MBC,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민요해설집』, 1995, p.555. <부록> 1-(48) 참조.

108) 임동권,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p.241. <부록> 1-(25) 참조.

109) 비록 노래에 직접적으로 ‘좋겠다’라는 사설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경우에도 면담 중 어떤 제보자(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임계순)는 노래를 부르고 난 뒤 꿩을 묘사한 대목에서 ‘알록달록한 저고리에, 구슬도 달고, 깨끗하게 동정도 달았으니 얼마나 곱다는 말이겠냐’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1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5-2 전라북도 전주시편』, p.116. <부록> 1-(2) 참조.

A-⑥

뽕뽕 장서방  
 어찌어찌 살아요  
 무얼먹고 살아요  
 삼년묵은 그릇발에  
 오년묵은 그릇발에  
 오박꼬박 하염시난  
 날잡으러 오는구나  
 한쪽눈을 버르뜨며  
 한쪽눈을 감아가며  
 날잡으러 오는채시  
 꼬불꼬불 오는구나<sup>111)</sup>

A-⑦

재넘어 김서방이 / 제안에 장서방보고  
 꺾꺾 장서방 / 무엇먹고 사는가  
 콩한쪼각 팥한쪼각 / 그럭저럭 먹고사네  
 이리고로 공론혈때 / 열두골 표수들이  
 날잡으라 하려고 / 언덕밑에 우뚝앉아  
 만산을 둘러보니 / 열두골 표수들이  
날잡으다 몇할라나 / 날잡어 필요현일 / 어뎠느냐  
높은상의 올려다라 / 니가무슨 높은상  
지지구지야 재지구지야 / 임금의 상의나 올리고지야<sup>112)</sup>

A-⑤는 포수의 등장으로 장끼가 살기에 매우 힘들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포수가 갖고 있는 총은 일반인들은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다. 따라서 장끼와 화자를 동일시할 때 포수는 이 둘에게 위협과 공포를 주는 대립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포수가 나타나 장끼를 겨냥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포수 때문에 몹시 불안하다는 감정을 그대로 사설에 표출하기도 하기도 하는 것이다.

반면 포수가 등장하는 사설이 불릴 때에는 A-⑥과 같이 포수가 사냥하는 자세 등이 자세히 묘사되기도 한다. 그러면 장끼가 받는 위협의 정도가 극적으로 표현

111) 임동권, 『한국민요집 I』, 집문당, 1980, p.325. <부록> 1-(17) 참조.

112) 임동권,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p.241. <부록> 1-(25) 참조.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A-⑤나 A-⑥에 비해 A-⑦은 매우 특이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A-⑤나 A-⑥은 포수의 등장만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A-⑦은 마치 포수와 대면을 하여 문답을 하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당당히 자기를 왜 위협하는지 따져 묻고, 기왕 잡을 거면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앞의 예에서 나타나는 불안과 공포는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매우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A-⑧

- (a) 핑핑장서방 / 어찌어찌 사느냐  
내가어찌 / 못살리야
- (b) 알롱달롱 / 저구리에  
청세옥세로 / 짓을들려  
백해멩지로 / 꿈을드려  
즈지멩지로 / 동전들려  
입어아전
- (c) 오년묵은 / 가슬왓  
삼년묵은 / 가슬왓  
어염어염 / 돌암드니
- (d) 핑마치는 / 게아덜놈  
흔착눈을 / 짱기리고  
흔착눈은 / 부릅뜨고  
날잡으레 / 오람더라
- (e) 이만흐민 / 어똥흐리  
더월속에 / 기여들어  
곡거월은 / 걷어불명  
고사리는 / 꺾어불명  
삼각산의 / 굽어올라
- (f) 이층전에 / 집을지어  
먼문발라 / 대문돌아  
대문발라 / 뒷문돌아  
뒷문발라 / 장항싱겨  
장항뒤예 / 대왓드려  
대왓우의 / 너딩올려  
너딩우의 / 책갑퇴와  
아덜애기 / 글청흐라  
달애기 / 조사흐라  
메늘애기 / 방애지라<sup>113)</sup>



A-⑧은 (a) 화자가 장끼와 문답한 후 (b) 장끼가 자신의 몸치장을 설명하고 있다. 장끼가 (c) 이발 저발 다니다가 (d) 포수의 위협을 받고, (e)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 (f) 집을 지어 가족들과 살고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들 낳고 딸 낳고 산다는 내용의 사실이 담긴 꿩노래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e)나 (f)처럼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 집을 지어 가족들과 사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실은 제주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f)에는 집을 짓고 사는 내용이 자세히 드러나 있는데, 집의 구조가 제주의 가옥 구조와 일치한다. 이와 대응되는 타 지역의 사실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A-①, A-②, A-③는 장끼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으로,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다. A-④는 장끼의 외양을 묘사하는 내용이다. A-⑤, A-⑥, A-⑦은 포수가 등장하여 장끼를 위협하는 내용이다. A-⑧은 장끼에게 안부를 묻고, 장끼의 외양이 묘사되었으며, 포수가 등장하여 위협을 받자, 깊은 산 속에 집을 짓고 일가를 형성하여 살고 있는 내용이다.

위의 화소를 정리하면 ‘안부 묻기, 꿩 묘사, 포수 등장, 집 짓기’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단형은 ‘안부 묻기’의<sup>114)</sup> 기본형에서 ‘안부 묻기 + 꿩 묘사’,<sup>115)</sup> ‘안부 묻기 + 꿩 묘사’,<sup>116)</sup> ‘안부 묻기 + 포수 등장’,<sup>117)</sup> ‘안부 묻기 + 꿩 묘사 + 포수 등장’,<sup>118)</sup> ‘안부 묻기 + 꿩 묘사 + 포수 등장’,<sup>119)</sup> ‘안부 묻기 + 포수 등장 + 집 짓기’,<sup>120)</sup> ‘안부 묻기 + 꿩 묘사 + 포수 등장 + 집 짓기’로<sup>121)</sup> 확장할 수 있다.

1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 1983, pp.455~457. <부록> 1-(6) 참조.

114) <부록> 1-(1), 1-(4), 1-(5), 1-(7), 1-(8), 1-(9), 1-(11), 1-(12), 1-(13), 1-(15), 1-(18), 1-(19), 1-(22), 1-(23), 1-(24), 1-(27), 1-(28), 1-(29), 1-(30), 1-(31), 1-(32), 1-(34), 1-(35), 1-(36), 1-(38), 1-(39), 1-(40), 1-(41), 1-(43), 1-(44), 1-(45), 1-(46), 1-(47), 1-(50), 1-(51), 1-(52), 1-(53), 1-(55),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4), 1-(89), 1-(91), 1-(92), 1-(93), 1-(96), 1-(97), 1-(98), 1-(100), 1-(102), 1-(104), 1-(107), 1-(108), 1-(113), 1-(115) 참조.

115) <부록> 1-(16), 1-(17), 1-(95), 1-(99), 1-(109) 참조.

116) <부록> 1-(10), 1-(21), 1-(26), 1-(48), 1-(112) 참조.

117) <부록> 1-(2), 1-(14), 1-(25), 1-(33), 1-(37), 1-(42), 1-(56) 참조.

118) <부록> 1-(3), 1-(20), 1-(49) 참조.

119) <부록> 1-(54) 참조.

120) <부록> 1-(94), 1-(101) 참조.

121) <부록> 1-(6), 1-(105), 1-(106), 1-(114), 1-(116) 참조.

## 2. 장형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장형의 평노래는 당연히 단형에 비해 길이가 긴 노래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길이에만 의존하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폈듯이 단형의 경우 여러 화소가 덧붙여져 확장의 기회가 많고, 창자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장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장형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유형은 기본적으로 서사성을 띠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드러나는 노래의 길이가 단형이 확장된 형태에 비해 오히려 짧을 수 있지만 서사를 담보하고 있다면 장형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서사를 담보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노래의 실상은 서사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노래의 배경에 서사가 담겨 있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기억의 한계에 의해서 노래에 서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혹은 설화에 민요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제보자의 상황을 알 수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유추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이다. 그렇다고 현전하는 자료만 가지고 노래의 성격을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충분히 서사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는 서사가 배제된 것이 아니라 생략된 것, 혹은 서사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 암수갈등형

암수갈등형의 평노래는 암평인 까투리와 수평인 장끼 사이의 갈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겨울 눈 덮인 들판에서 콩 한 알을 발견한 장끼가 먹으려하자 간밤에 꿈이 안 좋다고 먹지 말라고 까투리가 만류를 한다. 그러나 장끼는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고 콩을 주워 먹다가 밧에 걸려 죽고 만다. 이에 까투리가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장끼의 장사를 지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B-①

(a) 건곤이 조찬하니 / 만물이 풍성이라 / 귀한것 사람이요 / 천한것 짐승이라  
유유충도 삼백이요 / 유모충도 삼백이라 / 핑의몸이 생겨날제 / 의관은 오색이요

(중략)

(b) 장끼란놈 치장보면 / 황문단 옷고름에 / 초록주색 깃을달고 / 백망사로 동정달고  
주먹배실 옥관자에 / 열두장목 만신평채 / 장부기상 장할씨구  
까토리는 단장하되 / 애롱애롱 저고리고 / 애로롱 치마에 / 애롱머리 곱게벗어  
맷시있게 단장하고 / 열두딸 아홉아들 / 수무하나 주래등을 / 앞세그니 뒷세그니  
너는 저골죽고 / 나는 이골죽고 / 점점주워 들어가니 / 난데없는 불롱하나  
동그랗게 놓였구나

(중략)

(c) 까토리 하는 말이 / 야야그롱 먹지마라 / 그롱하나 먹다가는 / 천대변을 만날테니  
한때꿇은 셈을하고 / 제발그롱 자시마오

(중략)

(d) 장끼란놈 거동보오 / 열두장목 만신평채 / 좌우로 퍼뜨리고 / 꼬박꼬박 고대로아  
조금조금 들어가서꽉찍어니 / 핑핑핑핑 푸더덕덕 / 변통없이 처었구나

(e) 까토리 거동보고 / 사하평전 잘간발에 / 땡굴땡굴 궁걸면서 / 내말곤 들었어면  
저른변이 있겠는가  
첫번낭군 얻었다가 / 무지객군 덜어가고 / 둘째낭군 얻었다가 / 백송고리 덜어가고  
셋째낭군 얻었다가 / 독수리가 덜어가고 / 넷째낭군 얻었다가 / 똥지핑이 덜어가고  
다섯째를 얻었다가 / 새사랑도 못하여서 / 망덕같은 쇠사슬에 / 들켜치어 죽게되니

(중략)

(f) 한창이래 / 할즈음에 / 창에친겨 / 망보다가  
배뺨좃아 / 내려와서 / 장끼핑을 / 빼어들고  
희희낙락 / 춤을 추니 / 천년묵은 / 에그지를  
오늘식전 / 잡았어니 / 내재수가 / 용하더냐

(중략)

(g) 까토리가 뒷밧바다 / 바우틈에 끼인새를 / 간신히도 찾아내어 / 칩잎으로 소렴하고  
맹맹줄로 절관하여 / 장사지널 그재상에 / 가랑잎에 청감주를 / 사리풍랑 백설기요  
구람딱지 깊은잔에 / 까떡부어 얹어놓고 / 영결중천 쓰러졌네<sup>122)</sup>

B-①의 구조를 살펴보면 (a) 핑 등장 및 핑의 수난 (b) 장끼와 까투리 치장 및 먹이 발견 (c) 꿈풀이를 통한 까투리와 장끼의 갈등 (d) 장끼의 죽음 (e) 까투리

122)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80, pp.782~785. <부록> 2-가-(5) 참조.

의 한탄 및 장끼의 죽음 확인 (f) 수렵꾼의 등장과 고사 (g) 장끼의 장례로 되어 있다.

(a) 본래 생기길 사람은 귀하게 태어났고, 짐승은 천하게 태어났으므로 꿩은 인적을 피해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곳에는 각종 매들과 사냥개들이 위협하고 있어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다시 밭으로 내려와 콩이나 주워 먹으며 살려고 하고 있다. (b) 화려한 외양의 장끼와 단정하면서도 맵시 있는 까투리의 치장이 드러나며, 장끼가 콩밭에서 콩을 발견한다. (c) 장끼에게 콩을 먹지 말라는 까투리의 만류가 길게 제시되어 있다. 까투리는 일경, 이경, 오경에 낚은 꿈이 흥몽임을 들어 장끼를 만류한다. 그러나 장끼는 꿈풀이를 다르게 하여 오히려 그 꿈이 길몽임을 강조하며 끝내 콩을 쪄서 먹는다. (d) 그러다 결국 밭에 치어 죽고 만다. (e) 이에 까투리가 한탄을 하는데 그러면서 까투리의 상부 전력이 드러난다. 까투리가 장끼의 맥도 살펴보고, 눈도 살펴보지만 살려낼 길이 없다. (f) 그러다 원래 밭을 놓았던 수렵꾼이 등장한다. 수렵꾼은 까투리마저 잡히게 해 달라며 장끼의 혀를 빼서 고사를 지내고 내려간다. (g) 그러자 까투리가 그 혀를 찾아내어 장사를 지내놓고 쓰러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반면 다음 B-②의 서사구조는 B-①과 흡사하나 서술하는 문체가 많이 변화되어 있고, 사설이 많이 축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B-②

(a) 아들 딸 달고 가서

딸 열둘 너는 이골 매고 아들 열둘 저골매라

(b) 불콩 하나 흘렀구나 어허 그콩 소담하다 한개 묵어 볼까

(c) 까투리가 하는 말이 그콩 묵지 마소

간밤에 꿈을 꾸니 파랑보에 짐을 싸서 신발 신는 지생이요

(b') 어허 그콩 소담하다 한개 묵어보자

(d) 널름 집어묵고 까투리야 내눈에 동자 하나 있나 봐라

한쪽 눈에는 동자가 파랑보에 짐을 싸고 신발 신는 지생이요

(e) 쟁끼란 놈 죽고나니 까투리가 하는 말이

첫째 낭군 얻었더니 김포수가 잡아가고

두째 낭군 얻었더니 박포수가 잡아가고

시째 낭군 얻었더니 불콩 묵고 죽었구나



에이고 찐디머리 푸티리고 에이고 에이고 내팔자야  
 (f) 서산으로 날라가니 임제는 와서 좋다꼬  
 쟁끼란 놈 매가지를 팍팍 끊어 바우우에 얹어 놓고  
 한달에 스물 아홉번씩만 생기 줍소사<sup>123)</sup>

B-②를 B-①의 서사구조에 견주어 살펴보면 (a) 꿩의 가족 등장 (b) 먹이 발견 (c) 까투리의 만류 (d) 장끼의 죽음 (e) 까투리의 한탄 (f) 수렵꾼의 등장과 고사로 되어 있다.

(a)를 보면 B-①에는 꿩의 일반적인 생태에 대해서 서술했다면 B-②는 꿩의 가족이 언급되어 있는 점이 다르나 매우 단순하게 등장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b)로 이어진다. (b)에 B-①이 꿩의 외양 묘사를 자세하게 했다면 B-②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고 그저 콩을 발견하는 것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사건의 전개가 매우 급함을 알 수 있다. (c)에는 장끼에게 콩을 먹지 말라는 까투리의 만류가 짧게 제시되어 있으며 꿈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생략되어 있다. 그리하여 장끼의 반박의 여지가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까투리와 장끼의 갈등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결국 (d)에서 장끼는 밧에 치어 죽고 만다. 이에 (e)에서 까투리가 한탄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까투리의 상부 전력이 드러난다. 「장끼전」의 주요 내용이 장끼와 까투리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B-②는 오히려 까투리의 상부 전력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f)에서 원래 밧을 놓았던 수렵꾼이 등장하여 고사를 지내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b)와 (b')가 두 번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포랑보에 짐을 싸서 신발 신는 지생이요”가 (c)와 (d)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B-①에서 장끼는 까투리의 거둬되는 만류에 반박하는 말만 반복하는데, 여기서는 콩이 맛있게 생겼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사실 내용상 그리 중요한 사실이 아님에도 반복을 하고 있다. 또한 “포랑보에 짐을 싸서 신발 신는 지생이요”라는 말의 뜻은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양을 ‘보자기에 짐을 싸서 신발 신고 나가는 형국’에 비유한 것으로 죽음에 다다른 모양을 나타내는 사설이다. 따라서 서사구조상 (d)에 어울리는 내용인데 (c)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23) MBC,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민요해설집』, 1995, p.667. <부록> 2-가-(6) 참조.

B-③

(a) 동지섯들 설한풍에 / 아홉애기 열두등에 / 주례등을 앞세웁고 뒤세완  
옴신들신 좃어먹으며 가노라흐니

(b) 난딤없는 콩흔방울이 / 닝끼리고 땡기리난

(c) 낭군님아 낭군님아 / 이콩제발 먹지마오

(중략)

(d) 어서먹소 콧웃이난 / 닝끼리고 땡기런 / 브들브들 죽어가난

(f) 동네나 할아버진 / 집잇할망 복이더나 / 난릿영감 복이더나 / 엄기덩기 가지고가난

하르바지 야개기나 주고가소 / 우리집의 손지방되나 흘거다

(중략)

(g) 열두무에 무꺼놓안 / 아이고지고 울엄시난

(h) 가마귀놈이 터박터박 / 느려오며 곁는말이 / 대죽만서 수다시끼 / 개보호여 가랴흐니

나과살기 어찌흐나

조끔시니 비둘기가 / 터왓터왓 느려오며 곁는말이 / 대죽만서 수다시끼 / 개보호여 가랴흐니

나과살기 어찌흐나

가마귀놈이 곁는말이 / 이놈의 눈불갱이 아덜아 / 내가 몬쳐 말흐는데 / 니가 무슨 방해나

(중략)

소레기놈이 터박터박 / 느려오며 곁는말이 / 대죽만서 수다시끼 / 개보호여 가랴흐니

나과살기 어찌흐나 / 입이영 쭈작흔게 / 무서우난 거랑기영 홉셴해연

옴신들신 좃어먹으며가다 / 갈남밭동네로나강 좃어먹게 / 낭군님아 낭군님아

낭군님 재주사 용흐니 / 재주나 혼번 부리심서 / 하늘광 땅새에 / 곱곰이 올라브난

즈칫년은 갈남입 / 일생이 하나더견 / 해트랑케곱안 누워시난 / 똥소레기놈이 느려오란

이구석 주왓 / 저구석 주왓 / 즈치씨랑 보아지건 / 다잡아먹주 해엇더니

(중략)

개굴레비놈이 쪼작내들으며 / 대죽만서 수다시끼 / 개보호여 가랴흐니 / 나과살기 어찌흐나

웨너는 태дук배가 웨엇느냐 / 쇠설적의 아버지 죽고 / 두설적의 어머니 죽언

느진덕이 정하님이 / 아버지가 먹는 똥 / 어머니가 먹는 똥

밥을하영 쥐브난 / 배는 태дук배가 웨엇소

(중략)

앞발로 콧웃이난 / 브들브들흐난 요놈도 / 재주자 좋구나 / 두번을 좃이난 / 느랏흔게 죽으난

(중략)

다리흔착어신 꿩이내드리며 / 대죽만서 수다시끼 / 개보호여 가랴흐니 / 나과살기 어찌흐나

꿩끼리 꿩끼리 / 살더라 홉네다 옛날에<sup>124)</sup>

B-③를 B-①의 서사구조에 견주어 살펴보면 (a) 꿩의 가족 등장 (b) 먹이 발견 (c) 꿈풀이를 통한 까투리와 장끼의 갈등 (d) 장끼의 죽음 (f) 수렵꾼의 등장 (h) 다른 동물들의 청혼과 까투리의 개가로 되어 있다.

(a) 한겨울에 먹이를 찾아 가족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b) 콩 한 방울을 발견한다. (c) 꿈 이야기를 하면서 까투리가 만류를 하지만 장끼는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콩을 먹는다. (d) 결국 장끼가 죽게 되는데, 다른 꿩노래에서 나오는 까투리의 신세한탄은 크게 드러나지 않고 곧바로 (f) 수렵꾼이 등장한다. 장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야개기’(목)나 ‘날개기’(날개)를 달라고 요청하지만 ‘터럭 혼 줌’(털 한 줌)만 겨우 얻고, (g) 장끼의 장례를 치른다. (h) 이때 가마귀, 비둘기, ‘소레기’(독수리), ‘개굴레비’(개구리)가 등장하여 까투리에게 청혼을 하나 모두 거절하고 나중에 ‘다리 혼 착 어신 장끼’(다리 한 쪽 없는 장끼)의 청혼을 받아들여 까투리는 개가를 한다.

B-③의 사실 구조를 보면 B-①에 거의 일치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까투리의 개가 내용이 더 첨가가 되었다. 지역어를 그대로 구사하면서 사실 구조를 완벽히 구현하는 것은 드문 예이다.

또한 (h)에서 가마귀가 먼저 등장하여 까투리에게 청혼하고, 곧이어 비둘기가 등장하여 청혼을 한다. 이에 가마귀와 비둘기 사이에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툰다.

그 다음 ‘소레기’(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롭다. 독수리가 워낙 무서운 동물이기에 독수리의 청혼을 거절하지 못하고 까투리는 재혼을 허락한다. 그러다가 겉으로는 독수리를 부추기는 듯하며 재주를 부려보도록 한다. 독수리가 하늘과 땅 사이를 비행하는 동안 까투리는 나뭇잎 속에 숨어서 독수리로부터 도망친다. 그러나 금방 들리게 되고 다시 또 독수리가 재주를 부리도록 부추긴 다음 수풀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린다. 이 대목에서는 지혜를 발휘하여 두 번이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까투리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독수리는 화가 나서 ‘즈치씨를 다 잡아먹주’(꿩새끼를 다 잡아먹지)하며 분해하지만 뒷이야기는 불리지 않는다. 다만 제주에서 전해지는 꿩노래 중에는 까투리가 다른 동물에 의해 새끼를 잃는 화소가 등장하기도 하는데,<sup>125)</sup> B-③의 독수리

124) 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민요해설집』, 1992, pp.47~49. <부록> 2-가-(9) 참조.

등장 화소와 연관시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굴레비’(개구리)의 등장에는 제주무가가 삽입되었는데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매우 특이한 형태이다. ‘웨너는 태독배가 웨엇느냐’(왜 너는 항아리 같은 배가 되었느냐), ‘웨몸은 어리룩 해엇느냐’(왜 몸은 얼룩이 생겼느냐), ‘웨눈은 빨롱해엇느냐’(왜 눈은 튀어나왔느냐), ‘웨가달은 앙씩해엇느냐’(왜 다리는 가늘어졌느냐)라고 묻고 개구리가 대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주 무가 중 초공본풀이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초공본풀이의 내용 중 ‘노가단풍즈지멩왕 아기씨’가 15세가 됐을 때 하늘로부터 부부 각각에게 천하공사와 지하공사 벼슬을 하러 가라는 명이 떨어지자, 부부는 딸을 아주 깊은 굴에 가두어 놓고 떠난다. 한편 주자선생이 시주를 부탁하자 아기씨가 쌀을 부어 주는데, 그때 주자선생이 숨기고 있던 한쪽 손을 빼내어 아기씨의 정수리를 세 번 쓰다듬는다. 결국 아기씨는 임신이 하게 되고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이때 아기씨의 임신을 의심하면서 부모가 묻는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과 꿩노래 개구리 등장 화소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배가 부른 모습, 몸에 얼룩이 있는 모습, 눈이 튀어나온 모습, 다리가 몸에 비해 가는 모습 등 개구리의 외양의 특징을 제주 무가를 차용하여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과 민요에 등장하는 인물의 형상이 유사함을 연관시켜 그 의미가 더 강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그 개구리를 까투리가 쪼아서 죽이는 화소가 첨가되어 있는데, 이 역시 지금까지 불리는 그 어떤 꿩노래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암수갈등형 꿩노래는 장끼와 까투리를 대립시켜 놓고 까투리의 만류를 듣지 않고 우기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장끼를 통해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까투리가 개가하는 화소가 등장하는 노래에서는 여성의 수절을 강요했던 당시 사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암수갈등형의 꿩노래에서 까투리의 의식은 개혁적이나 실제로는 그다지 힘이 없는 미약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B-③에 등장하는 까투리는 독수리의 위협으로부터 지혜로써 벗어나고, 개구리를 죽이는 강인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개구리는 배를 불리며 몸집을 부풀리는 것은 변신을 하는데 이는 재주를 부리며 잘난 체하는 남성을 대표

125) 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민요해설집』, pp.323~324. <부록> 2-가-(10) 참조.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까투리는 이 개구리를 쫓아 죽이는데 이는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이 가하는 억압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암수갈등형 꿩노래의 까투리에 비해 남성의 억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암수갈등형의 꿩노래의 서사구조를 정리하면 (a) 꿩 등장 및 수난 (b) 장끼와 까투리의 치장 및 먹이 발견 (c) 꿈풀이를 통한 까투리와 장끼의 갈등 (d) 장끼의 죽음 (e) 까투리의 한탄 및 장끼의 죽음 확인 (f) 수렴꾼의 등장과 고사 (g) 장끼의 장례 (h) 까투리의 개가로 되어 있다. 꿩노래에서는 이 모든 구조가 완벽히 불리는 경우는 없으며, 몇 가지 화소가 생략이 되고 있다. (a)가 길게 제시되어 있는 노래도 있으나<sup>126)</sup> 대개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거나<sup>127)</sup> 아예 생략이 되기도 한다.<sup>128)</sup> (c)에 꿈풀이가 자세히 드러나는 것과,<sup>129)</sup>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 것,<sup>130)</sup> 생략된 것도 있다.<sup>131)</sup> 대개의 노래가 (d)까지의 전반부는 서사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e)부터는 생략이 많은 편이다. (d)까지로 노래가 끝나는 경우,<sup>132)</sup> (e)가 생략되는 경우,<sup>133)</sup> (f)가 생략되는 경우,<sup>134)</sup> (g)가 생략되는 경우,<sup>135)</sup> (h)가 드러나는 경우,<sup>136)</sup> 단형이 붙는 경우<sup>137)</sup> 등 후반부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시집살이형

시집살이형의 꿩노래는 꿩을 분육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꿩을 분육하

126) <부록> 2-가-(5) 참조.

127) <부록> 2-가-(7), 2-가-(11), 2-가-(13), 2-가-(14) 참조.

128) <부록> 2-가-(1), 2-가-(2), 2-가-(3), 2-가-(4), 2-가-(6), 2-가-(8), 2-가-(9), 2-가-(10), 2-가-(12), 2-가-(13), 2-가-(15), 2-가-(16) 참조.

129) <부록> 2-가-(5) 참조.

130) <부록> 2-가-(1), 2-가-(2), 2-가-(3), 2-가-(4), 2-가-(7), 2-가-(8), 2-가-(9) 참조.

131) <부록> 2-가-(6), 2-가-(10), 2-가-(11), 2-가-(12), 2-가-(13), 2-가-(14), 2-가-(15), 2-가-(16) 참조.

132) <부록> 2-가-(7) 참조.

133) <부록> 2-가-(9) 참조.

134) <부록> 2-가-(1), 2-가-(3), 2-가-(4), 2-가-(11), 2-가-(15) 참조.

135) <부록> 2-가-(1), 2-가-(3), 2-가-(4), 2-가-(6), 2-가-(8), 2-가-(10) 참조.

136) <부록> 2-가-(1), 2-가-(2), 2-가-(8), 2-가-(9), 2-가-(11), 2-가-(12), 2-가-(13), 2-가-(14) 참조.

137) <부록> 2-가-(11), 2-가-(12), 2-가-(13), 2-가-(14), 2-가-(15), 2-가-(16) 참조.

는 내용 자체에는 서사가 담겨 있지 않지만, 분육을 하는 배경에는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의 삶이 담겨 있어 장형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물론 모든 시집살이형의 꿩노래에 전부 서사가 담겨 있지는 않다. 그러나 창자가 배경에 서사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노래에 서사 내용이 생략되었거나 혹은 배경 서사를 전제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C-①

결결 깃는 저꿩을 잡아  
 똑뿌르 뜨는 눈구녕떼기 시아바씨 상에 놓고  
 꼭꼭 쫓는 주둥이 괴기 시어마씨 상에 놓고  
 싹싹거리면 발목뒤 괴기 시누에씨 상에 놓고  
 턱턱 덩는 날개 괴기 우런님의 상에 놓고  
 앞가슴에 복장의 살은 이내내가 목을란다<sup>138)</sup>

C-①에는 화자가 꿩을 바라보면서 꿩을 잡아다 분육을 하여 시집식구들과 나눠먹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담겨 있다. 꿩을 나눠먹는 대상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과 자신이다. 표면적으로는 꿩고기를 잡아다가 시집식구들을 대접하고 싶어하는 며느리의 애뜻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현에 반전이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꿩을 분육하는 데에 있어 단순히 꿩의 부분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과 시집식구의 특성을 연관시키고 있다. 꿩의 눈은 며느리를 부릅뜨고 바라보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꿩의 주둥이는 며느리에게 말로 쏘아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발목 뒤 고기는<sup>139)</sup> 울케를 매섭게 대하는 시누이의 모습을, 날개는 아내를 감싸주는 남편의 모습을, 복장의 살은 고단한 시집살이에 타들어가는 자신의 심리 상태를 묘사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시집식구들을 대접하고 싶어하는 내용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꿩의 외형에 교묘하게 시집식구들을 빗대어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8) 한국구비문학대계 음원자료, 경상남도 함양 지방. <부록> 2-나-(6) 참조.

139) 사실 발목 뒤에는 고기가 없다. 다만 발목 뒤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따로 달려 있어 장끼끼리 싸울 때는 그 발톱을 서로 공격하는 데에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매서운 시누이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다. 또는 발목에는 고기가 별로 없어서 양채 같이 구는 시누이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C-①의 노래 자체는 서사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형의 한 유형으로 분류한 이유는 이 노래가 ‘병어리 노릇을 한 며느리 설화’에 삽입된 형태이기에 배경 서사를 담보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음의 C-②와 관련지어 보면 C-①을 장형에 포함시키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C-②

(a) 우리 어머니가	날키워서
예우살이	혈적에
시집가고 가마탈제	가마탈제
독을 하나	넣어 줌선
그독이	말을 해야
네가 말을 하고	살아라
(b) 말을 아니	허고 사니
말 안한다고	울어머니
나를 데리고	친정으로
데려다	갈적에

[말로써] 시어머니가 데리고, 가라고  
 쫓은개로 내가 노래를 이상스럽게 하네

우리어머니	시어머니
데려다다	준다고
날데리고	가려다가
(c) 꿩이 한마리	꺼끌허고
쭈지를 떨고	끌끌거려
저쭈지는	떼어서
우리 어머니를	주고지고
끌끌우는	저목성은
시아버지나	주고지고
짜짜치는	밭모가지
시누애기나	주고지고
찍기별긴	눈구녁은
시아재나	주고지고
(d) 말 험다고	되짚어서
도로데리고	나를 왔네 <sup>140)</sup>

14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5-1 전라북도 남원군』, 1980, pp.66~67. <부록> 2-나-(1) 참조.

C-②의 (c)는 비록 비유하는 바가 다르긴 하나 C-①의 사실 전체와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C-②의 (c)는 자신을 감싸주는 날개는 친정어머니, 시끄러운 목소리는 시아버지,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쓰이는 발목은 시누이, 찢어진 눈은 시아주머니에게 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C-②는 (c)의 앞뒤로 배경서사가 드러나 있는 것이 특색이다. (a) 자신이 시집갈 때 친정어머니가 돌을 넣어주면서 돌이 말을 할 때까지는 말을 하고 지내지 말라고 당부한다. (b) 며느리는 그 말을 따라 말을 안 하고 지내니,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여기고 친정으로 보내 버린다. (c)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꿩을 발견하고 며느리가 꿩을 분육하는 노래를 부른다. (d) 그러자 말을 한다고 다시 시집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C-①이 설화 속의 노래가 삽입된 형태였다면, C-②는 설화 자체를 노래로 구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꿩노래가 배경 서사까지 드러나 있던 노래였는지, 혹은 설화 속에 삽입된 형태로만 존재했던 것이 변화가 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창자의 인식 속에 서사의 내용이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C-③

꿩아꿩아 너도날맹이로  
시집살이 못해서  
쫓겨가나  
나도 날맹이로  
시집살이 못해서  
쫓겨간다<sup>141)</sup>

C-③은 C-①과 C-②와 사뭇 다른 형태이다. 왜냐하면 C-①처럼 꿩 분육의 내용도 담겨 있지 않으며, C-②처럼 서사의 내용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화자의 감정이 꿩에게 이입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꿩을 분육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141) 임동권,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p.240. <부록> 2-나-(3)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장형에 포함할 수 있는 이유는 화자의 시집살이로 인한 고단한 처지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C-①이나 C-②가 꿩을 시집식구와 동일시했다면 C-③은 화자와 동일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C-①이나 C-②에서 꿩을 분육하는 이유는 화자 자신이 꿩고기를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 아니다. 화자를 괴롭히는 시집식구들의 모습을 꿩의 외양에 빗대고 있을 뿐이다. 비유를 통해 시집식구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자 할 뿐이지 꿩을 육식의 대상으로 여긴 것은 아니다. 오히려 꿩을 화자와 동일시하여 감정이입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서 자신과 동일시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C-③에는 꿩과 화자를 동일시할 만한 근거가 드러나 있지 않고 곧바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창작자의 인식 속에 꿩과 화자를 동일시할 만한 근거를 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이에 ‘병어리 노릇을 한 며느리 설화’나 C-②의 서사적 내용이 그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며, 꿩을 통해 화자의 고단한 처지를 감정이입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게 된다.



C-④

- (단형) A : 꿩꿩장서방 어떡어떡 살암디
- (a) A : 옛날옛날 시집살이 흐젠흐난  
A : 귀막아 삼년 말몰란 삼년  
A : 눈어득언 삼년 아홉해구년 사난
- (b) A : 시어명이 흐는말씀 아들고라  
A : 답답해연 못살키어 친정에 돌아가블랜  
A : 흐난에도 그 아들은  
A : 각시달안 친정더레 가노랜흐난  
A : 담우터레 올라아지난 그메누리 흐는말이
- (단형) A : 꿩꿩장서방 어떡어떡 살암디
- (c) A : 쫑쫑부리랑 시누리나 주곡  
A : 덕덕날개랑 시어명이나 드리곡  
A : 술진 뒷다리랑 시아바님이나 드리곡  
A : 간장 석고 곡석은 가심이랑

- A : 남광 내가 먹어보젠 흥난
- (d) A : 그말을 들언 낭군님은  
A : 그냥돌안 돌아오란 잘살아 가는고
- (f) A : 시어명은 줌복이 녀이  
A : 나를 보민 므지직 흥는고  
A : 시아방은 구쟁이 녀이  
A : 나를 보민 세만 들각  
A : 시누인도 코쟁이 녀이  
A : 나를 보민 호로록 흥는고  
A : 시아지방은 우력의 녀이  
A : 나를 보민 입만 해씩  
A : 남편님은 멩게 녀이  
A : 나를 보민 영급젠 흥는고
- (d) A : 잘살아간다 아이고아이고<sup>142)</sup>

\* A 다음에 B가 부르는 선후반복창으로 가사가 반복되어 생략함.

C-④를 C-②의 서사구조에 견주어 살펴보면 (a) 어떤 사람이 귀 막고 삼 년, 눈 어두워 삼 년, 실제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말 못하고 삼 년의 시집살이를 하였다. (b) 며느리는 그 말을 따라 말을 안 하고 지내니,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여기고 친절으로 보내 버린다. (c) 친절으로 돌아가는 길에 꿩을 발견하고 며느리가 꿩을 분육하는 노래를 부른다. (d) 그러자 말을 한다고 다시 시집으로 돌아와 잘 살았다는 내용이다.

C-④ 역시 C-②와 마찬가지로 ‘병어리 노릇을 한 며느리 설화’가 그대로 평노래 형태로 불리고 있다. C-②가 전라북도 남원에서 불렸고, C-④가 제주에서 불린 바 지역적 차이는 확연하다. 설화의 내용이 그대로 노래로 구연된 형태가 전라도와 제주도에 전해지고 있으니, 설화와 노래 중 어떤 것이 먼저 발생했는가에 대한 해답은 선불리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노래는 평노래 중 유일하게 선후반복창으로 부르고 있다. 보통의 경우 선후창은 앞소리꾼이 사설을 창작해 나가면서 부르고, 뒷소리꾼은 후렴을 반복하는 형식이다. 반면 선후반복창은 앞소리꾼의 사설을 뒷소리꾼이 그대로 이어서 부른

142) 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민요해설집』, pp.80~82. <부록> 2-나-(5) 참조.

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뽕뽕 장서방 어땡어땡 살암디”로 시작하여 단형의 기본형이 맨 앞과 중간에 제시가 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장형의 예외적인 형태로, 단형이 그만큼 익숙한 노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익숙한 단형을 장형의 관용어구처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뽕노래의 단형이 C-④의 맨 처음에도 제시가 되어 있지만, 중간에도 삽입되었는데 이 때에는 (c) 뽕을 분육하는 내용에 앞서 제시가 되고 있다. 뽕을 분육하는 노래가 C-①처럼 단독적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으니,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단형이 제시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f)는 다른 지역의 시집살이형의 뽕노래에는 등장하지 않는 화소이다. 시어머니를 ‘줍북이’(전복)에, 시아버지를 ‘구쟁이’(소라)에, 시누이를 ‘코쟁이’(놀래기), 시아주버니를 ‘우럭’에 남편을 ‘몽게’(문어)에 비유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f)의 화소는 뽕노래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시집살이요에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화소이다.<sup>143)</sup>

다만 시집살이요에는 그냥 비유만 드러나 있지만, 뽕노래에서는 왜 그런 비유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어머니는 전복과 닮아 나에게 모질게 대하고, 시아버지는 소라를 닮아 나에게 혀만 내밀고, 시누이는 놀래기를 닮아 껌싸고, 시아주버니는 우럭을 닮아 나를 보고 입을 크게 벌려 웃기만 하고, 남편은 문어를 닮아 나를 안으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뽕을 분육하는 내용과 시집살이요의 내용이 시집식구를 비유하기에 알맞은 소재를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둘의 화소가 노래에 함께 등장하는 데에 그다지 어색함이 없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병어리 노릇한 며느리 설화’의 마지막 서사 내용처럼 시집에서 “잘살아간다”고 하고 있어 서사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시집살이형의 뽕노래를 정리하여 보면, ‘병어리 노릇한 며느리 설화’에 견주어 서사 구조가 일치하는 노래가 있으며,<sup>144)</sup> 설화의 삽입형으로 간주되는 뽕을 분육

143) “ (전략) 장둑닭은 시아방에 / 암둑닭은 시어명에 / 물꾸럭닭은 서방님에 / 구쟁기닭은 시누이에 (후략)”. 양영자, 『제주민요 시집살이 연구』, 탐라문화 12, 1992, p.62.

144) <부록> 2-나-(1) 참조.

하는 노래가 있다.<sup>145)</sup>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생략되어 있지만 서사 내용을 내재하고 있어서 평에 감정이입을 시켜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드러낸 노래가 있다.<sup>146)</sup> 마지막으로 ‘병어리 노릇한 며느리 설화’와 비슷한 서사 구조를 드러내면서도 중간에 단형의 평노래가 삽입되기도 하고,<sup>147)</sup> 여기에 더해 시집살이요가 첨가되기도 한 노래의 형태가 있음을<sup>148)</sup> 알 수 있다.



---

145) <부록> 2-나-(4), 2-나-(6), 2-나-(7) 참조.

146) <부록> 2-나-(3) 참조.

147) <부록> 2-나-(2), 2-나-(5) 참조.

148) <부록> 2-나-(5) 참조.

## IV. 썩노래 전승의 의의 및 특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썩노래는 크게 단형과 장형의 유형으로, 그리고 장형은 다시 암수갈등형과 시집살이형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요를 기능요와 비기능요, 동요와 성인요의 입장에서 분류하고 연구하다보니 이 모든 유형을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다지 없었다. 이에 이 글은 우리나라 남한 일대 전국적으로 조사한 자료들을 재정리하여 전승양상을 살피고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러면 이 장에서는 썩노래 전승의 의의를 살피도록 하겠다. 특히 유형 분석을 통해 제주도의 썩노래가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 그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 1. 썩노래 전승의 의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대부분의 민요가 그렇지만 썩노래 역시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썩노래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창자 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썩노래가 판소리, 가사, 소설, 설화 등 타 장르와의 교섭에서 발전하였으며, 또한 썩노래의 각 유형 안에서도 교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현실 비판, 소통의 매개체, 개방적 수용방식의 세 측면에서 썩노래 전승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현실 비판

민요는 백성들의 노래이며, 그 노래에는 민심이 담겨 있다. 민요를 향유하는

담당층은 사회의 피지배 계층으로 현실의 고통을 감내하기도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는 주역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는 현대와는 달리 과거에는 민요만큼 여론을 형성하기에 좋은 매체도 없었을 것이다. 민요가 개인 창작이 아니라 집단 창작인 만큼 당시 백성들의 의식 세계를 살펴보는 데에 민요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민요에서 현실을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인천 제물포 살기는 좋아도 / 왜놈의 등살에 못살겠네 // 함경도 원산이 살기는 좋아도 / 쪽바리 등살에 못살겠네”라고<sup>149)</sup> 하면서 일제 강점기 하에서 받는 고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게다가 ‘왜놈, 쪽바리’라는 어휘를 구사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다른 현실 반영 기법으로는 “석탄백탄 타는데 / 연기만 평평 나구요 / 요내가슴 타는데 / 연기도 김도 안난다”고<sup>150)</sup> 하면서 나라를 잃은 망국의 한을 석탄과 백탄이 타들어 가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평노래는 가난한 민중의 삶을 단형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희구하는 것을 장형 중 암수갈등형으로, 시집살이의 어려움에 대한 고발을 장형 중 시집살이형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을 평에게 빗대는 방법을 통하여 우의적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각각의 유형은 등장인물 간에 대립구도를 달리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형의 평노래는 장끼의 신세를 중심 내용으로 하며, 장끼와 가장 대립되는 인물형으로 포수가 등장한다. 물론 기본형에는 화자가 장끼에게 ‘어찌 살았나’ 묻고, 장끼는 ‘어떠한 것을 먹고, 어디서 자고, 그럭저럭 살았다’고 하여 특별한 대립구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왜 장끼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졌는가 생각해 보면, 장끼는 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평은 매 등의 포식자뿐만 아니라 포수에 의해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다. 포수의 위협을 피해 지내다보니 편안히 지내지 못하고, 어딘가에 숨어 살아야 하며, 먹는 것도 기껏해야 콩 한 알, 팥 한 알 주워 먹으며 목숨을 연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궁핍한 하층민의 삶과 직결

149) 임동권, 『한국민요논고』, 민속원, 2006, p.68.

150) 임동권, 위의 책, 2006, p.67.

되며, 포수라는 지배층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해야 하는 피지배 계층의 삶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암수갈등형 썩노래는 현실의 부조리를 꼬집으면서 더 나아가 불평등한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암수갈등형 썩노래에는 까투리와 장끼의 갈등 관계가 나타나는데,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장끼는 목숨을 잃게 된다. 이때 까투리는 당대 여성을, 장끼는 당대 남성을 대변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노래는 단순히 조선시대 남성이 여성의 조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낮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심지어 장끼는 죽어가면서도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은 자신을 탓하지 않고, ‘상부(喪夫)한 가문에 장가를 든’ 때문이라며, 끝까지 까투리를 탓하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언어 폭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이용해 여성을 얼마나 핍박하였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당시는 여성의 정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썩노래의 여러 이본에서는 까투리가 개가하는 화소가 나타나기도 하여 여성의 재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 가는 과도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드러나는데, 개가를 하는 대상이 노루인 경우, 까투리가 “소상도 아니가고 / 대상도 아니갔는데 / 후개(後嫁)말이 웬말이나?”라고 물었지만, 노루는 “갑자을축 계축생 / 오늘날이 종사이다 / (말로) 허고 업고 가버”렸다.<sup>151)</sup> 까투리의 개가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이 역시 강압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는 동류인 장끼와 재혼을 하더라도 “다리 혼착 어신 썩(다리 한쪽이 없는 썩)”으로<sup>152)</sup> 비정상적이다. 이는 여성이 개가를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집안에는 가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권영호는 치장(治裝), 뒤늦은 조문객의 등장과 소란, 남성의 희롱, 청혼과 같은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로서 과부가 된 여성이 하층의 일상적 현실에서 겪게 되는 반영의 결과로 보기도 하였다.<sup>153)</sup>

1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5-2 전라북도 전주시편』, 1981, pp.113~116. <부록> 2-가-(1) 참조.

152) 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민요해설집』, 1992, pp.47~49. <부록> 2-가-(9) 참조.

153) 권영호, 「기속시 ‘치기사’와 장끼타령의 관계」, 『신라학연구』 4, 위덕대학교 신라학연구소,

그리고 시집살이형 평노래 역시 시집살이를 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며느리의 처지를 한탄하고 시집식구들을 평의 부위에 비유하여 고발하는 내용으로 현실 비판적이라 할 수 있다. 이때는 며느리와 시집식구들 간의 대립구도를 형성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집살이형 평노래와 관련하여 서영숙은 「시집간 여자들의 좌절과 기대」<sup>154)</sup>에서 시집식구-며느리 관계 서사민요의 유형구조를 기대우위형, 좌절우위형, 양면복합형으로 나누어 살폈다. 즉 시집살이형 평노래는 기대우위형으로 병어리라고 오해를 받고 친정으로 쫓겨가던 며느리가 평을 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다시 시집에서 잘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시집살이요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신이 겪는 시집살이를 매운 고추에 비유하기도 하면서 시집식구들을 비판하기도 하는 데에 그치고 만다. 그에 비해, 비록 중간에 삽입된 평을 분육하는 내용이 시집식구들을 비판하는 대목이라고 해도 끝내는 행복한 결말을 맺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에 대해 서영숙은 좀더 적극적인 해석을 했는데, 병어리라는 오해가 풀린 후 다시 시집에 들어갔을 때 분명 시집살이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는 노래를 부르기 전과 노래를 부른 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노래를 부르기 전의 삶이 자신을 부정하는 비주체적인 복종의 삶이었다면, 노래를 부른 후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주체적인 소통의 삶이었을 것이라 보고 있다.<sup>155)</sup>

따라서 서영숙이 소박 당할 뻔하다가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며느리는 그저 안도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좀더 자신의 삶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집살이요는 현실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개혁을 할 의지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같은 의미에서 시집살이형의 평노래가 불린다면 시집살이요를 굳이 다른 유형으로 부르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시집살이요와 달리 시집살이형 평노래가 행복한 결말로 맺게 된 데에는 좀더 주체적인 삶을 희구하는 여성의 바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2000, p.152.  
154) 서영숙, 『한국 서사민요의 날실과 씨실 - 우리 어머니들의 노래』, 역락, 2009, p.83.  
155) 서영숙, 앞의 글, 2011, p.54.



## 2) 소통의 매개체

민요는 집단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개인의 창작이 가미되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단이 함께 공유하면서 타인의 의식 세계에 점차 영향을 주면서 확장되게 되고, 그 확장된 의식이 집단에 전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집단의 정서가 마련되는 순환의 구조를 띠게 된다.

단형의 평노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고,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삶을 노래하는 과정에서 가난한 서민들은 자기 위안을 나눌 수 있는 매개가 되었을 것이다. 화려한 옷차림의 장끼는 창자들의 옷차림과 대조되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늘상 포수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장끼의 삶은 연민의 감정과 동시에 지배층으로부터 늘 억압에 시달려왔던 창자들은 동질감도 느끼게 했을 것이다. 먹고 사는 일이 늘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아들 놓고 딸 놓고”<sup>156)</sup> 사는 것이 인생사이며, 때로는 “요 산너머 솔부닥 밑 / 따뜻한 내 집일세”<sup>157)</sup>라며 현실에 안도하는 모습도 보인다.

또한 장형의 평노래의 경우 남성이 권위를 내세워 여성에게 휘두르는 횡포나 시집식구들이 며느리에게 가하는 시집살이의 고단함은 여인들이 모인 공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노래였을 것이다. 여성들의 노동은 가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이루어졌다. 또한 가정 살림에는 혼자 하는 노동도 있고, 둘 이상이 모여서 작업을 해야 하는 노동도 있었다. 여성들은 장형의 평노래를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자기 위안을 위해 불렀고, 둘 이상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도 불렀다.

장형의 평노래처럼 독창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높은 노래들은 특히 다수가 모인 공간에서 청중의 반응에 따라 창작이나 개작의 여지가 많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개인의 의식 세계가 타인과 집단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집단의 정서가 마련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암수갈등형의 평노래가 장끼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까투리가 수절을 하는 데서

156) 임동권,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p.239. <부록> 1-(18) 참조.

157) 신경림, 앞의 책, 1991, pp.128~129. <부록> 1-(31) 참조.

끝이 나기도 하고, 까투리가 개가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또한 까투리는 노루나 오리, 소리개와 재혼하기도 하며 동류인 장끼와 결혼하기도 하는데, 이는 집단 의식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동질집단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세대가 다르거나, 성별이 다른 이질집단 간에도 민요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여기서 한 예로 자장가를 떠올려 볼 수 있다. 그동안 어른이 아이를 채우면서 불렀던 자장가는 민요인가 동요인가의 경계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어른이 아이에게 들려주는 노래가 소통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그 기준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아이가 어른이 들려주는 자장가를 듣고 즉각적으로 감응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르는 구연 현장에서는 어른과 아이 모두가 하나의 노래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한다면 꿩노래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유형에서 보면 단형은 주로 아이들이, 장형은 주로 어른들이 향유했음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단형의 확장형은 어른들이, 장형의 서사가 축소된 경우는 아이들도 충분히 향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전승되는 노래를 어른들이 향유하는 민요와 아이들이 향유하는 동요로만 구분한다면 노래가 구연되는 현장에는 다른 세대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의 현장에 있으면서 전파와 수용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와 함께 밭에 나가 김을 매면서 어머니가 하는 노래를 듣고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는 일은 매우 흔했다.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김 매는 소리가 계속 전승될 수 있는 것이다. 아이가 그동안 부르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어른이 되어서야 갑자기 노동요를 부르는 분절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꿩노래 역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소통하는 현장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전승된 노래인 것이다. 특히 단형의 경우 ‘꿩꿩 장서방 / 어찌어찌 사느냐’의 안부를 묻는 유형은 기본형과 확장형 대부분에 들어가는 사설로 두 집단이 함께 공유한 것임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암수갈등형의 꿩노래의 경우 까투리가 남편을 잃고 개가한다는 내용이라 하여 남자가 결코 공유할 수 없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민요를 향유하는 계층에서는,

특히나 노동력을 공유하는 계층에서 노래가 성별을 구분하여 불렀을 리 만무하다. 사실 노동현장에서 유목적적으로 불리는 노동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김 매는 노래, 노 젓는 소리, 나무 베는 소리 등은 당연히 그 상황에서만 구연되는 노래인 것이다. 그렇지만 노동에 수반되는 노래가 반드시 1:1로만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을 하다가 피로를 풀기 위해 잠시 쉬기도 하고, 혹은 다른 노래를 부르면서 전환을 하기도 한다. 꿩노래가 김을 맬 때도 불렀고, 나물을 썰 때도 불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제보자의 수가 미약하지만, 장형의 꿩노래에서 분명 남성 제보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제보자의 노래가 자신의 개인 창작이 아닌 이상 다른 개인 혹은 집단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소통의 관점에서 본다면 꿩노래는 어른과 아이를 이어주고, 남자와 여자를 이어준다. 즉 동질집단 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대와 성별이 다른 이질집단 간에도 소통의 매개체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3) 개방적 수용방식



#### ① 장르 간 교섭

문학의 다른 영역과 민요 사이의 교섭은 어느 때든지 있었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한층 활기를 띠었다. 민요가 이미 지니고 있던 요소를 국문시가의 여러 갈래나 한시에 적극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받아들여 개작한 사실로 민요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움직임 또한 활성화되었다.<sup>158)</sup>

특히 설화에서 판소리 「장끼타령」으로, 다시 판소리계 소설로 발전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끼전」은 그 서사내용이 암수갈등형 꿩노래와 매우 흡사하다. 판소리가 조선시대에 발생하여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 양적·질적 팽창을 이룬 점, 국문소설이 발생했으며, 이 시기에 장르간 교섭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아 「장끼전」 역시 민요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소설이 민요로 불린 예는 「숙영낭자전」, 「조웅전」, 「권익중전」 등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모두 많은 독자를 가진 작품에서 일어났음을

15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문학 제1기』, 지식산업사, 1994, p.253.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숙영낭자전」은 전체 줄거리 가운데에서 이별과 죽음의 단락에 해당하는 사건이 「옥단춘요」로 민요화되어 있고, 「조웅전」과 「권익중전」은 특정한 대목이 민요화되어 있는 데 비해, 「장끼전」은 그 대체적인 줄거리가 다양한 모습을 보이면서 민요로 구현되어 있다.<sup>159)</sup>

그리고 「장끼전」이 보여주는 남성우위의 사회에 대한 풍자는 여성독자를 평민층에서 국한시키지 않고 일부 사대부가에까지 넓혔으니, 「장끼전」이 가사로 인식된 현상에서 그 증거가 확인된다.<sup>160)</sup>

실제 가사와 일부 민요는 문체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채록된 자료만 봐서는 가사인지 민요인지 장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만큼 장르 간 교섭이 매우 개방적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노래인 민요와 이야기인 설화가 어찌하여 교섭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서 임동권은 민요와 설화가 이질적이면서 또한 공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민요를 부르는 사람들과 설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점, 민요와 설화도 그들의 공감에 의해서 구전되었다는 점, 특히 고대소설은 눈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소리를 내어 구송했던 까닭에 리듬이 필요했고 따라서 민요화할 소질을 지녔다고 보았다.<sup>161)</sup>

여기에 더해 소설이 전파되거나 설화가 구현되는 현장에 비해 민요가 구현되는 현상이 더 다양하며, 창자와 청자의 소통이 훨씬 역동적임을 감안한다면 민요에 의한 전파가 서민들에게는 수월했을 것이다. 평노래가 다양한 유형으로 전승이 되는 것도 다른 장르에 비해 민요가 전파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장르 간에 교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즉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 문학은 시가와 소설, 민요와 소설, 가사와 민요 간 장르의 교섭이 활발했다. 암수갈등형 평노래나 시집살이형 평노래 역시 그러한 조선 후기의 문학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평노래의 이러한 개방적 수용방식은 서정성이 두드러지는 민요 형식과 서사성이 두드러지는 민요 형식을 두루 섭렵하여 다양화를 이루는 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59) 권영호, 앞의 글, 1990, pp.131~132.

160) 권영호, 위의 글, 1990, p.143.

161) 임동권, 앞의 책, 2006, pp.295~296.

## ② 유형 간 교섭

평노래는 판소리, 소설, 가사와의 교섭만이 아니라 단형과 장형 간의 교섭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평노래의 단형은 다시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기본형의 내용은 화자가 장끼에게 안부를 묻고, 장끼가 그에 답하는 형식이다. 이 기본형에 평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거나 포수가 등장하여 위협을 가하는 것, 또는 이러한 포수의 위협을 피하여 산 속으로 들어가 집을 짓고 지내는 내용이 첨가되어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 평을 묘사하는 내용이나 포수가 등장하는 내용은 소설이나 가사, 일부 암수갈등형 평노래의 첫머리에 나타난다.

- ㉠ (전략) 울림 벽계상(鬱林碧溪上)에 상하평전(上下平田) 들 가운데 퍼진 곡식 주어 먹어 입지 없이 생긴 몸이 관포수(官砲手)와 사냥개에 걸핏하면 잡혀가서 삼태육경(三台六卿) 수령방백(守令方伯) 다방골 제갈 등지 싫도록 장복하고 좋은 것 골라 내어 사령기(使令旗)의 살대 치레와 전방(塵房)의 문지체며, 온가지로 두루 쓰니 공덕인들 적을소나. (후략)<sup>162)</sup>

- ㉡ (전략) 울울창창 정자 삼아 추풍전노 든난구 / 도토리 주어먹고 님지업시 사난몸을 구터여 자바더가 삼태육경 수령방백 / 실토록 장복하고 조흔장목 골너니여  
사령기에 치러하고 화당의 장목비여 / 전반의 판을치며 여러질노 들노시이  
평생의 조흔풍치 공역신들 죽을손야(후략)<sup>163)</sup>

해)

울창한 소나무 정자 삼아 추풍에 도토리가 떨어지면 / 도토리 주어먹고 입자없이 사는몸을  
구태여 잡아다가 삼태육경 수령방백 / 오랫동안 먹고 평의 좋은 쫘지 골라내어  
사령기에 치레하고 꽃밭에 큰나무 비어 / 전반의 판을 차며 여러 길로 들어가니  
평생의 좋은 풍채 공역을 쓴들 죽을소나

- ㉢ (전략) 변화만도 손골매요 / 해동청 보라매는  
여서들러 저서들렁 / 몰이꾼 사냥개는  
반송목택 같있을 / 뒤적뒤적 찾아오니  
상금야수 주린김생 / 어디로 못갈테냐 (후략)<sup>164)</sup>

162) 전규태, 앞의 책, 1983, p.325.

163) 임기중 저,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www.krpia.co.kr.

164)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80, pp.782~785. <부록> 2-가-(5) 참조.

㉑는 소설의 한 부분인데 첫머리에 “관포수에 사냥개에 걸핏하면 잡혀가서”라고 나와 있어 언제나 포수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㉒는 가사의 한 부분인데 ‘포수’라는 어휘는 등장하지 않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구태여 (포수가 사냥을 하여) 잡아다가” 인간의 먹거리로, 혹은 치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㉓는 민요인데 “몰이꾼 사냥개”가 등장하며 역시 실제 ‘포수’라는 어휘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냥개와 함께 등장하는 몰이꾼이므로 포수임을 짐작하기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포수가 등장하는 화소는 평노래의 단형에도 있을 뿐더러, 장형 중 암수갈등형과 소설, 가사에 모두 드러나 있어 사실 단형에서 서사로 간 것인지, 서사에서 단형으로 간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다만 암수갈등형이나 소설, 가사에는 포수가 어휘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는 반면 단형에는 “평마치는 개아털놈 / 흔착눈을 쨍그리고 / 흔착눈은 부릅뜨고 / 날잡으레 / 오람더라(평 맞히는 개아털놈 / 한쪽 눈을 쨍그리고 / 한쪽 눈은 부릅뜨고 / 날 잡으러 / 오고 있더라)”라고<sup>165)</sup> 하면서 포수의 행동 묘사가 더 자세히 드러나 있다. 이는 단형에서 포수의 위협을 좀더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단형에서 장끼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존재는 포수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암수갈등형이나 소설, 가사에서 장끼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덧이므로 포수의 존재가 크게 부각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평노래의 유형 간 교섭으로 볼 수 있으며, 포수든 덧이든 평을 위협하는 존재이므로 두 유형에 쓰여도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서술하는 양상이 달리 드러날 뿐이다.

(a)	이재너머에	저재너머에
	그재를	넘어가니
	평평우는	저약평을잡어서
	털털터는	저날개는
	서방님이나	주고지가

16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 1983, pp.455~457. <부록> 1-(6) 참조.

16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5-7 전라북도 정주시·정읍군편』, 1987, pp.580~581.

	짜작없는	저야발은	
	시누애기나	주고지가	
	콧콧주는	저입은	
	우리시어머니나	주고지가	
	뽕에팔자	좋대드라	
(b)	터럭수건	목에걸고	
	비단비단	목에걸고	
	뽕뽕하는	소리듣고	
	산초목에	초군들이	올라오면
	개부든소리	나죽졌네	
	충소리에	나죽졌네	
	늘늘하는	여성소리	
	배락이나	때립소다	
	못~	살겼다 <sup>166)</sup>	

위의 민요에서 (a)는 장형의 뽕노래 중 시집살이형에 속한다. 뽕을 잡아다가 날개는 서방님을 주고, 발을 시누에게 주고, 입은 시어머니에게 주겠다는 전형적인 뽕을 분육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b)는 뽕의 입성을 묘사하는 내용과 포수가 등하는 내용으로 단형의 ‘(안부 묻기) + 뽕 묘사 + 포수 등장’에 속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장형의 노래에 단형의 형식이 노래 앞과 뒤에 덧붙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역시 유형 간 교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소재가 일치하기 때문에 두 유형이 교섭하는 현상이 어색하지 않다.

이처럼 뽕노래는 여러 장르 간, 또는 각 유형 간 교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작품이다. 내용 전개에 있어서 전혀 어색함이 없고, 오히려 노래를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뽕노래를 수용하는 방식이 개방적이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 2. 제주도 뽕노래의 특징

윤치부의 『제주전래동요사전』<sup>167)</sup>에 뽕노래는 총 61편이 실려 있다. 까마귀(27편), 기러기(10편), 솔개(9편), 파랑새(3편), 제비(2편), 매(1편), 굴뚝새(1편), 참새

<부록> 2-나-(2) 참조.  
167) 윤치부, 『제주전래동요사전』, 민속원, 1999.

(1편), 오리(1편), 새(6편)으로 새 유희요 중 꿩노래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꿩노래는 그 개수만큼이나 전국에 분포된 꿩노래와는 조금 다른 특성이 드러나는데, 이 절에서는 제주도 꿩노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주도 꿩노래의 첫번째 특징이 주술형이 많다는 것이다. 위의 III장 유형 분석을 위해 수집했던 자료는 전국적으로 조사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 것이었다. 그리하여 꿩노래의 유형을 크게 단형과 장형으로 나누고, 장형을 다시 암수갈등형과 시집살이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단형에는 안부 묻기, 꿩 묘사, 포수 등장, 집 짓기 등의 화소가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제주전래동요사전』에는 이외에 주술형의 화소가 있는 꿩노래가 여럿 발견되었다.<sup>168)</sup> 비슷한 유형을 제외하고 자료에 실린 주술형의 꿩노래를 살펴보니, 다음의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다.

- ㉑ 꿩 꿩 빼약 빼약 하지 말고  
어서 꿩코에 걸리거라<sup>169)</sup>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㉒ 꿩 꿩 장서방 물 길어다 줍서  
집 지어 주쿠다  
꿩 꿩 장서방 닭 위에 장서방 이레 오라<sup>170)</sup>

- ㉓ 꿩 꿩 장서방 물 질어 오라  
나랑 곤밥 먹고  
너랑 보리밥 먹고<sup>171)</sup>

- ㉔ 꿩 꿩 장서방 앓아난디 앓이라  
요레 오랑 곱으라  
나는 율로 간다<sup>172)</sup>

168) <부록> 1-(81), 1-(82), 1-(83), 1-(85), 1-(86), 1-(87), 1-(88), 1-(90), 1-(111) 참조.

169) 윤치부, 앞의 책, 1999, p.134. <부록> 1-(81) 참조.

170) 윤치부, 위의 책, 1999, p.135. <부록> 1-(85) 참조.

171) 윤치부, 위의 책, 1999, p.135. <부록> 1-(86) 참조.

172) 윤치부, 위의 책, 1999, p.136. <부록> 1-(88) 참조.



한정미는 「주술동요의 사설구조와 기능 연구」에서 주술동요를 목적에 따라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는 것, 명령에 따르게 하기 위해 보상을 제시하는 것,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보상과 상황을 모두 제시하는 것, 그리고 상대를 위협하여 제압하는 것 등이 있다고 하였다.<sup>173)</sup>

㉑는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는 것으로 뒷에 걸리기를 바라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㉒는 담 위에 올라가 있는 꿩을 보고 내려오라고 주문을 외는 것으로, ‘이레 오라(이리 오라)’는 명령을 따르게 하기 위해 ‘집 지어 주쿠다(집 지어 주겠습시다)’라고 하고 있다. ㉓도 ㉒와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겠는데, 다만 명령은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물을 길어 오면 밥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바람을 위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㉔는 꿩이 제자리에 앉기를 바라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화자가 다른 데 가겠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다.

주술형의 노래가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므로 주술형의 꿩노래는 꿩이 잡히길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술형의 노래가 유독 제주에서 다양한 표현법으로 불리는 것이 조사되어 특이하다

두 번째 특징은 꿩이 집을 짓는 화소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III장의 A-⑧ (<부록> 1-(6))에서도 확인된 바 포수를 피해 산 속으로 들어간 꿩은 ‘면문(집으로 들어가는 대문)-대문(방으로 들어가는 큰문)-뒷문’을 달고 뒷문 곁에 ‘장항(장독대)’를 만들고 그 뒤에 ‘대왓’(대나무 밭)을 두르고, 그 위에 ‘너덩(닝쿨)’을 올렸다. 그 닙쿨 속에 숨으면 꿩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안식처가 될 것이다.

그런데 꿩은 집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덜애기 글칭흐라(아들은 글을 읽어라) / 딸애기 조사흐라(딸은 귀염을 떨어라) / 메늘애기 방애지라(떠느리는 방아를 찧어라)”라고 하고 있어 어느덧 일가를 형성한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꿩노래에서는 집을 짓고 난 다음 결혼 잔치를 하는 화소가 있는 점이다.

173) 한정미, 「주술동요의 사설구조와 기능 연구」, 강릉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1994, p.19.

(전략) 안부 묻기 + 포수 등장

(a) 이천장의 집을 지엄

삼천장의 올래 내영

올래 걸렁 대문 내영

대문 뒤랑 뒷문 하영

뒷문 따라 장항 싱건

장항 우의 너딩 올령

너딩 올린 뒤 죄기 올령

(b) 죄기 올린 뒤 예장하라

예장첩에 사랑하라

사랑첩에 예장하라

중년아 상 드리라<sup>174)</sup>

(a)는 A-⑧의 (f)와 마찬가지로 포수를 피해 산 속으로 들어가 집을 지는 과정이 담겨 있다. 그런데 (b)는 A-⑧과 사정이 조금 다르다. A-⑧은 이미 일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나 위의 예문은 결혼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예장’이란 혼인 때 신랑집에서 예단과 함께 신부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가리킨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장끼 본인의 결혼이거나 혹은 A-⑧에 등장하는 아들의 결혼일 수도 있다. 장끼 본인의 결혼이면 이후 까투리와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것이고, 그 아들이 다시 결혼을 하여 며느리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반대로 아들의 결혼이라면 이 결혼잔치 이후 며느리를 얻어 A-⑧에서처럼 며느리가 방아를 찧으면서 살림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사건의 선후 관계는 뚜렷이 알 수 없으나 찧은 단순히 포수를 피해 산 속으로 도망가서 집을 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형성하여 지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단형의 다른 예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러저럭 산다’류의 내용과 맞닿아 있다. 혹은 암수갈등형의 꿩노래에서 한겨울 아홉 아들과 열두 딸과 함께 장끼와 까투리가 먹이를 찾으러 들판을 헤매는 모습과도 맞닿아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집을 짓고 사는 화소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고, 특히 그 집의 구조가 제주의 가옥 구조와 일치하고 있어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단형과 장형의 복합형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174) 윤치부, 앞의 책, 1999, p.148. <부록> 1-(101) 참조.

- (a) 꿩꿩 장서방  
 뿔을 먹고 사느냐
- (b) 아로롱이 바지에  
 아로롱이 저구리에  
 백맹지로 동전 들고  
 즈지맹지 몸에 차고  
 꺽꺽 좃어먹자  
 꺽꺽 좃어먹자
- (c) 삼년 묵은 풋그루에  
 오년 묵은 콩그루에  
 둥신 둥신 좃어떡더니  
 췌체 서방 박포수가 믈쳐가고  
 들체 서방 산장이놈이 믈쳐가고  
 세체 서방 살통에 들어 죽었구나  
 내 팔즈여 내 스주여  
 이원정을 어디강들리
- (d) 어느새에 일년이다간  
 소상대상 돌아오난  
 애야 큰아덜아  
 아고아고 상제질잘허라  
 내손님 고렘왓져  
 내손님 고렘오란  
 큰아덜 확차가부난  
 내팔즈여 내스주여  
 셋아덜아 손님왓져  
 아고아고 상제질잘허라  
 셋아덜은 가마귀손오란 오꼳 차가버리난  
 내풀자여 내스주여  
 이원정을 어디강들리
- (d) 반복<sup>175)</sup>



(a)는 단형의 기본형이고, (b)는 단형의 꿩 묘사형이 첨가되어 확장형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뒤에 암수갈등형의 화소 (c)가 드러나 있다. 암수갈등형의 서사 구조를 완벽히 구연하지 않았으나 콩을 먹고 장끼가 죽었다는 점, 까투리가 세 번째 얻은 남편이 죽었다는 점이 (c)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d)는 다른 지역의 노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화소인데, 장끼가 죽고 난 후 소상과 대상을 치르는 와중에 까마귀 손님이 와서 큰아들과 둘째아들을 채 가버린다. 남편의 죽음으로 말

175) 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민요해설집』, pp.323~324. <부록> 2-가-(10) 참조.

미암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들 둘을 잃어버려 비극이 극대화가 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비극적인 내용인 (d)가 다시 한 번 반복되고 있다. 뒷부분이 반복된 것으로 보아 이 노래의 핵심은 암수갈등형인 것 같은데, 비극의 심화를 위해 자식이 희생되는 화소가 첨가된 것, 비극적 내용을 반복 구연한 것은 특이한 형태이다. 또한 이 화소는 앞의 Ⅲ장에서 자신을 속이는 까투리에 대한 분노로 새끼들을 잡아먹겠다는 독수리의 발언과 연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단형과 장형이 복합된 것은 ‘단형(안부 묻기) + 단형(평 묘사) + 단형(포수 등장) + 장형(암수갈등형)’이 드러난 경우,<sup>176)</sup> ‘단형(안부 묻기) + 장형(시집살이형) + 단형(안부 묻기) + 시집살이요’가 드러난 경우<sup>177)</sup> 등이 있다. 전자의 암수갈등형은 모든 서사가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고, ‘장끼의 죽음, 장례, 다른 장끼와 재혼’의 화소만 나타났다. 후자의 시집살이형은 처음과 중간에 단형(안부 묻기)이 잠깐 삽입되어 그야말로 관용어구처럼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복합형인 경우는 새로운 유형이라기보다는 단형이 이미 익숙한 창자가 덧붙여서 구연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아마도 평노래의 단형이 그만큼 익숙한 노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된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언어유희 화소가 덧붙여진 평노래가 있다는 점이다.

(전략) 단형(안부 묻기) + 단형(평 묘사) + 단형(포수 등장) + 장형(암수갈등형)  
 빌레왔되 간 빌어단(넓적하고 평평한 돌들이 땅에 많이 묻혀 있는 밭에 가서 빌어다가)  
 ㄴ다시 간 곶아단(ㄴ다시(지명)에 가서 곶아다가)  
 죽성 간 죽 췌단(죽성(지명)에 가서 죽을 췌다)  
 장밧되 간 장 빌어단(장지에 가서 장을 빌어다가)  
 거리 간 거렁 먹언(거리에 가서 떠서 먹어)  
 무드네 간 묻어근에(무드네(지명)에 가서 묻어가지고)  
 봉아름 간 봉토 썩(봉아름(지명)에 가서 봉토를 썩고)  
 샷갓에서 삭제호고(샷갓에서 삭제하고)  
 담고망에서 담제호더라(담구멍에서 담제하더라)<sup>178)</sup>

176) 모형오 녹음자료, 애월읍 하귀2리, 고운일, 2007. <부록> 2-가-(11) 참조.

177) 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민요해설집』, 1992, pp.80~82. <부록> 2-나-(5) 참조.

178) 윤치부, 앞의 책, 1999, pp.150~151. <부록> 2-가-(14) 참조.

위 예문에서 전락이 된 부분은 세 번째 특징으로 언급했던 복합형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화소가 더 덧붙여졌는데, 바로 언어유희가 첨가된 것이다. 언어유희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 낭 지레 가게(야 나무 지러 가자) / 난 말다 (난 싫다) / 무사 마니(왜) / 배 아프다 / 무신 배니(무슨 배) / 자라배여 (후략)” 처럼<sup>179)</sup> 끝말을 이어 가는 경우가 있다. 또는 “저 산 뒤에 꼬박꼬박하는 거 뺏고 (저 산 뒤에 꼬박꼬박하는 것은 뺏니) / 미우쟁이여(역새꽃이여) / 미우쟁인 흰다 (역새꽃은 하얗다) / 회민 할으비여(하얀 것은 할아버지여) (후략)” 처럼<sup>180)</sup> 연상의 연쇄작용으로 말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위의 예문은 “꺄다시, 죽성, 장밭디, 거리, 무드네, 봉아름, 샷갓, 담고 땅” 등 지명이나 소재를 앞에 제시하고 그와 비슷한 발음이 나는 것으로 행위를 연결시키고 있다. 아직까지 이와 똑같은 어휘를 가지고 활용한 언어유희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언어유희를 통해 까투리가 장끼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제주 무가의 삼입이 있다는 점이다.

Ⅲ장의 B-③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h)의 까투리의 개가 부분에서 개구리가 까투리에게 청혼하는 대목에 초공본풀이가 삼입되었다. 이는 개구리의 외양이 배가 부풀어 오른다는 점, 눈이 튀어 나온 점, 온몸에 얼룩이 졌다는 점, 몸집에 비해 다리가 가늘다는 점 등이 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양과 개구리의 외양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차용된 것으로 보인다. 평노래 자체가 워낙 타 장르의 수용이 개방적이고 각 유형 간 넘나들이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나 이처럼 지역의 노래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은 유일하다.<sup>181)</sup>

게다가 대부분의 암수갈등형의 평노래가 의식적으로는 개혁적인지는 몰라도 까투리의 행동은 그에 비해 순응적이다. 장끼의 권위에 끝까지 맞서지도 못했고, 다른 동물들의 청혼을 완강히 거부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납치당하는 사례도<sup>182)</sup>

179) 윤치부, 위의 책, 1999, p.253.

180) 윤치부, 앞의 책, 1999, p.272.

181) 제주도 민요에는 평노래 말고도 노랫말에 무가가 삼입된 형태가 여럿 발견된다. 이에 대해 문무병은 민중의 생활이 무속신앙을 정신적 토대로 하며, 곳판의 신명풀이 노래인 무가가 대중성을 가지고 일노래에 혼용되어 노동의 신명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문무병, 『제주도 민요에 나타난 무가』, 『역사민속학』 1, 1991, p.188.

182) <부록> 2-가-(1) 참조.

있다. 이에 반해 B-③에 등장하는 까투리는 소리개가 청혼할 때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척 했으나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며, 개구리가 청혼을 하자 배를 쪼아 죽여버리기까지 한다. 이는 다른 지역의 꿩노래에 등장하는 까투리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강인한 제주 여성의 면모가 엿보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시집살이형 꿩노래에서 시집식구들을 해산물에 비유하는 시집살이요 형태가 삽입되기도 한다.

Ⅲ장에서 언급했던 C-④에는 ‘단형(안부 묻기)’와 ‘장형(시집살이형)’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유형이다. 게다가 마지막에 시집살이요가 첨가가 되었다. 장형의 시집살이형 꿩노래가 꿩을 부위를 통해 시집식구들을 비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형태의 시집살이요가 덧붙은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유형의 시집살이요가 덧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제주 지역의 경우 “좁북이(전복), 구쟁이(소라), 코생이(놀래기), 우럭, 뭉게(문어)” 등 제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해산물에 비유가 되어 있다.

이는 위의 초공본풀이가 삽입되는 형태와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래에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 노래를 수동적인 입장에서 수용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창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진다는 구비전승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V. 결론

핑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텃새이다. 그리하여 민요나 설화 등 구비전승에 많이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그중 우리나라 남한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핑노래를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분류에 있어 모호한 점이 많았다. 또한 핑노래를 부분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룬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의 민요 분류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핑노래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핑노래의 전승양상을 살피고 사설을 분석하여 3가지로 유형을 정리하고, 핑노래 전승의 의의를 밝히고, 또 제주도 핑노래만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핑노래의 존재 양상과 전승 과정을 살폈다.

핑노래는 크게 단형과 장형으로 나누고, 단형은 다시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장형은 암수갈등형과 시집살이형으로 나누어 존재 양상을 살폈다.

단형의 핑노래는 핑의 생태를 관찰하고 이를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대체로 ‘핑 핑 장서방’ 형태의 장끼를 부르는 말로 시작하여 장끼의 안부를 묻게 된다. 핑에게 안부를 묻는 형태를 기본형으로 볼 수 있고, 핑을 묘사하는 내용이나 포수가 등장하는 내용 등이 덧붙는 것을 확장형으로 볼 수 있다. 단형의 핑노래는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고루 수집되어 광포형의 노래로 전국에서 전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암수갈등형 핑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겨울에 까투리와 장끼가 아홉 아들 열두 딸을 거느리고 먹이를 찾으러 나섰다가 콩 하나를 발견한다. 이에 장끼가 먹으려 하자 까투리가 만류를 한다. 그런데 장끼가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고 콩을 먹어 버리고, 결국 텃에 치어 죽고 만다. 까투리가 신세한탄을 하면서 장끼의 장사를 지내준 후 수절을 하거나 개가를 한다. 그러나 암수갈등형 핑노래는 같은 서사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면 노래가 길어지고, 서사의 축약이 많이 이루어지면 노래가 짧아진다.

또한 창자의 개성에 따라 사실 내용이 어느 한 대목에서 길어진 노래도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평노래의 단형 뒤에 암수갈등형이 덧붙여진 형태도 있다. 시집살이형 평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의 당부에 따라 병어리 행세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자 시집에서 진짜 병어리라고 오해를 받고 친정으로 내쫓기게 된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날아가는 평을 발견하고는 평을 잡아 분육해서 시집식구들에게 대접하고 싶다는 노래를 부른다. 그제서야 병어리가 아님이 밝혀지고 다시 시집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이때 부르는 평노래는 위의 서사 내용이 모두 드러나 있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며느리가 부르는 평노래만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뒤에 단형의 평노래가 덧붙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시집살이요가 덧붙는 노래도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서사는 드러나지 않고 며느리의 감정을 평에 이입시킨 노래도 있다.

이러한 평노래의 형식과 가창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형의 평노래는 동네 주변을 다니다가 평을 발견하고 쫓으면서 부르기도 하고, 길에서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단체로 발맞춰 걸으면서 부르기도 했다. 혹은 다리뽑기를 하면서 부르기도 하였다.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부르며, 둘이 말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부른다고 한다. 노래를 부를 때에는 문답을 주고 받는 교환창으로, 혹은 다같이 함께 부르는 제창으로, 그 형식이 다양했다. 반면에 단형 중 확장형의 평노래는 성인이 향유했을 것이며 사실의 길이를 감안했을 때 주로 독창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사성을 띤 장형의 평노래는 긴 형식의 노래로 독창으로 부르면서 성인들이 향유했던 노래이다.

평노래의 전승 과정을 살펴보면 평노래는 단형과 장형, 그리고 장형에는 암수갈등형과 시집살이형의 유형이 존재하며, 각각은 별개로 전승되어 왔다고 여겨진다. 그중 단형은 현재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 있어 광포유형이면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암수갈등형 평노래는 처음에는 조선 후기에 판소리로 불리다가 가사와 소설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다시 민요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시집살이형 평노래는 그 기원은 언제부터인지 알 길이 없으나 원형이 설화의 삼입형인지 서사성이 강한 노래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다만 전승이 가장 많이 퇴화된 형태라고 여겨진다.



Ⅲ장에서는 노래의 길이를 기준으로 단형과 장형으로 유형을 나누어 사설을 분석하였다.

단형은 장끼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를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땡 묘사, 포수 등장, 집 짓기’ 등의 화소가 있다. 그러면 단형은 ‘안부 묻기’의 기본형에서 ‘안부 묻기 + 땡 묘사’, ‘(안부 묻기) + 땡 묘사’, ‘안부 묻기 + 포수 등장’, ‘(안부 묻기) + 땡 묘사 + 포수 등장’, ‘안부 묻기 + 땡 묘사 + 포수 등장’, ‘안부 묻기 + 땡 묘사 + 포수 등장 + 집 짓기’로 확장할 수 있다.

암수갈등형의 땡노래의 서사구조를 정리하면 (a) 땡 등장 및 수난 (b) 장끼와 까투리의 치장 및 먹이 발견 (c) 꿈풀이를 통한 까투리와 장끼의 갈등 (d) 장끼의 죽음 (e) 까투리의 한탄 및 장끼의 죽음 확인 (f) 수렵꾼의 등장과 고사 (g) 장끼의 장례 (h) 까투리의 개가로 되어 있다. 땡노래에서는 이 모든 구조가 완벽히 불리는 경우는 없으며, 몇 가지 화소가 생략이 되고 있다. (a)가 길게 제시되어 있는 노래도 있으나 대개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거나 아예 생략이 되기도 한다. (c)에 꿈풀이가 자세히 드러나는 것과,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 것, 생략된 것도 있다. 대개의 노래가 (d)까지의 전반부는 서사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e)부터는 생략이 많은 편이다. (d)까지로 노래가 끝나는 경우, (e)가 생략되는 경우, (f)가 생략되는 경우, (g)가 생략되는 경우, (h)가 드러나는 경우 등 후반부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집살이형의 땡노래를 정리하여 보면, ‘병어리 노릇한 며느리 설화’에 견주어서사 구조가 일치하는 노래가 있으며, 설화의 삼입형으로 간주되는 땡을 분육하는 노래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생략되어 있지만 서사 내용을 내재하고 있어서 땡에 감정이입을 시켜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드러낸 노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병어리 노릇한 며느리 설화’와 비슷한 서사 구조를 드러내면서도 중간에 단형의 땡노래가 삼입되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 시집살이요가 첨가되기도 한 노래의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Ⅳ장에서는 땡노래의 전승과 의의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중 땡노래의 전승의 의의는 현실 비판, 소통의 매개체, 개방적 소통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땡노래의 각 유형은 등장인물 간에 대립구도를 달리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형의 땡노래는 장끼의 신세를 중심 내용으로 하며,

장끼와 가장 대립되는 인물형으로 포수가 등장한다. 물론 기본형에는 화자가 장끼에게 ‘어찌 살았나’ 묻고, 장끼는 ‘어떠한 것을 먹고, 어디서 자고, 그럭저럭 살았다’고 하여 특별한 대립구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왜 장끼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졌는가 생각해 보면, 장끼는 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꿩은 매 등의 포식자뿐만 아니라 포수에 의해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다. 포수의 위협을 피해 지내다보니 편안히 지내지 못하고, 어딘가에 숨어 살아야 하며, 먹는 것도 기껏해야 콩 한 알, 팥 한 알 주워 먹으며 목숨을 연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궁핍한 하층민의 삶과 직결되며, 포수라는 지배층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해야 하는 피지배 계층의 삶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암수갈등형 꿩노래는 현실의 부조리를 꼬집으면서 더 나아가 불평등한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암수갈등형 꿩노래에는 까투리와 장끼의 갈등 관계가 나타나는데,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장끼는 목숨을 잃게 된다. 이때 까투리는 당대 여성을, 장끼는 당대 남성을 대변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노래는 단순히 조선시대 남성이 여성의 조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낮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심지어 장끼는 죽어가면서까지도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은 자신을 탓하지 않고, ‘상부(喪夫)한 가문에 장가를 든’ 때문이라 하며, 끝까지 까투리를 탓하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언어 폭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이용해 여성을 얼마나 폄박하였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당시는 여성의 정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꿩노래의 여러 이본에서는 까투리가 개가하는 화소가 나타나기도 하여 당시 여성의 재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 가는 과도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드러나는데, 이는 여성이 개가를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집안에는 가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치장(治裝), 뒤늦은 조문객의 등장과 소란, 남성의 희롱, 청혼과 같은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로서 과부가 된 여성이 하층의 일상적 현실에서 겪게 되는 반영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시집살이형 꿩노래 역시 시집살이를 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며느리의 처지를 한탄하고 시집식구들을 꿩의 부위에 비유하여 고발하는 내용으

로 현실 비판적이라 할 수 있다. 이때는 며느리와 시집식구들 간의 대립구도를 형성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박 당할 뻔하다가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며느리는 그저 안도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좀더 자신의 삶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다른 시집살이요와 달리 시집살이형 평노래가 행복한 결말로 맺게 된 데에는 좀더 주체적인 삶을 회구하는 여성의 바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소통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형의 평노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고,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삶을 노래하는 과정에서 가난한 서민들은 자기 위안을 나눌 수 있는 매개가 되었을 것이다. 화려한 옷차림의 장끼는 창자들의 옷차림과 대조되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늘상 포수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장끼의 삶은 연민의 감정과 동시에 지배층으로부터 늘 억압에 시달려왔던 창자들은 동질감도 느끼게 했을 것이다. 따라서 평노래는 어른과 아이를 이어주고, 남자와 여자를 이어준다. 즉 동질집단 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대와 성별이 다른 이질집단 간에도 소통의 매개체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수용의 방식에서 보자면 매우 개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 문학은 시가와 소설, 민요와 소설, 가사와 민요 간 장르의 교섭이 활발했다. 암수갈등형 평노래나 시집살이형 평노래 역시 그러한 조선 후기의 문학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평노래의 이러한 개방적 수용방식은 서정성이 두드러지는 민요 형식과 서사성이 두드러지는 민요 형식을 두루 섭렵하여 다양화를 이루는 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포수가 등장하는 화소나 평의 외양을 묘사하는 화소가 서술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단형과 장형에 모두 고루 드러나 있어서 유형 간의 교섭도 활발한 작품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개방적으로 사설을 수용하는 평노래는 내용 전개에 있어서 전혀 어색함이 없고, 오히려 노래를 풍성하게 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평노래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지역에 비해 주술형의 평노래가 많다. 또한 집을 짓는 화소가 삼입되어 있으며 장끼가 일가를 형성하여 지내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단형과 장형이 독립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노래로 불리기

도 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언어유희 화소가 등장하며, 제주 지역에서도 잘 발견되지 않는 형태의 언어유희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 초공본풀이 등의 제주 무가의 사용이나 해산물에 시집식구를 비유한 시집살이요의 첨가는 창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지는 구비전승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문헌자료>

- 김사업·최상수·방중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 김영돈, 『제주의 민요』, 민속원, 1999
-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14, 1997
- 신경림, 『한국 전래 동요집 1』, 창작과비평사, 1991
- 임기중,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www.krpia.co.kr
- 임동권, 『한국민요집 I ~ VII』, 집문당, 1980~1992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 I』, 평민사, 1989
- \_\_\_\_\_,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편 II』, 평민사, 1991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설화집성(1)』, 198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2-10 강원도 평창군』, 201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2-11 강원도 정선군』, 201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3-5 충청북도 제천시』, 201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4-7 충청남도 금산군』, 201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5-8 전라북도 무주군』, 201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5-9 전라북도 장수군』, 201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7-19 경상북도 청도군』, 201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980~199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199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1994
- MBC, 『한국민요대전』, 1992~1995

### <현지조사 자료>

- 김성우,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임재옥), 2014
- 모형오,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고순선)·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고운일)·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고유을), 2007

허은정,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이무식)·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임계순, 전옥순), 2014

현승환·김승연, 제주도 제주시 이도일동(이계생), 2014

<단행본>

김현선, 『한국구전동요연구』, 민속원, 2013

박경수,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서영숙, 『한국 서사민요의 낱실과 씨실 - 우리 어머니들의 노래』, 역락, 2009

임동권, 『한국민요논고』, 민속원, 2006

전규태, 『한국고전문학전집 소설집 I』, 수문서관, 1981

전원범, 『한국전래동요연구』, 바들산, 199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문학』, 지식산업사, 1994

\_\_\_\_\_, 『서사민요연구』, 계명대학출판부, 1970

\_\_\_\_\_,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편해문, 『옛 아이들의 노래와 놀이 읽기』, 박이정, 2002

한국문화상징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논문>

강혜인, 「한국 전래동요의 음악문화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음악문화학과 철학박사학위논문, 2006

공미옥, 「실전 판소리 장끼타령 연구」, 『문창 어문논집』38, 문창어문학회, 2001

권영호, 「장끼전의 민요화와 그 의미」, 『문학과 언어』 11, 문학과언어연구회, 1990

\_\_\_\_\_, 「기속시 ‘치기사’와 장끼타령의 관계」, 『신라학연구』4, 위덕대학교 신라학연구소, 2000

김기동, 「이조후기 소설의 연구 - 판소리계 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국어국문학 논문집』 9-10,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1975

김영돈, 「전승동요의 갈래 구분」, 『인문과학』 4,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8

- 모형오,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 사실·유희·음악의 지역별 전승양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한국음악(이론)전공 박사학위 논문, 2011
- 문무병, 「제주도 민요에 나타난 무가」, 『역사민속학』 1, 1991
- 서영숙, 「서사민요의 구연상황 연구」, 『어문연구』 29, 어문연구학회, 1997
- \_\_\_\_\_, 「시집살이에 대한 알레고리 - <핑노래>와 <방아깨비노래> 비교」, 『한국민요학』 31, 한국민요학회, 2011
- 양영자, 「제주민요 시집살이노래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전공 석사학위 논문, 1991
- 우창호, 「<장끼전>의 형성과정 재고」, 『관소리연구』36, 관소리학회, 2013
- 이문성, 「고대본 <자치가>의 특징과 의미」, 『관소리연구』36, 관소리학회, 2013
- 이미영, 「핑설화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0
- 전원범, 「한국 전래동요 연구 - 내용분류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2
- 좌혜경, 「민요의 명칭고」, 『제주문화』(현지김영돈박사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 \_\_\_\_\_, 「제주전승동요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5
- 최지운, 「동물노래의 형상화 방법과 여성민요적 의의」,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2010
- 최혜진, 「<장끼전> 작품군의 존재 양상과 전승 과정 연구」, 『관소리연구』 30, 관소리학회, 2010
- 한정미, 「주술동요의 사실구조와 기능 연구」, 강릉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1994
- 허남춘, 「'서사민요'란 장르규정에 대한 이의-제주 시집살이 노래를 중심으로」, 『제주문화연구』(현지김영돈박사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 <부 록>

### • 꿩노래 분류

1. 단형
- 2-가. 장형(압수갈등형)
- 2-나. 장형(시집살이형)

#### 1-(1) / 안부 묻기

- 『한국구비문학대계 1-7 경기도 강화군편』, p.353.

꿩꿩	꿩서방
자네기집	어디갔나?
여기조기	댕기다가
벌떡물에가	자빠져서
조리로	건졌드니
벌떡산에가	자빠지되
무얼먹고	살았나?
도토리도	쥐먹고
상수리도	조아먹고
그럭저럭	살았지

#### 1-(2) / 안부 묻기 + 포수 등장

- 『한국구비문학대계 5-2 전라북도 전주시편』, p.116.

꿩꿩	장서방
무얼먹고	사느냐
앞집이라	콩한섬
뒷집이라	팥한섬
그럭저럭	먹고 사네
나는	
저건네	덤풀밑에
포수땀에	못살겠네

#### 1-(3) / 꿩 묘사 + 포수 등장

- 『한국구비문학대계 6-8 전라남도 장성군편』, p.82.

꿩아꿩아 여자꿩아  
자개단초<sup>183)</sup> 목에걸고 흥~  
홍도연에<sup>184)</sup> 사랑 흥~  
비단초롱 꿩지달고  
가을발을 다흐텐다 흥~

183) 자개단초 : 자개로 만든 단추, 곧 멋진 장식품.

184) 홍도연 : 잔치이름.



홍도연애 사랑 흥~  
 진주고개 넘어가니  
 한량의 포수가  
 난다긴다 흥흥~  
 홍도연애 사랑 흥흥~  
 방에고만<sup>185)</sup> 깐다하면  
 요내목심<sup>186)</sup> 간데없네 흥흥~  
 홍도연애 사랑 흥흥~

1-(4) / 안부 묻기

- 『한국구비문학대계 6-8 전라남도 장성군편』, pp.760~761.

핑핑 장서방  
 뭉떡고 산가  
 아들낳고 딸낳고  
 뭉떡고 산가  
 핑핑 장서방  
 아들낳고 딸낳고  
 뭉떡고 산가  
 아들네집서 콩한섬  
 딸네집서 보리한섬  
 그작저작 사네



1-(5) / 안부 묻기

- 『한국구비문학대계 8-5 경상남도 거창군편』, p.753.

낄낄	장서방
자네집이	오텐고
이산저산	넘어서
삿갓집이	내집이네

1-(6) / 안부 묻기 + 꿩 묘사 + 포수 등장 + 집 짓기

-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 pp.455~457.

핑핑장서방 <sup>187)</sup>	어찌어찌 사느냐
내가어찌	못살리야
알룽달룽	지구리예 <sup>188)</sup>
청세옥세로 <sup>189)</sup>	짓을들려 <sup>190)</sup>
백헤멩지로	곰을드려
즈지멩지로 <sup>191)</sup>	동전들려
입어아전 <sup>192)</sup>	
오년묵은 <sup>193)</sup>	가슬왓 <sup>194)</sup>
삼년묵은	가슬왓

185) 방에고만:방아쇠만.  
 186) 목심:목숨. 방아쇠만 당기면 나의 목숨은 사라진다는 뜻.  
 187) 핑핑장서방 : 꿩을 의인화하여 장서방이라고 부른 말.

어염어염195)	돌암드니196)
평마치는	게아딜놈
흔착눈을197)	짱기리고198)
흔착눈은	부릅뜨고
날잡으레199)	오람더라200)
이만흐민201)	어떻흐리202)
더월속에203)	기여들어
곡거월은204)	걸어불명205)
고사리는	꺼어불명
삼각산의206)	굽어올라
이층전에	집을지어
면문발라207)	대문돌아208)
대문발라	뒷문돌아
뒷문발라	장항싱겨209)
장항뒤에	대왓드려210)
대왓우의211)	너딩올려212)
너딩우의	책갑퇴와213)
아딜애기	글청흐라214)
말애기	조사흐라215)
매놀애기	방애지라216)

- 
- 188) 저구리에 : 저고리에.  
189) 청세옥세로 : 靑茅玉茅로.  
190) 짓을들려 : 짓을 달고.  
191) 죽지맹지로 : 紫朱明絢로.  
192) 입어아전 : 입고서.  
193) 오년묵은 : 오년 묵힌.  
194) 가슬왓 : ‘가슬왓’은 땅의 양분을 복돋기 위하여 한 해, 또는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앓고 내버려 두는 밭.  
195) 어염어염 : 구석구석.  
196) 돌암드니 : 돌고 있더니.  
197) 흔착눈을 : 한 쪽 눈을.  
198) 짱기리고 : 쪼그리고.  
199) 날잡으레 : 나를 잡으러.  
200) 오람더라 : 오고 있더라.  
201) 이만흐민 : 이만큼 (나의 처지가) 되면.  
202) 어떻흐리 : 어떻게 할까.  
203) 더월속에 : 숲 속으로.  
204) 곡거월은 : 칠푹굴은.  
205) 걸어불명 : 걸어 버리며.  
206) 삼각산의 : 삼각산에.  
207) 면문발라 : 면문 바르게.  
208) 대문돌아 : 대문 달고.  
209) 장항싱겨 : 醬缸 심어.  
210) 대왓드려 : 대밭(竹田) 만들고.  
211) 대왓우의 : 대밭 위에.  
212) 너딩올려 : ‘너딩’은 산에서 자라는 줄기가 뻗는 식물인데, 그 줄기로 구덕이나 바구니를 만드는 데 이용됨.  
213) 책갑퇴와 : 冊匣 띄워.  
214) 글청흐라 : 글 읽는 소리하라.  
215) 조사흐라 :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머느리의 행동을 조사, 또는 감시하라’는 뜻이라고 함.  
216) 방애지라 : 방아 쪼어라.

1-(7) / 안부 묻기

-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 pp.768~769.

핑핑장서방  
왜내못살아  
삼년묵은  
오년묵은  
오삼도삼  
베락ㄴ똥<sup>219)</sup>  
흔착눈은<sup>220)</sup>  
흔착발은  
올어머님  
어디갓수과  
이문<sup>223)</sup> 올라<sup>224)</sup>  
창문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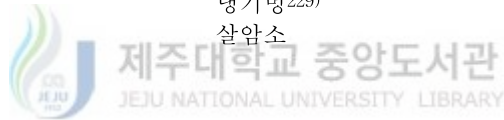
어찌어찌살아나  
ㄴ실왓디<sup>217)</sup>  
ㄴ실왓디  
좃암더니<sup>218)</sup>  
도독놈은  
자올이고<sup>221)</sup>  
들래기며<sup>222)</sup>  
딸아기  
대문<sup>225)</sup> 올라  
호록탁

1-(8) / 안부 묻기

-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 p.908.

핑핑  
어평어평<sup>226)</sup>  
그럭저럭  
무얼먹고  
어엽어엽<sup>228)</sup>  
콩팥<sup>230)</sup> 좃어먹영<sup>231)</sup>

장서방  
살암소<sup>227)</sup>  
살암소  
살암소  
댕기땡<sup>229)</sup>  
살암소



1-(9) / 안부 묻기

-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2-11 강원도 정선군』, pp.638~639.

핑핑 장서방  
자네집이 어딘가  
이산저산 넘어서  
덤불 밑이 내 집일세  
뿔 먹고 사나

217) ㄴ실왓디 : 가을밭에.  
218) 좃암더니 : 쫓아 먹고 있더니.  
219) 베락ㄴ똥 : 벼락 같은.  
220) 흔착눈은 : 한 쪽 눈은.  
221) 자올이고 : 가을이고.  
222) 들래기며 : 꺼두르며.  
223) 이문 : 대문.  
224) 올라 : 열어라.  
225) 대문 : 대청문.  
226) 어평어평 : 어찌어찌.  
227) 살암소 : 살고 있소.  
228) 어엽어엽 : 구석구석.  
229) 댕기땡 : 다니면서.  
230) 콩팥 : 콩팥.  
231) 좃어먹영 : 주워 먹어서.

멀구 다래 따먹다  
불알이 흘켜 죽었네

(조사자 : 하하. 내가 쪽 빼면 돼.)

아, 그 노래도 이거 하는군요.

(조사자 : 이걸 다리뽑기 할 때.)

많아. 이것도 여러 가지여.

(조사자 : 이 노래를 다리뽑기할 때 부르셨나요?)

그럼. 그래서 이 다리를 먼집 뽑은 사람으는 이긴 사람이고, 냉중 뽑은 사람으는 그 그 아주 켈 모  
자른 사람이거든.

거서 인제 벌 받아야지.

(조사자 : 어떤 벌을?)

노래를 해야지.

(조사자 : 노래를 하고 시키는대로 하겠지.)

### 1-(10) / 평 묘사

- 『조선민요집성』, p.155.

장끼란놈 거동보소  
홍공능 짓을달아  
백수아재 동정달아  
주먹비실 뜯트리고  
옥관자를 붙였이니  
현연한 대장부라  
까토리는 아라랑  
저고리 아라랑  
바지 아라랑  
색을단자 허이정  
열부인이 되었구나 (경북 청도지방)



### 1-(11) / 안부 묻기

- 『조선민요집성』, p.155.

꾸어꾸엉 꾸엉서방  
아들낳고 딸낳고  
무엇먹고 사나  
앞발에가 콩한되  
뒷발에가 팥한되  
그럭저럭 먹고살았지 (충남 천안지방)

### 1-(12) / 안부 묻기

- 『한국민요집 I』, p.324.

꾸어꾸엉 꾸엉서방  
아들낳고 딸낳고  
무엇먹고 사나

앞발에가 콩한되  
뒷발에가 콩한되  
그럭저럭 먹고살았지 (충남 청양지방)

1-(13) / 안부 묻기

- 『한국민요집 I』, pp.324~325.

핑핑핑 핑서방  
무엇먹고 살었나  
이웃택이 콩한되  
아랫택이 팔한되  
무엇비고 잤-나  
무수비고 잤-네  
무엇덮고 잤-나  
방석덮고 잤-네  
무엇깔고 잤-나  
짐을깔고 잤-네 (충남 공주지방)

1-(14) / 안부 묻기 + 포수 등장

- 『한국민요집 I』, p.325.

퐁퐁 퐁서방  
바우다리 최서방  
자네지즘<sup>232)</sup> 어데갔나  
이산저산 당기다가  
포수한테 잡혀갔네 (강원 홍천지방)



1-(15) / 안부 묻기

- 『한국민요집 I』, p.325.

핑핑 장서방  
새끼들은 많-고  
먹을것은 없-고  
손가락은 적-고  
엇처크름 사는가 (전남 목포지방)

1-(16) / 안부 묻기 + 평 묘사

- 『한국민요집 I』, p.325.

핑핑 장서방  
엇찌어찌 사는가  
자네마는 못살어도  
알롱달롱 백지웃고름달고  
밭에영 돌아보니  
콩한춤 보아서  
엄마와 나먹고산다 (제주지방)

232) 지즘 : 계집.

1-(17) / 안부 묻기 + 평 묘사

- 『한국민요집 I』, p.325.

핑핑 장서방  
어찌어찌 살아요  
무얼먹고 살아요  
삼년묵은 그릇발에  
오년묵은 그릇발에  
오박꼬박 하염시난  
날잡으러 오는구나  
한쪽눈을 버르뜨며  
한쪽눈을 감아가며  
날잡으러 오는채시  
꼬불꼬불 오는구나 (제주지방)

1-(18) / 안부 묻기

- 『한국민요집 V』, p.239.

곶-곶- 푸덕덕  
잔네집이 어텐고  
한등두등 넘어서  
콩밭 고랑이  
내집있세  
무얼먹고 사는고  
이발저발 댕기면  
콩주우 먹고  
사-네  
아들농고 딸농고  
밍주농고 비농고  
그럭저럭 사-네 (경북 상주지방)



1-(19) / 안부 묻기

- 『한국민요집 V』, pp.239~240.

곶곶 장서방  
잔네집이 어딘고  
한재두재 넘어서  
솔더거리 밀일세 (경북 예안지방)

1-(20) / 평 묘사 + 포수 등장

- 『한국민요집 V』, p.240.

핑아핑아 호핑아  
자재단초 목에걸고  
비단초를 꿩지달고  
가을밭을 다허드니

흥흥흥흥

저덕채를 넘어가니  
활량의 포수가  
난다긴다  
밤에고만 까드락하면  
요내목숨 간데없다  
흥흥흥흥

남의손빌려 잘꼬진상투  
남대문밖에 뚝떨어졌네  
상투는 좃어서  
영랑에담가  
망근아풍잡아 너잘있거라  
흥흥흥흥 (경남 함안지방)

**1-(21) / 꿩 묘사**

- 『한국민요집 V』, p.240.

꿩보소 꿩보소  
온갖댕기 꼬리달고  
푸른비단 목에걸고  
콩밭에로 아장아장  
걸어가네  
꿩의걸음은 아니라네 (전북 고창지방)



**1-(22) / 안부 묻기**

- 『한국민요집 V』, p.240.

핑핑 장서방  
어찌어찌 살암소  
콩끄르에 콩줏어먹영살고  
팻끄르에 팻줏어먹영산다 (제주 북제주지방)

**1-(23) / 안부 묻기**

- 『한국민요집 V』, p.240.

핑핑 장서방  
어찌어찌 살암소  
그럭저럭 살암소  
꾸어먹은 장네가  
만해여 노난  
하늘 우의서  
천등을 해여가민  
굽을되가 질룬다 (제주 북제주지방)

1-(24) / 안부 묻기

- 『한국민요집 V』, p.241.

핑핑 장서방  
아들낳고 딸낳고  
뿔뿔고 산가  
그락저락 사네  
뒋발에 콩한말  
숫가락은 적고  
저범 짝은 많고  
어쭈꼴로 산가  
그락저락 사네 (진남 장흥지방)

1-(25) / 안부 묻기 + 포수 등장

- 『한국민요집 V』, p.241.

재넘어 김서방이  
재안에 장서방보고  
결결 장서방  
무엇먹고 사는가  
콩한쪼각 꽃한쪼각  
그럭저럭 먹고사네  
이러고로 공론혈때  
열두골 표수들이  
날잡으라 하려고  
언덕밑에 우뚝앉아  
만산을 둘러보니  
열두골 표수들아  
날잡으다 멋할라나  
날잡어 필요헌일  
어딴느나  
높은상의 올려다라  
니가무슨 높은상  
지지구지야 재지구지야  
임금의 상의나 올리고지야 (전북 정읍지방)



1-(26) / 꿩 묘사

- 『한국민요집 V』, p.241.

졸레더라 졸레더라  
꿩에몸은 졸레더라  
비단에 대단에  
꼬리를 달고  
초록수건 목에걸고  
단풍이든 콩밭에로  
금실금실 날아든다 (전북 정읍지방)



1-(27) / 안부 묻기

- 『한국 전래 동요집 I』, pp.125~126.

핑핑핑 핑서방  
무엇 먹고 살았나  
이웃택이 콩 한 되  
아랫택이 팥 한 되  
무엇 배고 잤나  
무수 배고 잤네  
무엇 덮고 잤나  
방석 덮고 잤네  
무엇 깔고 잤나  
짚을 깔고 잤네 (충남 지방)

1-(28) / 안부 묻기

- 『한국 전래 동요집 I』, p.126.

꺼억 장서방  
무얼 먹고 사아나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렁저렁 사아네 (경기 이천지방)

1-(29) / 안부 묻기



- 『한국 전래 동요집 I』, p.127.

끝끝끝 장서방  
아들 놓고 딸 놓고  
무엇 먹고 사노  
촌네 집에 가니까  
콩을 볶아 오도둑  
죽을 썬서 흘쩍 (경남 남해지방)

1-(30) / 안부 묻기

- 『한국 전래 동요집 I』, p.128.

핑핑 핑서방  
아들 낳고 딸 낳고  
무엇 먹고 사나  
앞발에 콩 한 조각  
뒷발에 팥 한 조각  
줏어 먹고 사네 (충남 청양지방)

1-(31) / 안부 묻기

- 『한국 전래 동요집 I』, pp.128~129.

끝끝 핑서방  
자네 집이 어딘고

요 산너머 술부닥<sup>233)</sup> 밑  
따뜻한 내 집일세  
무엇 먹고 사느고  
앞뜰에 콩 한 섬  
뒤뜰에 풀 한 섬  
아들 낳고 딸 낳고  
명주 낳고 배 낳고  
그럭저럭 사네 (경북 여주지방)

### 1-(32) / 안부 묻기

- 『한국 전래 동요집 I』, p.129.

핑핑 장서방  
새끼들은 많고  
먹을 것은 없고  
술가락은 적고  
엇처크름 사는가 (전남 목포지방)

### 1-(33) / 안부 묻기 + 포수 등장

- 『한국 전래 동요집 I』, p.130.

퐁퐁 풍서방  
바우다리 최서방  
자네 지춤 어디 갔나  
이 산 저 산 당기다가  
포수한테 잡혀 갔네 (강원 홍천지방)



### 1-(34) / 안부 묻기

- 『한국 전래 동요집 I』, p.131.

퐁퐁 풍서방  
자네 집 어디 갔나  
요리저리 당기다가  
풍당물에 빠졌네  
멀루 건졌나  
조리로 건졌지  
얼다가 났나  
나무때기에 났지  
머 먹구 살았나  
개똥 먹고 살았지  
어떻게 울었나  
꼴꼴이 울었지 (경기 지방)

### 1-(35) / 안부 묻기

---

233) 술부닥 : 다박술.

- 『한국 전래 동요집 I』, p.132.

길길 권서방  
자네 집이 어텐고  
요 산 저 산 넘어서  
삿사집이<sup>234)</sup> 내 집이네  
어찌 어찌 사느고  
고대로 고대로 사다가  
뒷집에 초상이 나 못사네 (경북 성주지방)

**1-(36) / 안부 묻기**

- 『한국 전래 동요집 I』, p.133.

핑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사는가  
자네만은 못살아도  
알롱달롱 백지 옷고름 달고  
밭에영<sup>235)</sup> 돌아보니  
콩 한줌 보아서  
엄마와 나 먹고 산다 (제주 지방)

**1-(37) / 안부 묻기 + 포수 등장**

- 『한국 전래 동요집 I』, p.134.

핑핑 핑서방  
어찌 어찌 살아요  
무얼 먹고 살아요  
삼 년 묵은 그릇팔에<sup>236)</sup>  
오 년 묵은 그릇팔에  
꼬박꼬박 하염시난<sup>237)</sup>  
날 잡으레 오는구나  
한쪽 눈을 버르뜨며  
한쪽 눈을 감아가며  
날 잡으러 오는 채시<sup>238)</sup>  
꼬블꼬블 오는구나 (제주 지방)



**1-(38) / 안부 묻기**

- 『한국민요대전 강원도민요해설집』, p.76.

핑핑 핑서방  
자네집이 어딴나  
이산 저산 넘어서

234) 삿사집이 : 갈대로 엮은 자리로 만든 집이.  
235) 밭에영 : 밭이라고 하기에.  
236) 그릇팔에 : 그루같이팔.  
237) 하염시난 : 하고 있노라니.  
238) 채시 : 차사(差使)가 바뀐 말. 죄인을 잡으러 보낸 관리라는 뜻임.

덤불 속이 내집이다  
뭇 먹고 살았니  
말구달래 따 먹다  
불알이 흘케 죽었다

1-(39) / 안부 묻기

-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민요해설집』, p.710.

낄낄<sup>239)</sup> 장서방  
자네 집이 어텐고<sup>240)</sup>  
고개 고개 넘어서  
버디기<sup>241)</sup> 밭이 내 집이네  
낄낄 장서방  
자네 집이 어텐고  
고개 고개 넘어서  
버디기 밭이 내 집이네

1-(40) / 안부 묻기

-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민요해설집』, p.710.

낄낄이 장서방  
자네 집이 어텐고  
이 등 저 등 넘어서  
솔배닥<sup>242)</sup> 밭이 우리 집일세  
무얼 먹고 사느고  
꼬찢다리 이밥에<sup>243)</sup>  
눈꼽재기 조밥에<sup>244)</sup>  
그럭 저럭 사네



1-(41) / 안부 묻기

-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민요해설집』, p.711.

낄낄 장서방  
너그 집이 어테나  
이 등 저 등 넘어서  
솔부등이<sup>245)</sup> 내 집일세

1-(42) / 안부 묻기 + 포수 등장

-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민요해설집』, p.711.

낄낄 장서방

---

239) 낄낄 : 꿩 울음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  
240) 어텐고 : 어디인가.  
241) 버디기 : 버덩. 평평하며 나무는 없고 잡풀만 많이 우거진 거친 들.  
242) 솔배닥 : 솔버덩. 소나무가 우거진 버덩.  
243) 이밥 : 쌀밥.  
244) 조밥 : 조로 만든 밥.  
245) 솔부등이 : 솔버덩의 와음. 소나무가 많이 들어선 땅.

잔네 집은 어텐공  
 이 산 저 산 넘어서  
 잔술밭이 내 집일세  
 먹을 거는 많애도<sup>246)</sup>  
 총쟁이<sup>247)</sup> 때문에 못살세<sup>248)</sup>  
 꺄꺄 장서방  
 잔네 집은 어텐공  
 이 산 저 산 넘어서  
 잔술밭이 내 집일세  
 먹을 거는 많은데  
 총쟁이 때문에 못살세

**1-(43) / 안부 묻기**

-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민요해설집』, p.711.

꺄꺄 장서방  
 잔네 집이 어텡고  
 등 넘어 재 넘어  
 술부닥 밭이 우리 집일세

**1-(44) / 안부 묻기**

-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민요해설집』, p.712.

꺄꺄 푸드득  
 잔네 집이 어텡고  
 이 산 저 산 넘어서  
 술부닥 밭이 길세



**1-(45) / 안부 묻기**

-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민요해설집』, p.712.

꺄꺄 푸드득 장서방  
 잔네 집은 어텡고  
 한 등 두 등 넘어서  
 술부닥 밭이 길세  
 꺄꺄 푸드득 장서방  
 잔네 집은 어텡고  
 한 등 두 등 넘어서  
 술부닥 밭이 길세

**1-(46) / 안부 묻기**

-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민요해설집』, p.712.

공공 공서방

---

246) 많애도 : 많아도.  
 247) 총쟁이 : 포수.  
 248) 못살세 : 못살겠네.

자네 집이 어땠는고  
이 산 저 산 다 넘어서  
덤풀집이 내 집이요

### 1-(47) / 안부 묻기

-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민요해설집』, p.534.

핑핑 장서방<sup>249)</sup>  
오랑계룡 간계룡<sup>250)</sup>  
정제문 위에<sup>251)</sup> 섰을계룡  
지쪽에<sup>252)</sup> 밥한술  
자석들은 많고  
으째으째 산가  
아들네 집에서 콩 한되  
딸네 집에서 풀<sup>253)</sup> 한되  
그놈 갖고  
그락 저락 사네  
핑핑 후루루루

### 1-(48) / 꿩 묘사

-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민요해설집』, p.555.

종일레라 종일레라  
꿩이란 놈 신세는 좋을레라  
초록수건 목에 걸고  
비단 대단은 꿩지에 달고  
단풍에 든<sup>254)</sup> 콩밭에로  
가무와 감실이<sup>255)</sup> 날아든다



### 1-(49) / 꿩 묘사 + 포수 등장

- 『한국민요대전 제주도민요해설집』, p.235.

암꿩은 앞의사고  
장꿩은 뒤의사고  
어침저침 들어가니  
비엥지 저고리에  
백멩지(白明紬) 저고리에  
백혜사니다<sup>256)</sup> 동전이요<sup>257)</sup>

249) 장서방 : 장끼의 '장'을 성씨로 부른 것.

250) 오랑계룡 강계룡 : 오라고 해서 가니.

251) 정제문 위에 : 부엌문 앞에.

252) 지쪽 : 김치쪽.

253) 풀 : 괘.

254) 단풍에 든 : 누렇게 익은.

255) 가무와 감실이 : 감실 감실이.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256) 백혜사니다 : 꿩의 목의 흰 띠 두른 곳(?).

257) 동전이요 : 동정이요.

알롱베기 관대로다<sup>258)</sup>  
 울롱출롱 둘러입고  
 머들마니다<sup>259)</sup> 아잣더니  
 놀매ㄱ뜯<sup>260)</sup> 도둑놈은  
 골골마다 여사온다<sup>261)</sup>  
 요만흐면 어땡허료  
 저만흐면 어땡허료  
 송풀낫디가<sup>262)</sup> 기어들고  
 어기야등당 좃어먹고  
 한락산이라 가고보니  
 아들애기는 장구들구  
 딸애기 노념흔다<sup>263)</sup>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허리라

1-(50) / 안부 묻기

- [음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퓌퓌 장서방 자네집이 어뎡고  
 한재두재 넘어서 뿌덕(솔나무 쪼간한 거 뺀반 한 거 있거던. 그걸 부덕이라 카거던. 고 밑에 콩집  
 을 짓거던.)집이 내집이네 (경남 함양군)

1-(51) / 안부 묻기



- [음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핑핑 장서방  
 뽕먹고 산가  
 아들낳고 딸낳고  
 뽕먹고 산가  
 핑핑 장서방  
 아들낳고 딸낳고  
 뽕먹고 산가  
 아들네집서 콩한섬  
 딸네집서 풀한섬  
 그락저락 사네

“초록단추 목에 걸고 뒷을 어찌고 한디 잊어버렸어”  
 “포수 뽕시 못 산다고 했지.” (전남 장성군)

---

258) 관대로다 : 관대(冠帶)로다.  
 259) 머들마니다 : 돌무더기가 쌓인 곳에.  
 260) 놀매ㄱ뜯 : 매처럼 날쌌.  
 261) 여사온다 : 놀이한다.  
 262) 송풀낫디가 : 수풀에 가서.  
 263) 노념흔다 : 놀이한다.

1-(52) / 안부 묻기

- [음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핑핑 장서방  
어찌어찌 살았나  
이 밧디<sup>264</sup> 강 콩 혼 방울  
저 밧디 강 콩 혼 방울  
먹고 살았다  
핑핑 장서방  
나는 그럭 저럭 산다 (제주도 제주시)

1-(53) / 안부 묻기

- [음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핑핑 장서방 어찌어찌 사느냐  
그럭 저럭 산다  
빚을 먹고 살았나  
무시겨  
콩 한 방울 줏어 먹고 살지 (제주도 제주시)

1-(54) / 안부 묻기 + 평 묘사 + 포수 등장

- [음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핑핑 장서방  
어찌어찌 살았나  
내가 어찌 몬사느냐<sup>265</sup>  
알롱다롱 저고리에  
백해맹지 깃을 들고  
자지맹지 곱을 달고  
삼년먹은 ㄱ실밭에  
사년먹은 ㄱ실밭에  
옥신독신 좃엄시난  
칭축ㄱ튼 매<sup>266</sup> 아덜눔  
날 심으레 오는구나  
요만하면 어찌 흐료  
삼각산에 곱어 올라  
메누에기<sup>267</sup> 방에 지라  
딸에기<sup>268</sup> ㄱ레 굴라 (제주도 제주시)



1-(55) / 안부 묻기

- [음원] 한국구비문학대계

---

264) 밧디 : 밭에.  
265) 몬사느냐 : 못사느냐.  
266) 매 : 매.  
267) 메누에기 : 며늘아기.  
268) 딸에기 : 딸아기.



핑핑 장서방  
재인네 집에간께  
뿔뿔 주던고  
콩을볶아 오도독  
보리로볶아 오도독 (경남 남해군)

#### 1-(56) / 안부 묻기 + 포수 등장

- [음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핑핑 장서방 어찌어찌 사느냐  
그럭저럭 사노라  
오년 묵은 콩그루에  
삼년 묵은 팻그루에  
오신도신 좃어먹고 사노라  
날 잡으레 오는 체신  
총능동이 들리메고  
으스락 드스락 오람구나 (제주도 제주시)

#### 1-(57) / 안부 묻기

- [현지조사(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고순선)] 모형오

핑핑 장서방 어찌어찌 살았나  
그럭저럭 살았지  
이 담 매염 저 담 매염  
콩 흔 방울 좃어먹으멍 살았지 (제주도 제주시)

#### 1-(58) / 안부 묻기

- [현지조사(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고유을)] 모형오

핑핑 장서방 어찌어찌 살았소  
이 담 넘어 아들 낳고 저 담 넘어 딸 낳고  
남신착에서 콩 볶아 먹으멍 살았소 (제주 서귀포시)

#### 1-(59) / 안부 묻기

- [현지조사] 모형오

꼬공꼬공 콩생원  
자네집이 어딘고  
이산의 너머 저산의 너머  
소나무 밑이 내집일세  
코도독 코고공 (강원도 강릉시)

#### 1-(60)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327.

꼬공꼬공 콩생원  
자네집이 어텐가  
이산저산 넘어서

덤불밭이 내집일세 (강원도 정선군)

**1-(61)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361.

꼬공꼬공 꿩생원  
자네집이 어텐가  
이산저산 넘어서  
덤불밭이 내집일세 (강원도 정선군)

**1-(62)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373.

핑핑 꿩서방  
아들 낳고 딸 낳고  
뭐 먹고 살았나  
웃눈에 콩 한 되  
아랫눈에 팥 한 되  
그럭저럭 살았지 (경기도 수원시)

**1-(63)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413.

낄낄 장서방  
자네집이 어텐고  
이등저등 넘어서  
포독밭이 내집일세 (경상남도 합천군)



**1-(64)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421.

낄낄 장서방  
자네집이 어텐고  
고개고개 넘어서  
보대기밭이 내집일세 (경상북도 김천시)

**1-(65)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423.

낄낄 푸드득  
자네집이 어텐고  
이산저산 넘어서  
솔부닥밭이 길세 (경상북도 문경시)

**1-(66)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425

낄낄이 장서방  
자네집이 어딘가

이등저등 넘어서  
솔부닥밧이 우리집일세  
뽕떡고 사느고  
고친다리 이밥에  
눈곱재기 저밥에  
그럭저럭 사네 (경상북도 봉화군)

**1-(67)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430.

꺄꺄 장서방  
자네집이 어텐고  
등넘어 재넘어  
솔부닥밧이 우리집일세 (경상북도 예천군)

**1-(68)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453.

핑핑 장서방  
아들낳고 딸낳고  
미푼에 술한잔 (전라남도 고흥군)

**1-(69)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460.

핑핑 장서방  
아들낳고 딸낳고  
뽕떡고 산가  
아들네집이서 콩한되  
딸네집이서 풀한되  
그럭저럭 살다가  
불이나서 죽었네 (전라남도 보성군)



**1-(70)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471.

핑핑 장서방  
자식들은 많고  
어찌어찌 상가  
순그락은 작고  
그작저작 사네 (전라남도 장흥군)

**1-(71)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475.

핑핑 장답핑  
뽕방애 찌었는가  
조작방애 찌었네

낙지볶아서 술한잔  
전어볶아서 밥한상  
그럭저럭 사네 (전라남도 함평군)

**1-(72)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479.

핑핑 장담핑  
온아측에 튀먹었나  
낙지볶아서 술한잔  
전지저서 밥한술  
그럭저럭 먹는것이  
오늘해가 다갔네 (전라남도 해남군)

**1-(73)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484.

핑핑 장서방  
아들낳고 딸낳고  
먼방에 찢가  
쪽덕방에 찢네  
나조꿈 주소  
별아침에 오소  
우리새끼들이 다먹어브렀네  
에기에게 꼬꼬잡년  
니비잡어 썬라  
니미잡어 썬라  
먹기 좋게 썬라 (전라남도 해남군)



**1-(74)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496.

결결 장서방  
튀먹고 산가  
아랫눈에 콩한섬  
웃눈에 풀한섬  
그럭저럭 먹고사네마는  
원수놈의 방울새가  
끌떡허른 내가슴이 끌떡허네 (전라북도 순창군)

**1-(75)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505.

결결 장서방  
자네집이 어딘가  
이등저등 넘어서  
잔술밭이 내집일세 (충청북도 단양군)

1-(76)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518.

핑핑 장서방  
아들낳고 딸낳고  
머느리손자 다봤네 (충청북도 보은군)

1-(77)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519.

낄낄 장서방  
아들낳구 딸낳구  
미역국은 비리구  
탕국은 먹겼구  
아들난거 산너머  
집을 지어 주었다 (충청북도 보은군)

1-(78)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531.

낄낄 장서방  
자네집이 어딘가  
이산저산 너머서  
숫갓집이 내집일세 (충청북도 영동군)



1-(79)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531.

낄낄 장서방  
자네집이 어텐가  
이산저산 너머서  
술푸디기가 내집일세 (충청북도 영동군)

1-(80) / 안부 묻기

- 『한국전래동요의 전승양상 연구 <부록>』, p.532.

낄낄 장서방  
자네집이 어딘가  
한재두재 너머서  
오두막집이 기네  
뽕먹고 사는가  
앞발에 콩한섬  
뒷발에 팥한섬  
그럭저럭 먹고사네 (충청북도 영동군)

1-(81) / 주술형

- 『제주전래동요사전』, p.134.

핑핑 빼약 빼약 하지 말고  
어서 핑코에 걸리거라

### 1-(82) / 주술형

- 『제주전래동요사전』, p.134.

핑 핑 장서방 눈보라치는 날엔  
핑코에 걸리거라  
핑 핑 장서방 비바람 몰아치는 날엔  
핑코에 걸리거라

### 1-(83) / 주술형

- 『제주전래동요사전』, pp.134~135.

핑 핑 장서방 무싱거<sup>269)</sup> 먹고 살amna  
삼 년 묵은 ㄱ실밭<sup>270)</sup>  
콩 혼 방울 좇어 먹곡  
이영저영<sup>271)</sup> 살암저<sup>272)</sup>

### 1-(84) / 안부 묻기

- 『제주전래동요사전』, p.135.

핑 핑 장서방 무얼 먹고 사니  
콩을 좇어 먹고 산다

### 1-(85) / 주술형



- 『제주전래동요사전』, p.135.

핑 핑 장서방 물 길어다 줍서  
집 지어 주쿠다<sup>273)</sup>  
핑 핑 장서방 담 위에 장서방 이레<sup>274)</sup> 오라

### 1-(86) / 주술형

- 『제주전래동요사전』, p.135.

핑 핑 장서방 물 질어<sup>275)</sup> 오라  
나랑 곤밥<sup>276)</sup> 먹고  
너랑 보리밥 먹고

### 1-(87) / 주술형

- 『제주전래동요사전』, p.135.

---

269) 무싱거 : 무엇.  
270) ㄱ실밭 : 가을걷이를 한 뒤 뒷해 봄까지 갈지 아니한 밭에.  
271) 이영저영 : 이력저력.  
272) 살암저 : 산다.  
273) 주쿠다 : 주겠다.  
274) 이레 : 이리. 이곳으로.  
275) 질어 : 길어.  
276) 곤밥 : 쌀밥.

핑 핑 장서방 물 질어 오라  
집 지어 주마

1-(88) / 주술형

- 『제주전래동요사전』, p.136.

핑 핑 장서방 앓아난디<sup>277)</sup> 앓이라  
요레<sup>278)</sup> 오랑<sup>279)</sup> 곱으라<sup>280)</sup>  
나는 홀로<sup>281)</sup> 간다

1-(89) / 안부 묻기

- 『제주전래동요사전』, p.137.

핑 핑 장서방 어디 어디 살았나  
이 담 넘엉<sup>282)</sup> 아들 나곡  
저 담 넘엉 딸 나곡  
그리 서리 살았다

1-(90) / 주술형

- 『제주전래동요사전』, p.137.

핑 핑 장서방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 핑코에 걸리거라

1-(91) / 안부 묻기



- 『제주전래동요사전』, p.138.

핑 핑 장서방 어떻<sup>283)</sup> 어떻 살았시니  
앞발에 콩 한 방울  
뒷발에 팥 한 방울  
줏어 먹고 살았저<sup>284)</sup>  
어염어염<sup>285)</sup> 줍단 보난  
소코구리에 걸렸구나

1-(92) / 안부 묻기

- 『제주전래동요사전』, p.139.

핑 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사나  
앞발에 콩 뒷발에 콩 줏어 먹고 살지

---

277) 앓아난디 : 앓았던 곳.  
278) 요레 : 요리. 요 곳으로.  
279) 오랑 : 와서.  
280) 곱으라 : 숨어라.  
281) 홀로 : 요리로.  
282) 넘엉 : 넘어서.  
283) 어떻 : 어떻게.  
284) 살았저 : 산다.  
285) 어염어염 : 구석구석.

1-(93) / 안부 묻기

- 『제주전래동요사전』, p.139.

핑 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사느냐  
그럭저럭 산다  
빚을 먹고 사느냐  
그냥 어엿어엿<sup>286)</sup> 땡기땡<sup>287)</sup> 촛들을 좇어 먹고 산다

1-(94) / 안부 묻기 + 포수 등장 + 집 짓기

- 『제주전래동요사전』, p.140.

핑 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사는가  
삼 년 묵은 콩그루에<sup>288)</sup>  
오 년 묵은 콩그루에  
콩 좇으며 그럭저럭 살았저<sup>289)</sup>  
저이 청청 개아들놈이  
날 잡으레 오랐으니  
한착<sup>290)</sup> 눈은 쟁그리고<sup>291)</sup>  
한착 눈은 바로 뜨고  
한착 독진<sup>292)</sup> 둘러메고  
날 잡으레 오랐으니  
한라산에 굽어올라  
이천장에 집을 짓고 살았다

1-(95) / 안부 묻기 + 평 묘사



- 『제주전래동요사전』, p.141.

핑 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사는가  
자네만은<sup>293)</sup> 못 살아도  
알롱달롱 백지 옷고름 달고  
밭에영<sup>294)</sup> 돌아보니  
콩 한 줌 보아서  
엄마와 나 먹고 산다

1-(96) / 안부 묻기

- 『제주전래동요사전』, p.143.

핑 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사요  
어용다용 돌암시니

286) 어엿어엿 : 구석구석.  
287) 땡기땡 : 다니면서.  
288) 콩그루에 : 콩그루터기에.  
289) 살았저 : 산다.  
290) 한착 : 한쪽.  
291) 쟁그리고 : 쟁그리고.  
292) 독진 : 죽지는. 팔과 어깨와의 붙은 관절부분은.  
293) 자네만은 : 자네만큼은.  
294) 밭에영 : 밭이라고 하기에.



중기<sup>295)</sup> 님은 콩방울 좇어 먹엉  
그리 저리 살암주  
핑 핑 파드득

### 1-(97) / 안부 묻기

- 『제주전래동요사전』, p.144.

핑 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암나  
스들 좇어 먹엉 살암저

### 1-(98) / 안부 묻기

- 『제주전래동요사전』, pp.144~145.

핑 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암나  
알롱달롱 저고리에  
백가망뒤<sup>296)</sup> 동전에<sup>297)</sup>  
에엌에엌<sup>298)</sup> 땡기땡<sup>299)</sup>  
콩 혼 방울 꾀 혼 방울  
좇어 먹으멍 살극  
콩 혼 섬도 지어 보곡  
꾀<sup>300)</sup> 혼 섬도 지어 보곡  
산뒤<sup>301)</sup> 혼 섬도 지어 보곡  
조 혼 섬도 지어 보곡

### 1-(99) / 안부 묻기 + 핑 묘사



- 『제주전래동요사전』, p.146.

핑 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암느냐  
내라고 못 살겠소  
산국산예를 곱어올라  
저실밭뒤<sup>302)</sup> 집을 짓고  
눈비 제와<sup>303)</sup> 못 살겠네  
알롱달롱 저고리에  
백가망뒤<sup>304)</sup> 동전<sup>305)</sup> 달고  
즈지땡지<sup>306)</sup> 짓을 돌아  
삼 년 묵은 콩그루에<sup>307)</sup>

---

295) 중기 : 어중기. 못난이.  
296) 백가망뒤 : 희고 검은.  
297) 동전에 : 동정에. 옷깃 위에 조붓하게 덧붙인 흰 형겔오리에.  
298) 에엌에엌 : 구석구석.  
299) 땡기땡 : 다니며.  
300) 꾀 : 팥(小豆).  
301) 산뒤 : 밭벼. 한도(旱稻).  
302) 저실밭뒤 : 가을걷이를 한 뒤 뒷해 봄까지 갈지 아니한 밭에.  
303) 제와 : 겨워.  
304) 백가망뒤 : 희고 검은.  
305) 동전 : 동정. 옷깃 위에 조붓하게 덧붙인 흰 형겔오리.  
306) 즈지땡지 : 자주명주(紫朱明紬).  
307) 삼 년 묵은 콩그루에

오침주침 땀검더니<sup>308)</sup>  
콩 혼 방울 봉가다가<sup>309)</sup>  
삼 년 묵던 낭구

### 1-(100) / 안부 묻기

- 『제주전래동요사전』, p.147.

핑 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암소  
그럭저럭 살암소  
낮에는 햇빛 막고  
밤에는 찬 이슬 맞으면서  
가을 들면 곡석밭되<sup>310)</sup> 땀기면서  
가실밭되<sup>311)</sup> 땀기면서<sup>312)</sup>  
콩방울도 좇어 먹고  
눈 오면 그럭저럭 살암소

### 1-(101) / 안부 묻기 + 포수 등장 + 집 짓기

- 『제주전래동요사전』, pp.147~148.

핑 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암소  
그럭저럭 살암소  
내가 어찌 못 살리오  
오 년 묵은 그르밭되<sup>313)</sup>  
삼 년 묵은 그르밭되  
이엄이엄<sup>314)</sup> 땀기다보니<sup>315)</sup>  
순지 같은 불망대기<sup>316)</sup>  
이래<sup>317)</sup> 펴작 저래<sup>318)</sup> 펴작  
날 잡으레 오는 체시<sup>319)</sup>  
홍글홍글<sup>320)</sup> 둘러매고  
한착<sup>321)</sup> 눈은 쟁기리고<sup>322)</sup>  
두착 눈은 지시리명

- 
- 307) 콩그루에 : 콩그루터기에.  
308) 땀검더니 : 다니더니.  
309) 봉가다가 : 주워다가.  
310) 곡석밭되 : 곡식밭에.  
311) 가실밭되 : 가을걷이를 한 뒤 뒷해 봄까지 갈지 아니한 밭에.  
312) 땀기면서 : 다니면서.  
313) 그르밭되 : 곡식을 거둔 뒤로 한 번도 갈지 아니한 밭에.  
314) 이엄이엄 : 구석구석.  
315) 땀기다보니 : 다니다보니.  
316) 불망대기 : 불때기.  
317) 이래 : 이리. 이곳으로.  
318) 저래 : 저리. 저곳으로.  
319) 체시 : 사람을 저승으로 데리고 간다는 악귀 따위. 차사(差使).  
320) 홍글홍글 : 걸음 걸을 적에 허리를 이리저리 흔드는 모양.  
321) 한착 : 한쪽.  
322) 쟁기리고 : 쟁그리고.

포삭포삭 들어온다  
 이만하든 할 수 웃다<sup>323)</sup>  
 한상전의 곱아<sup>324)</sup> 불라  
 이천장의 집을 지영<sup>325)</sup>  
 삼천장의 올래<sup>326)</sup> 내영  
 올래 걸렁<sup>327)</sup> 대문 내영  
 대문 뒤랑 뒷문 하영  
 뒷문 따라 장항<sup>328)</sup> 싱건<sup>329)</sup>  
 장항 우의 너딩 올렁  
 너딩<sup>330)</sup> 올린 뒤 죄기 올렁  
 죄기 올린 뒤 예장하라  
 예장침에 사랑하라  
 사랑침에 예장하라  
 종년아 상 드리라

### 1-(102) / 안부 묻기

- 『제주전래동요사전』, p.148.

평 평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암소  
 그럭저럭 살암소  
 뭇을 먹고 살암소  
 남신착에<sup>331)</sup> 콩 보까 먹고  
 봉양 데영<sup>332)</sup> 죽엇다



### 1-(103) / 안부 묻기 + 집 짓기

- 『제주전래동요사전』, p.149.

평 평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암소  
 내가 어찌 몬<sup>333)</sup> 살리오  
 삼 년 묵은 저실밭<sup>334)</sup>  
 오 년 묵은 저실밭  
 의염의염<sup>335)</sup> 돌단 보난  
 콩 혼 방울 좇어 떡국  
 삼각산의 놀곡<sup>336)</sup> 강<sup>337)</sup>

---

323) 웃다 : 없다.  
 324) 곱아 : 숨어.  
 325) 지영 : 지어.  
 326) 올래 : 거릿길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  
 327) 걸렁 : 걸러서.  
 328) 장항 : 장독.  
 329) 싱건 : 앓혀.  
 330) 너딩 : 다렛널쿨.  
 331) 남신착에 : 나막신쪽에.  
 332) 데영 : 데어.  
 333) 몬 : 못.  
 334) 저실밭 : 가을걷이를 한 뒤 뒷해 봄까지 갈지 아니한 밭에.  
 335) 의염의염 : 구석구석.  
 336) 놀곡 : 강.

삼천강의 집을 짓곡  
 은가락지 좇어 불명  
 가시낭은<sup>338)</sup> 견어 불명  
 뒷문 널 티 대문 내곡  
 대문 발레<sup>339)</sup> 장황 놓고  
 장황<sup>340)</sup> 우회 꼭<sup>341)</sup> 올령<sup>342)</sup>  
 그 우회 내가 앞양<sup>343)</sup>  
 내가 어찌 문 살리오  
 손지아기 잔드리라  
 매놀아기<sup>344)</sup> 방애<sup>345)</sup> 지라<sup>346)</sup>  
 딸아기 조세 허라<sup>347)</sup>  
 내가 어찌 문 살리오

1-(104) / 안부 묻기

- 『제주전래동요사전』, p.149.

평 평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암소  
 삼년 묵은 초나미밭티  
 콩을 먹고 살암소

1-(105) / 안부 묻기 + 평 묘사 + 포수 등장 + 집 짓기

- 『제주전래동요사전』, pp.152~153.

평 평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암소  
 왜 내가 문<sup>348)</sup> 살아  
 알롱달롱 저고리에  
 비캐맹지 깃을<sup>349)</sup> 들고  
 즈지맹지<sup>350)</sup> 곱을<sup>351)</sup> 들고  
 삼 년 묵은 그르발이<sup>352)</sup>  
 어염마다<sup>353)</sup> 돌암더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336) 놀곡 : 날고.  
 337) 강 : 가서.  
 338) 가시낭은 : 가시목은.  
 339) 발레 : 정면에.  
 340) 장황 : 장독.  
 341) 꼭 : 칩.  
 342) 올령 : 올려서.  
 343) 앞양 : 앉아.  
 344) 매놀아기 : 떠느리.  
 345) 방애 : 방아.  
 346) 지라 : 찢어라.  
 347) 조세 허라 : 재롱부려라.  
 348) 문 : 모두.  
 349) 깃을 : 깃을.  
 350) 즈지맹지 : 자주명주(紫朱明紬).  
 351) 곱을 : 웃고름을.  
 352) 그르발이 : 곡식을 거둔 뒤로 한 번도 갈지 아닌한 밭에.  
 353) 어염마다 : 구석마다.

날 잡으레 오는 체신<sup>354</sup>  
 풀<sup>355</sup> 흔착을<sup>356</sup> 오그리고  
 눈 흔착을 쟁기리고<sup>357</sup>  
 으실으실 오랍구나  
 이만흐민 어떻흐리<sup>358</sup>  
 송풀에나 기어들저  
 송풀에랑 기여들건  
 고사린 보민 꺾어 불곡  
 가신 봐지만 캐어 불곡  
 삼각산이 굽어올란  
 삼천 모습 집을 짓고  
 스천 모습 울드리에  
 대문 발래<sup>359</sup> 뒷문 들곡  
 뒷문 발래 장황 세완  
 장황<sup>360</sup> 발래 대왔<sup>361</sup> 흐연  
 대왔 우인 너출<sup>362</sup> 올린  
 아들 애기 글 청흐라  
 딸 애기랑 조새흐라<sup>363</sup>  
 손지 애기 잔 드리라

1-(106) / 안부 묻기 + 평 묘사 + 포수 등장 + 집 짓기

평 평 장서방 어찌 어찌  
 웨<sup>364</sup> 내가 못 살리  
 알롱달롱 저고리에  
 아까마지<sup>365</sup> 동전에<sup>366</sup>  
 만들만들 걸노렌 흐난  
 머리 붉은 황개가  
 이레<sup>367</sup> 주춤 저레<sup>368</sup> 주춤  
 이만흐민 어떻흐리<sup>369</sup>



- 『제주전래동요사전』, p.154.

354) 체신 : 사람을 저승으로 데리고 간다는 악귀 따위는.  
 355) 풀 : 팔.  
 356) 흔착을 : 한쪽을.  
 357) 쟁기리고 : 쟁그리고.  
 358) 어떻흐리 : 어떠하리.  
 359) 발래 : 정면에.  
 360) 장황 : 장독.  
 361) 대왔 : 대밭(竹田).  
 362) 너출 : 년출. 길게 뻗어 나가 늘어진 식물의 줄기.  
 363) 조새흐라 : 재롱부리라.  
 364) 웨 : 왜.  
 365) 아까마지 : 붉은 색의.  
 366) 동전에 : 동정에. 옷깃 위에 조붓하게 덧붙인 흰 형겔오리에.  
 367) 이레 : 이리. 이곳으로.  
 368) 저레 : 저리. 저곳으로.  
 369) 어떻흐리 : 어떠하리.

삼각산에 치돌안<sup>370</sup> 보난  
고사리랑 비여<sup>371</sup> 가명<sup>372</sup>  
집이랑 짓어 가명  
이만호민 내 친지여

### 1-(107) / 안부 묻기

- 『제주전래동요사전』, p.155.

핑 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암소  
이 밧디 강<sup>373</sup> 콩 혼 방울  
저 밧디 강 콩 혼 방울  
줏어 먹으멍 살암저<sup>374</sup>  
뱅도로록

### 1-(108) / 안부 묻기

- 『제주전래동요사전』, pp.156.

핑 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았나  
그럭저럭 살았다  
뵈 먹어 살았나  
저 산 앞의 부돌 좃어 먹고 살았다

### 1-(109) / 안부 묻기 + 평 묘사

- 『제주전래동요사전』, p.157.

핑 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았나  
이리 저리 사노라  
뵈 먹고 살았나  
마실(ㄱ실)밭디 콩 혼 방울 좃어 먹고 살았다  
뵈 입고 살았나  
알록달록 저고리 알록달록 치마 알록달록 바지에  
알록달록 후리매에<sup>375</sup> 야개기에<sup>376</sup> 붉은 띠로 띠고  
대가리 붉은 고장을<sup>377</sup> 달고 그럭 저럭 살았다

### 1-(110) / 안부 묻기 + 평 묘사

- 『제주전래동요사전』, pp.157~158.

핑 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았나  
그럭저럭 살았지  
무얼 먹고 사나

---

370) 치돌안 : 치달아.  
371) 비여 : 배어.  
372) 가명 : 가며.  
373) 강 : 가서.  
374) 살암저 : 산다.  
375) 후리매에 : 두루마기에.  
376) 야개기에 : 모가지에.  
377) 붉은 고장을 : 붉은 꽃을.

어엿어엿<sup>378)</sup> 들암시난  
 뒷발에 강 콩 한 방울 풀 한 방울 먹엿 살앰따  
 콩 하나 봉가다가<sup>379)</sup>  
 청사옥조 저고리에 자주고름 달아놓고 백해명주 동전 달고  
 예엿예엿 돌다보니

1-(111) / 주술형

- 『제주전래동요사전』, p.158.

핑 핑 장서방  
 콩 혼 사발 주마  
 이리 오너라

1-(112) / 꿩 묘사

- 『제주전래동요사전』, pp.164~165

암꿩은 앞의 사곡  
 장꿩은<sup>380)</sup> 뒤에 사곡  
 아침저침<sup>381)</sup> 걸어가난  
 백맹지<sup>382)</sup> 저고리에  
 흰 비단 동전에  
 얼룩배기 관디에<sup>383)</sup>  
 울통절통<sup>384)</sup> 돌리 입곡  
 머들만이<sup>385)</sup> 앓아시난  
 널매<sup>386)</sup> ㄱ똥 도적놈은  
 곳곳마다 여삼더라<sup>387)</sup>  
 이만흐민 어땡 흐리<sup>388)</sup>  
 저만흐민 어땡 흐리  
 수풀왓디<sup>389)</sup> 기여들언  
 어기야 똥땡 좃어 먹언  
 한라산에 간 보난  
 아달아긴 장기 두곡  
 딸아긴 노념햐더라<sup>390)</sup>




---

378) 어엿어엿 : 구석구석.  
 379) 봉가다가 : 주워다가.  
 380) 장꿩은 : 장끼는.  
 381) 아침저침 : 머뭇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  
 382) 백맹지 : 흰 명주(白明紬).  
 383) 관디에 : 관대(冠帶)에. 구식 혼례 때에 신랑이 입는 옷.  
 384) 울통절통 : 울통불통.  
 385) 머들만이 : 돌무더기가 있는 곳에.  
 386) 널매 : 매(海東靑)의 일종.  
 387) 여삼더라 : 야수고 있더라. 기회를 엿보고 있더라.  
 388) 어땡 흐리 : 어땡하리.  
 389) 수풀왓디 : 수풀밭에.  
 390) 노념햐더라 : 놀이하고 있더라.

1-(113) / 안부 묻기

- [현지조사(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 이무식)] 허은정

핑핑 장서방  
어찌어찌 살았나  
어디 숨었나  
장독 뒤에 숨었지

1-(114) / 안부 묻기 + 꿩 묘사 + 포수 등장 + 집 짓기

- [현지조사(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임계순)] 허은정

핑핑 장서방  
어찌어찌 사느냐  
내뭇살기 웬일이냐  
알록달록 저고리에  
직세웁에 구실돌고  
백해망전 동전돌고  
오년묵은 그릇팍디<sup>391)</sup>  
에염에염 들암시난  
중디ㄱ뜯 팯방울이<sup>392)</sup> 흐나 이시난<sup>393)</sup>  
봉간<sup>394)</sup> 움막 들러먹으난  
흔착눈은 저릅뜨고  
흔착눈은 기릅뜨고  
집은 짓이난  
먼문 발란 데문<sup>395)</sup> 돌고  
대문 발란 뒷문 돌고  
뒷문 발란 데왓<sup>396)</sup> 싱구고  
데왓 두이 장항 앓지고<sup>397)</sup>  
아들에긴 글 시기고  
딸에긴 조세허고<sup>398)</sup>



1-(115) / 안부 묻기

- [현지조사(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전옥순)] 허은정

핑핑 장서방  
어찌어찌 사느냐  
그럭저럭 산다

1-(116) / 안부 묻기 + 꿩 묘사 + 포수 등장 + 집 짓기

391) 오년묵은 그릇팍디 : 오년 전에 농사 짓고 다시 안 지은 밭에.  
392) 중디ㄱ뜯 팯방울이 : 먹음직스럽게 생긴 팻 방울이.  
393) 이시난 : 있으니.  
394) 봉간 : 주워서.  
395) 데문 : 대문.  
396) 데왓 : 대밭.  
397) 앓지고 : 놓고.  
398) 조세허고 : 아껴줬다는 뜻.



평평 장서방  
 어찌어찌 사느냐  
 내 웨 못살아  
 알록달록 저고리에  
 청색옥색 깃을 들고  
 백화맹지 동전 돌아  
 삼년묵은 7실밭디  
 오년묵은 7실밭디  
 음신뎀신 좃어먹노라니  
 청춘7뜯 개아덜눔  
 혼착눈은 버르뜨고  
 혼착눈은 쟁기리고  
 혼착무릅 풀러놓고  
 날잡으레 오는구나  
 에라 못씨키어  
 상각산에 곱어올라  
 일청춘에 집을짓어  
 올레발라 먼문싱거  
 먼문발라 데문싱거  
 데문발라 뒷문싱거  
 뒷문발라 장항싱거  
 장항우의 너덩 올려  
 아들에게 글청허라  
 딸에게 조세허라  
 매늘에게 방에지라  
 영데칩아<sup>399)</sup> 호령허라  
 종칩아 상들러 오니라



2-가-(1)

챙겨보세	챙겨보세
평의입성	챙겨보세
무지개를	목을들르고
암평은	뒤를세우고
장평은	앞을 세우고
한골두골	세어가니
아홉새끼	거나리고
한골두골	세어가니
누워있는	황달콩이
하나가	있어서

399) 영데칩아 : 영감남아.

[황달콩이라는 것이 부릉콩이여.]  
 “누워있는 황달콩이가 하나 있어서  
 요소요소<sup>400)</sup> 이 황달콩알을  
 하나 먹을까 말까?”  
 “놔두시오.”

서방님이 암평이 하는 소리여 인제.  
 “서방님이 간밤에 꿈을 꾸개로  
 서방이 큰칼을 쓰고  
 옥중안에 갇혀 보입니다.”

“제집이라 사소한게  
 보자하니 방정이라.”  
 무쇠같은 주둥이로 한번 짝은개로  
 무각산 벼락치던 소리가 나서 인자  
 평 다리를 탁 치었다 이거.<sup>401)</sup>

“요소요소  
 삼단같은            요내머리  
 구름같이            헤쳐놓고  
 애고애고            어찌하지  
 아홉새끼라        누가 거느릴꼬나”



고 울은개로  
 “요소요소”  
 치어갖고  
 “내눈에 망자가 있는가 보소.”  
 아니 장평이 그런개로 [청중 : 시방 이런 노래 없어요.]  
 아 장평이 그런개로,

“아 여보  
 한분에는            붓짐싸고  
 한눈에는            신발있오”

아 죽지 인자, 인자.

“한눈에는            붓짐싸고  
 한눈에는            신발있오.”  
 “애고애고            어찌사꼬나  
 우리새끼            아홉은 거나리고

400) 요소요소 : 여보여보.  
 401) 탁 치었다 이거 : 텃에 걸리다.

어찌사끄나”

허고 울고 앉았은개  
노루란 놈이 훌쩍훌쩍 뛰어오더니

“아주마니	아주마니
칭승말씀	웬 말씀이요.”
“소상도	아니가고
대상도	아니갔는데
후개(後嫁)말이	웬말이냐?”
“감자을축	계축생
오늘날이	중사이다.”

허고 엽고 가버리더래요.  
[일동 : 웃음.]

## 2-가-(2)

- 『한국구비문학대계 7-9 경상북도 안동시·안동군편』, pp.595~600.

쟁끼치레	보련하니
주먹별실	옥관자요
열두장목 <sup>402)</sup>	펴뜨리고
초록꿈속	웃진맥이 <sup>404)</sup>
동방사주	동정달고
열두장목	펴뜨리고
아홉아들	앞서우고
열두딸을	뒷서우고
까토리	거동보오
여러	잔누비
속저구리	누벼입고
아홉아들	열두딸에
엄동설한	대한풍에
눈으는와	설산가산
열두딸을	앞서우고
아홉아들	뒷세우고
목발머래	돌아드니
골골이	쫓어가니
눈이나마	설산한데
쟁끼란놈	가는골에
난데없는	불콩하나
궁그렇게	놓였구나
쟁끼란놈	좋아하면
얼싸얼싸	좋을씨고
식전복이	내복이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날님이	들렀는가
칠성님이	들렀는가
난데없는	불콩하나
궁그렇게	놓였구나
까토리	다가서면
부대그콩	찾지마오
아마그콩	수상하니
눈우로는	분자취요
입으로	분자취로
비로씩씩	씬자취라
에라그말	듣기싫다
하날님이	주는복을
마다할이	누있이리
어제저녁	꿈을꾸이
콩태제	든데매동
그콩먹고	오래사고
나도	그와같이
이콩먹고	잘되리라
옥황님께	콩한심을
얼싸얼싸	좋을씨고
까토리	하는말이
부대그콩	찾지마오
닐름죽어	먹어부니
벼락글은	시착귀에 <sup>405)</sup>
변통없이	치였구나
까토리	거동보오
자갈밭에	구부매서
부대그콩	먹지마라
내말한말	안듣더니
다른데는	볼데없다
눈이나	살폐보자
오른눈에	동자분착 <sup>406)</sup>
긴목짚신	감발하고
원눈에	동작분체
과랑보에	반집싸네
저런풍채	어데가
첫째낭군	만냈다가
독수리가	잡아부고
둘째낭군	만냈다가
강포수가	잡아가고
시째낭군	만냈다가
벼락글은	시착기에
변통없이	치였구나

상을주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시볼까

요내나를	볼랐거던
영천장에	대목뵈서
사또상에	오르리라
탁침지	거동보오
지른막대	드덴지메
허동대동	올리오니
장끼란놈	줏어주고
얼싸얼싸	좋을씨고
하날님이	들렀는강
칠성님이	들렀는강
압록강	벽계수에
물을보고	너왔드냥
뒷동산	적자도에 <sup>407)</sup>
꽃을보고	너왔드냥
얼싸얼싸	좋을씨고
저기가는	저까토리
마저잡개	해주오
평털이	뵈아서
산태밭에 <sup>403)</sup>	꼼아노니
까토리	하릴없어
그평털이	줏어가주
산태밭에	돌아가서
장사를	치룻는다
떡개구리	포떠놓고
씨나다나	과실두날
따오기	축니르고
장사를	지낸후에
난테없는	독소리기
만상주를	차가부니
[청중 : 웃음]	[제보자 : 웃으면서]
까토리	혼자됐다
소리기장개	들로오니
현웃입어	못가겠다
내가현웃이만	
속속들이	힘우냥
오리가	달려와서
까토리	혼재됐다
그말을	듣고
열두번	상처하고
하도반가	왔나이다
[청중 : 웃음]	
오리는	물이 좋다
벽계수	물이 좋다

꽃이 좋다

까토리는 작자동<sup>408)</sup>  
 오리신랑 들어오고  
 까토리신부 나가고

[중단하니, 청중이 다 했느냐고 묻는다. 고만하겠다고 하자 주위에서 권하여 다시 이었다.]

기러기는 혼함짓고<sup>409)</sup>  
 오리신부 들어가니  
 배우에 별려서<sup>410)</sup>  
 따오노래 좋은따오기  
 따오기 홀기부르고  
 시집가고 장개가고

[끝을 마쳤어.]

## 2-가-(3)

- 『한국구비문학대계 8-13 경상남도 울산시·울주군편』, pp.185~186.

장끼란놈	거동보소	까토리	앞세우고
아홉아들	열두딸년	줄줄이	다세우고
평연광야	널은들에	콩주으러	가자시라
너는이줄쫓고	나는이줄쫓고	너는저줄쫓아	줄줄이돌아가이
난테없는	불콩하나	장끼앞에	뚝떨어진다
장끼란놈	거동보소	내앞에	복이오네
어제간밤에	꿈중더니	먹지마소	
까토리	거동보소	삼밭에	들어가니
여보여보	그콩제발	당신죽고	내가상복입을 꿈이로다
간밤에	꿈을꾸니	장끼란놈	거동보소
잔대가내몸에	갠기뵈니	놀로준단말고	
제발그콩	먹지마소	지집이 요망하면	도장안에 범이든다 <sup>412)</sup>
내밥에	채인콩을	내가우째	안묵겠노 <sup>413)</sup>
허허그콩	더욱좋다	하더니꺼에	그콩묵고 죽게되니
내밥에	채인콩을		
아이고	까토리가		
여보여보	묵지마라		

402) 열두장목 : 깃이 열두 개나 되는 긴 날개.

403) 산태밥에 : 산사태로 흘러내린 모래더미.

404) 옷전맥이 : 옷옷을 일컫는다.

405) 시착귀에 : 꿩을 잡기 위하여 놓아 둔 쇠로 만든 덫. 꿩틀이라고도 한다.

406) 동자분착 : 눈동자가 돌아가서 흰자위만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

407) 적자도에 : 작약꽃에.

408) 작자동 : 작약꽃.

409) 혼함짓고 : 혼수 함을 겹고.

410) 별려서 : 좌우에 여러 사람들이 별려 서서.

와이고답답	내신세야	이일감당	어이하꼬 <sup>414)</sup>
첫째낭군	얻었다가	사냥개가	물어가고
두째낭군	얻었다가	포수에게	맞아죽고
세째낭군	얻었다가	보라매가	물어가고
네째낭군	얻었다가	총을맞고	죽어지고
이번낭군	얻었다가	불콩묵고	죽게되네
와이고답답	내신세야	이일감당	어이하꼬
장끼란놈	거동보소		
쌍부자란 <sup>411)</sup>	너가문에	장개든	내한이야
내눈칭	살피봐라	동자부처	온전한가 <sup>415)</sup>
까토리	거동보소	당신눈칭	살피보니
동자부처	붓집지고	심발괸기	감발하네 <sup>416)</sup>
할수없고	속절없다		

## 2-가-(4)

- 『한국민요집Ⅱ』, pp.781~782.

죽은압시 죽은압시  
 내말한자 들어보소  
 아무리도 살피보니  
 꿈한자리 수상하여  
 엿저녁 꿈을꾸니  
 아무래도 수상하네  
 색치마 색저고리  
 입술단장 머리단장  
 아롱치마 아롱적삼  
 곱게곱게 단장하고  
 저건네 잠자네  
 삼발을 들어가니  
 잔삼대는 잤아지고  
 곱은삼대 실어지고  
 중간삼대 이내몸을  
 휘휘창창 감겨드네  
 그꿈이 감겨드네  
 자네죽을 꿈아닌가  
 어어그꿈 더욱좋네  
 해명커든 들어보게



411) 쌍부자란 : ‘쌍과부가 나는’이란 가사를 잘못 구연하였다.  
 412) 도장안에 범이든다 : 재수가 없어서 고방 안에 범 같은 도둑이 든다는 말이다.  
 413) 이 다음에 “마 그걸 널름 주아 묵어 뵈다. 장끼가 마 마 퍼드럭 자빠져비렀네.”라고 설명을 하였다.  
 414) 어이하꼬 : 어떻게 할까.  
 415) 동자부처 온전한가 : 눈동자가 온전한가? 즉 죽게 되어서 눈동자가 거꾸로 박혔다는 뜻이다.  
 416) 동자부처 붓집지고 심발괸기 감발하네 : 눈동자가 붓집지고 신발괸기를 하고 떠나려네. 즉 죽으려는 징조를 보인다는 말이다.

자네몸에 태기있어  
 경상감사 아들낳을  
 얼싸줄을 꿈이로세  
 죽은압시 살펴보니  
 꿈한자리 수상하여  
 계집이 요망하면  
 도장안에 뱀이든다  
 동지설달 긴긴밤에  
 날거든 남진두고  
 세여사나 하느라고  
 잠안자고 꿈만꿨나  
 죽은압시 이아래  
 사호평정 넓은밭에  
 너는 저골쫓고  
 나는 이골쫓고  
 등등이 주워가니  
 그중에 불은콩이  
 석중애가 놓였구나  
 그꿈이 그꿈이  
 자네죽은 꿈아닌가  
 에라요내 요망하다아니먹고 배새긴들  
 너만자고 신사로다  
 널름주워 삼키더니  
 내눈에 부쳐보자  
 오른눈의 부치는  
 짝지깊고 나서고  
 왼눈에 부치는  
 못짐싸고 떠나니  
 그만그만 함덕에  
 채요채요 죽고나  
 열두낭군 얻어와어  
 열셋째 함덕에  
 마저채여 죽는구나  
 저건너라 도랑밑에  
 동솔같은 저바길에  
 아주강강 차버려매  
 불쌍한것 자식이라  
 이내빠는 잘잘추려  
 우리놀던 동산에다  
 깊이파고 묻어다오 (경남 거제지방)



2-가-(5)

- 『한국민요집Ⅱ』, pp.782~785.



건곤이 조찬하니  
 만물이 풍성이라  
 귀한것 사람이요  
 천한것 짐승이라  
 유유충도 삼백이요  
 유모충도 삼백이라  
 평의몸이 생겨날제  
 의관은 오색이요  
 별호는 화충이라  
 무정세계 호탄할제  
 울음으로 난동하고  
 월삼십 백치라도  
 인적을 찾아들어  
 천자에 조공하니  
 사람을 멀리하여  
 상금야수 주린김생  
 어딜로 못갈테냐  
 북방성 상상봉에  
 허울홀쩍 올라가니  
 변화만도 손골매요  
 해동칭 보래매는  
 여서들령 저서들령  
 물이꾼 사냥개는  
 반송목택 같았을  
 뒤적뒤적 찾아오니  
 상금야수 주린김생  
 어디로 못갈테냐  
 사하평전 잘간밭에  
 가에콩밭 들어서니  
 주워먹이 가자새라  
 장끼란놈 치장보던  
 황문단 옷고름에  
 초록주색 깃을달고  
 백망사로 동정달고  
 주먹배실 옥관자에  
 열두장목 만신평채  
 장부기상 장할씨구  
 까토리는 단장하되  
 애롱애롱 저고리고  
 애로롱 치마에  
 애롱머리 곱게벗어  
 땀시있게 단장하고  
 열두딸 아홉아들  
 수무하나 주래등을



앞세그니 뒷세그니  
 너는 저골쫓고  
 나는 이골쫓고  
 점점주워 들어가니  
 난데없는 불콩하나  
 동그랗게 놓였구나  
 짱끼란놈 거동보세  
 열두장목 만신평채  
 좌우로 펠터리고  
 꼬박꼬박 고개조아  
 허허그콩 소담하다  
 내복이니 먹어보자  
 까토리 하는말이  
 야야그콩 먹지마라  
 그콩하나 먹다가는  
 천대변을 만날테니  
 한때끓은 썸을하고  
 제발그콩 자시마오  
 장끼란놈 하는말이  
 이때를 잃어진대  
 동지선달 설한풍에  
 접접이 쌓인눈이  
 풀뿌리를 덮었으니  
 천상에는 조비절이요  
 만경에 인적멀어  
 나도오늘 식전이라  
 기자에 감식하고  
 알자에 미음이라  
 까토리 하는말이  
 그랑그러 하거니와  
 어젯밤 일경초에  
 한품에 잠을자고  
 돌아누워 꿈을꾸니  
 북망산 쌍쌍봉에  
 찬바람 일어나면  
 용천검 드는칼로  
 자네목을 멩경비니  
 자네죽을 형몽일세  
 내몸이 과부되어  
 상부할 꿈이로다  
 장끼란놈 하는말이  
 그꿈좋다 해몽하자  
 춘당대 알성관되어보니  
 이내몸 선봉되어



압록강 건너달려  
 중원을 회복하고  
 황하수에 칼을씻고  
 고국에 돌아올때  
 승전고를 높이올려  
 충육대장 할꿈이라  
 까토리 하는말이  
 글랑그러 하거니와  
 이경말에 또꿈꾸니  
 널과날과 한몸되어  
 채일폭이 덮어뵈니  
 내몸이 과부되어  
 상부할 꿈이로다  
 장끼란놈 하는말이  
 그꿈은 더욱좋아  
 일모창생 오늘밤에  
 황조평풍 잔대지라  
 풀잎요를 주워덮고  
 널과나와 한몸되어  
 이리저리 할꿈이라  
 까토리 하는말이  
 글랑그러 하거니와  
 오경말에 또꿈꾸니  
 속저고리 속치마에  
 이내몸이 단장되고  
 왕대청산 놀이가다  
 난데없는 삼쌀개가  
 쫓아오니 갈곳없어  
 삼발에 뛰어드니  
 굶은삼대 뿌르지고  
 잔삼대는 쓰리지고  
 머리꼬리 온만신에  
 회회청청 감겨뵈니  
 이내몸 과부되어  
 상부할 꿈이로다  
 장끼란놈 거동보게  
 앞발로 회두리져  
 이리차면 저리차면  
 어라요민 요망하다  
 기등서방 마다하고  
 간부놈을 즐겼구나  
 이거리 저거리  
 종로네거리 동동북지위  
 회실래 하니



까토리 무참해서  
 조금물러 나섰더니  
 짱끼란놈 거동보오  
 열두장목 만신평채  
 좌우로 퍼뜨리고  
 꼬박꼬박 고대로아  
 조금조금 들어가서 짹짹어니  
 핑핑핑핑 푸더덕덕  
 번통없이 처있구나  
 까토리 거동보고  
 사하평전 잘간발에  
 땡굴땡굴 궁걸면서  
 내말곧 들었어면  
 저른변이 있겠는가  
 첫번냥군 얻었다가  
 무지객군 덜어가고  
 둘째냥군 얻었다가  
 백송고리 덜어가고  
 셋째냥군 얻었다가  
 독수리가 덜어가고  
 넷째냥군 얻었다가  
 똥지핑이 덜어가고  
 다섯째를 얻었다가  
 새사랑도 못하여서  
 망덕같은 쇠사슬에  
 들켜치어 죽게되니  
 품에품은 아들아기  
 호언범절 누가하며  
 배어있는 유복아기  
 해산구안 누가할까  
 장끼란놈 숨찬중에  
 만눈뜨고 하는말이  
 선미련 후실기지  
 그러나 죽기살기는  
 맥으로 간다하니  
 맥이나마 짹어다우  
 까토리 맥을보고  
 비홍맥은 끓어지고  
 명맥은 서늘하고  
 태충맥이 서리졌네  
 맥은그러 하거니와  
 눈이나마 살피다우  
 동자부채 있는가고  
 까토리 눈을보니



왼쪽동자 부채는  
 첫새벽에 길떠났네  
 오른쪽 동자부채  
 길목집석 간발하고  
 파란보에 붓짐싸고  
 애홍애홍 가는구나  
 저저리도 좋은풍채  
 어디가서 다시볼꼬  
 장끼란놈 거동보게  
 구태여 불라거든  
 내일아침 공식하고  
 창에침질 따라와서  
 충주장에 만나든지  
 관청괴에 걸렸든지  
 각도각읍 수령들에  
 사또상에 올랐든지  
 그밖에 다른곳가  
 어디가서 보겠는가  
 한창이래 할즈음에  
 창에친거 망보다가  
 배빼좃아 내려와서  
 장끼뺨을 빼어들고  
 희희낙락 춤을추니  
 천년묵은 애그지를  
 오늘식전 잡았어니  
 내재수가 용하더냐  
 니신수가 불랑터냐  
 앞남산 벽계수에  
 물먹으로 여왔든가  
 산신이 지시했나  
 조상이 돌봐왔는가  
 아까놓은 저창엘랑  
 저까토리 마지막에  
 짐지해서 주웁소사  
 새를빼서 산신케놓고  
 축수하고 돌아가니  
 까토리가 뒷밧바다  
 바우틈에 끼인새를  
 간시히도 찾아내어  
 좃잎으로 소렴하고  
 땡땡줄로 절관하여  
 장사지낼 그재상에  
 가랑잎에 청감주를  
 사리풍랑 백설기요



구랍딱지 깊은잔에  
까떡부어 얹어놓고  
영결중천 쓰러졌네 (경남 부산지방)

## 2-가-(6)

-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민요해설집』, p.667.

아들 딸 딜고 가서  
딸 열둘 너는 이골 매고 아들 열둘 저골매라  
불콩 하나 흘렸구나 어허 그콩 소담하다<sup>417)</sup> 한개 묵어 볼까  
까토리가 하는 말이 그콩 묵지 마소  
간밤에 꿈을 꾸니 포랑보에<sup>418)</sup> 짐을 싸서 신발 신는 지생이요<sup>419)</sup>  
어허 그콩 소담하다 한개 묵어보자  
널름 집어묵고 까토리아 내눈에 동자 하나 있나 봐라  
한쪽 눈에는 동자가 파랑보에 짐을 싸고 신발 신는 지생이요<sup>420)</sup>  
쟁끼란 놈 죽고나니 까투리가 하는 말이  
첫째 낭군 얻었더니 김포수가 잡아가고  
두째 낭군 얻었더니 박포수가 잡아가고  
시째 낭군 얻었더니 불콩 묵고 죽었구나  
에이고 잔디머리<sup>421)</sup> 푸티리고 에이고 에이고 내팔자야  
서산으로 날라가니 임제는<sup>422)</sup> 와서 좋다꼬  
쟁끼란 놈 매가지를 땀박 끊어 바우우에 얹어 놓고  
한달에 스물 아홉번씩만 생기 줍소사



## 2-가-(7)

-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민요해설집』, p.679.

핑핑핑 장닥핑<sup>423)</sup>  
핑 한나가 내론다  
단풍드는 콩밭이로  
가가감실 날아든다  
너는 너는 이 골 줍고  
나는 나는 저 골 줍고  
난데없는 물콩<sup>424)</sup> 한나  
어허등실 갱쟁구야  
묵지마오 묵지마오  
영감에 묵지마오  
간밤에 꿈을 꾸니

417) 소담하다 : 작고 아담하다.

418) 포랑보 : 파란색의 보자기.

419) 지생 : 형국(形局).

420) 한쪽 눈에는 동자가 파랑보에 짐을 싸고 신발 신는 지생이요 : 죽은 모습을 뜻함.

421) 잔디머리 : 까토리 머리.

422) 임제 : 임자.

423) 장닥핑 : 장끼. 핑의 수컷.

424) 물콩 : (핑 따위를 잡으려고) 약을 놓은 콩.

도매가 탕탕 올려봐요  
 지집년이 요망하면  
 조장<sup>425)</sup> 안에가 범이 들어  
 그 물콩을 덜컥 생계<sup>426)</sup>  
 시오리 눈썹<sup>427)</sup> 사르라니 감어  
 어풀싸가 죽었구나  
 요내 내가 죽거들랑  
 뒷동산에 양지밭에  
 양지갓테다<sup>428)</sup> 묻어주오  
 이내 니가 죽은들로  
 빼딱인들<sup>429)</sup> 냉길소나  
 마래밑에 거명개를  
 거명개를 부어준들  
 빼딱인들 남을소나  
 이내 털이 냉기그등  
 뒷동산 양지쪽에  
 털이라도 묻어주소  
 털이라나 냉길소나  
 장포장시 황에점을<sup>430)</sup>  
 몸지털기를 맹긴불로<sup>431)</sup>  
 니야 털을 냉길소나  
 핑핑핑 장닥핑  
 죽었구야 죽었구나  
 어허풀싸 죽었구야



## 2-가-(8)

-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민요해설집』, pp.569~570.

핑의 몸으 생길 적에  
 대동 공단 짓을<sup>432)</sup> 달아  
 초록 꼭지 동정<sup>433)</sup> 달아  
 아흠 아들 아흠 딸을  
 앞을 세고 뒷을 세고  
 주섬주섬 좃어 가니  
 앵두 같은 붉은 콩이

425) 조장 : 도장. 도장방, 규방, 부녀자들이 거처하는 방.

426) 생계 : 삼켜.

427) 시오리 눈썹 : 속눈썹.

428) 양지 갓테다 : 양지 가에다.

429) 빼딱 : 빼다귀

430) 장돌장시 황에점을 : 장돌장시는 황아장수, 황에점은 황아를 파는 가게. 황아는 담배쌈지, 바늘, 실 따위의 모든 잡실뱅이의 물건.

431) 몸지털기 맹긴 불로 : 먼지털이를 만든들.

432) 짓 : (옷)깃.

433) 동정 : 한복에서 옷깃 위에 조붓하게 덧꾸미는 흰 형짚 오리. 여기서는 핑의 목털을 뜻하는 듯.

여그도 놓이고  
 저그도 놓이고  
 어따 그 콩일랑 수상하네  
 먹지 마오 먹지 마오  
 그 콩일랑 수상하오  
 지집이<sup>434)</sup> 도장하면<sup>435)</sup>  
 집안에 화목하들 못하니라  
 두 번일랑 킅 찍으니  
 창고<sup>436)</sup> 소리가 여전하네<sup>437)</sup>  
 창고 소리가 여전하디이  
 셋바닥을<sup>438)</sup> 쑥 빼갓구  
 응등이<sup>439)</sup> 다리 다  
 덜렁거리고 차고 가니  
 이내 신세 어이 할꼬  
 공중으로 오리자니<sup>440)</sup>  
 매가 무사<sup>441)</sup> 못 오리고  
 산천으로 오리자니  
 포수 무사 못 오리고  
 이내 신세 어이 하나  
 솔개 한 마리  
 후루룩 날아오드이  
 당신도 흘에미요  
 나도 흘에비요  
 당신하고 나하고  
 살른 어떠하오  
 마오 마오 그 말 마오  
 있는 집간<sup>442)</sup> 조열미는<sup>443)</sup>  
 염통 산적이 조열미다  
 없는 집간 조열미는  
 상추쌈이 조열미다  
 가면 가고 말면 말지  
 솔개 남편을 얻어갈소요



## 2-가-(9)

- 
- 434) 지집이 : 계집이.  
 435) 도장하면 : 아무 일이나 휘두르고 나서서 잘난 체하면.  
 436) 창고 : 차꼬. 족쇄. 형구의 하나.  
 437) 여전하네 : 요란하네(?)  
 438) 셋바닥 : 헛바닥.  
 439) 응등이 : 엉덩이.  
 440) 오리자니 : 오르자하니.  
 441) 무사 : 무서워.  
 442) 있는 집간 : 재물이 있는 집간.  
 443) 조열미(朝列米) : 문관 관리들의 식량(?)



동지섯들 설한풍에  
 아홉애기 열두등에  
 주례등을 앞세웁고 뒤세완  
 움신듬신 좃어먹으며 가노라하니  
 난디없는 콩흔방울이  
 닝끼리고<sup>444)</sup> 땡기리난<sup>445)</sup>  
 낭군님아 낭군님아  
 이콩제발 먹지마오  
 간밤에 꿈보드니  
 앞밭들론<sup>446)</sup> 포쉬둥이<sup>447)</sup> 울리리고  
 뒷밭들론 머리검은  
 황개가 올리름테다<sup>448)</sup>  
 이년이년 날배고광<sup>449)</sup> 꺾여두영  
 새깃스방<sup>450)</sup> 묻어놓앙 흘년이다  
 어서먹소 콧짓이난<sup>451)</sup>  
 닝끼리고 땡기련  
 브들브들 죽어가난  
 동네나 할아버진  
 집윗할망 복이더나  
 난뵈영감 복이더나  
 엄기덩기 가지고가난  
 하르바지 야개기나<sup>452)</sup> 주고가소  
 우리집의 손지방뒤나<sup>453)</sup> 흘거다  
 놀개기나<sup>454)</sup> 주고가소  
 놀개긴 이퀘기에  
 지름장물 블라서 굶갯다  
 터럭흔춤<sup>455)</sup> 박매여주난<sup>456)</sup>  
 열두무에<sup>457)</sup> 무꺼놓안  
 아이고지고 울엄시난<sup>458)</sup>  
 가마귀눔이 터박터박




---

444) 닝끼리고 : 미끄러지고.  
 445) 땡기리난 : ‘닝끼리고’의 땡구 또는 동그랗다는 뜻.  
 446) 앞밭들론 : 앞밭으로.  
 447) 포쉬둥이 : 포수가.  
 448) 올리름테다 : 우러러봄디다.  
 449) 날배고광 : 나를 배고파서.  
 450) 새깃스방 : 셋서방.  
 451) 콧짓이난 : 콧 쪼으니.  
 452) 야개기나 : 목. 꿩의 목부분.  
 453) 손지방뒤나 : 손자의 장난감.  
 454) 놀개기나 : 날개.  
 455) 터럭흔춤 : 털 한 춤.  
 456) 박매여주난 : 박 뽑아주니.  
 457) 열두무에 : 열두묵음.  
 458) 울엄시난 : 울고있더니만.

느려오며 곧는말이<sup>459)</sup>  
 대죽만서 수다시끼<sup>460)</sup>  
 개보호여<sup>461)</sup> 가라호니  
 나과살기 어찌호나  
 조끔시니 비들기가  
 터왓터왓 느려오며 곧는말이  
 대죽만서 수다시끼  
 개보호여 가라호니  
 나과살기 어찌호나  
 가마귀놈이 곧는말이  
 이놈의 눈불갱이 아덜아  
 내가 문쳐 말호는데  
 니가 무슨 방해나  
 울령도 기룡산  
 산좋다 물좋다  
 산구경 물구경 잣더니  
 촌이슬 맞아보니 눈이 붉다  
 명통쟁이 아덜만이<sup>462)</sup> 못홀게 뒤잇느냐  
 소래기놈이 터박터박  
 느려오며 곧는말이  
 대죽만서 수다시끼  
 개보호여 가라호니  
 나과살기 어찌호나  
 입이영 쭈작호게<sup>463)</sup>  
 무서우난 거랑기영<sup>464)</sup> 홉센헤연<sup>465)</sup>  
 움신돔신 좃어먹으며가다  
 갈남밭동네로나강 좃어먹게  
 낭군님아 낭군님아  
 낭군님 재주사 용호니  
 재주나 혼번 부리십서  
 하늘광 땅새에  
 곱곰이 올라브난  
 즈칫년은<sup>466)</sup> 갈남입<sup>467)</sup>  
 잎생이 호나더견<sup>468)</sup>  
 헤트랑케곱안<sup>469)</sup> 누워시난<sup>470)</sup>




---

459) 곧는말이 : 말하는 말이.  
 460) 대죽만서 수다시끼 : (말뜻모름).  
 461) 개보호여 : 改夫하여.  
 462) 명통쟁이 아덜만이 : 명탕구리 아들만큼.  
 463) 쭈작호게 : 뽀족한 게.  
 464) 거랑기영 : 그건 그리.  
 465) 홉센헤연 : 하세요 하니.  
 466) 즈칫년은 : 까투리는.  
 467) 갈남입 : 갈나뭇잎.  
 468) 호나더견 : 하나 덮어서.

똥소래기눔이 느려오란  
 이구석 주왓  
 저구석 주왓  
 즈치씨랑 보아지건  
 다잡아먹주 해엿더니  
 곰곰이 생각흐니  
 갈남입입생일 올안보난<sup>471)</sup>  
 그속에 곱아시난<sup>472)</sup>  
 앞발로 꼭눅두련 잡아먹젠흐난  
 낭군님 낭군님  
 낭군님 재주가 용해연  
 제주심력 바라봤소  
 읍서 여기는<sup>473)</sup> 좃어먹을디가 없으니  
 수월진디로나 강 좃어먹게  
 즈칫년은 몸족으난  
 호로록흐게 기여들고  
 매눔은 놀개기벌견<sup>474)</sup>  
 못들어가란 석돌열홀만  
 이디시민<sup>475)</sup> 즈치씨랑 다잡아먹주  
 즈칫년은 움신듬신  
 좃어먹으며 가노라흐니  
 내창바우에 갓더니  
 개굴레비눔이<sup>476)</sup> 쪼작내들으며  
 대죽만서 수다시끼  
 개보호여 가랴흐니  
 나과살기 어찌흐냐  
 웨너는 태дук배가<sup>477)</sup> 웨엿느냐  
 식설적의 아버지 죽고  
 두설적의 어머니 죽언  
 느진덕이 정하님이  
 아버지가 먹는 몫  
 어머니가 먹는 몫  
 밥을하영<sup>478)</sup> 쥐브난  
 배는 태дук배가 웨엿소  
 웨몸은 어리룩 해엿느냐




---

469) 해트랑케곶안 : 숨어.  
 470) 누워시난 : 누웠으니.  
 471) 올안보난 : 열어보니.  
 472) 곱아시난 : 숨어 있으니까.  
 473) 읍서 여기는 : 숲이 우거진 데로나 가서.  
 474) 놀개기벌견 : 날개를 벌려.  
 475) 이디시민 : 여기 있으면.  
 476) 개굴레비눔이 : 개구리 놈이.  
 477) 태дук배가 : 향아리 같은 배가.  
 478) 밥을하영 : 밥을 많이.

요왕의<sup>479)</sup> 말젯딸  
 애기방의 들엇더니  
 총베로<sup>480)</sup> 무꺼놓아  
 때려브니 몸은 어리룩  
 어리룩 해엇다  
 웨눈은 빨롱해엇느냐  
 하도줄을 슬퍼브난 빨롱해엇다  
 웨가달은 앙씩해엇느냐  
 의정싱 화정싱홀때  
 물을 하도<sup>481)</sup> 타브난  
 가달은 앙씩해엇다  
 앞발로 콧곳이난<sup>482)</sup>  
 브들브들흐난 요놈도  
 재주가 좋구나  
 두번을 좃이나  
 느랏하게 죽으난  
 읊신듬신 좃어먹으며  
 가노라 하니  
 다리흔착어신<sup>483)</sup> 꿩이내드리며  
 대죽만서 수다시끼  
 개보하여 가라하니  
 나과살기 어찌흐나  
 꿩끼리 꿩끼리  
 살더라 흠네다 옛날에



## 2-가-(10)

- 『한국민요대전 제주도민요해설집』, pp.323~324.

평평 장서방  
 빛을 먹고 사느나  
 아로롱이 바지에  
 아로롱이 저구리에  
 백맹지로<sup>484)</sup> 동전 돌고  
 즈지맹지<sup>485)</sup> 몸에 차고  
 꺽꺽 좃어먹자  
 꺽꺽 좃어먹자  
 삼년 묵은 풋그루에<sup>486)</sup>

---

479) 요왕의 : 龍王의.  
 480) 총베로 : 말총으로 끈 참바로.  
 481) 물을 하도 : 말(馬)을 너무.  
 482) 콧곳이난 : 콧 쪽으니.  
 483) 다리흔착어신 : 다리 한 쪽 없는.  
 484) 백맹지로 : 白明紬.  
 485) 즈지맹지 : 자주명주.  
 486) 풋그루에 : 팔 심었던 땅에.

오년 묵은 콩그루에  
 뚝신 뚝신 좇어먹더니  
 췌체 서방<sup>487)</sup> 박포수가 믈쳐가고<sup>488)</sup>  
 들체 서방 산장이눔이 믈쳐가고  
 세체 서방 살통에 들어 죽엇구나  
 내 팔즈여 내 스주여<sup>489)</sup>  
 이원정을 어디강들리<sup>490)</sup>  
 어느새에 일년이다간  
 소상대상 돌아오난  
 애야 큰아덜아  
 아고아고 상제질잘흐라<sup>491)</sup>  
 내손님 고렘왓져<sup>492)</sup>  
 내손님 고렘오란  
 큰아덜 확차가부난  
 내팔즈여 내스주여  
 셋아덜아<sup>493)</sup> 손님왓져  
 아고아고 상제질잘흐라  
 셋아덜은 가마귀손오란 오꼳<sup>494)</sup> 차가버리난  
 내풀자여 내스주여  
 이원정을 어디강들리  
 어느 새에 일년이다간  
 소상 대상 돌아오난  
 애야 큰아덜아  
 아고 아고 상제질 잘 흐라  
 내 손님 고렘왓져  
 내 손님 고렘 오란  
 큰아덜 확 차가보난  
 내 팔자여 내 스주여  
 셋아덜아 손님 왓져  
 아고 아고 상제질 잘 흐라  
 셋아덜은 가마귀손 오란  
 오꼳 차가버리난  
 내 팔즈여 내 스주여  
 이원정을 어디강 들리



## 2-가-(11)

- 
- 487) 췌체 서방 : 첫째 서방.  
 488) 믈쳐가고 : 맞혀가고.  
 489) 스주여 : 사주여.  
 490) 어디강들리 : 어디가서 호소하리.  
 491) 상제질잘흐라 : 喪制노릇.  
 492) 고렘왓져 : 문상온다.  
 493) 셋아덜아 : 둘째아들.  
 494) 오꼳 : 그만.

평평 장서방 어땡어땡 살암시  
 청비단에 짓을 들고  
 흑비단에 동진 돌아  
 알록달록 옷을 입고  
 삼년 묵은 콩그르에  
 오년 묵은 풋그르에  
 들고 들른 콩 혼 방울 풋 혼 방울 주워 먹고 살단 보난  
 눈쟁기린 총쟁이  
 마락호게 맞춰부난  
 평은 죽엇저  
 친구평은 고렘오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친구 죽엇구나  
 불쌍하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친구 죽엇구나  
 끄눕으로 이불 덮고  
 메장하여 제 지네고  
 암평보고 흐는 말이  
 설위말라 설위말라  
 오라 느영나영 ㄴ찌 살게  
 허난 암평은  
 껍껍 소리호명 따라갓젠



2-가-(12)

평 평 장서방 어찌 어찌 사는가  
 자네만이 못 사는가  
 구실동지 저구리에  
 자지멩지<sup>495)</sup> 곱에  
 삼 년 묵은 콩그루에<sup>496)</sup>  
 오 년 묵은 팥그루에  
 알롱달롱 좃엄터니  
 콩 세방울 있구나  
 암평놈은 하는 말이  
 낭군님아 낭군님아  
 이 콩 좃지 마소  
 동지 셋달 이 눈 우의  
 이 콩 있기 이외로다  
 장평놈은<sup>497)</sup> 동지 셋달 이 눈 우의

495) 자지멩지 : 자주명주(紫朱明紬).  
 496) 콩그루에 : 콩그루터기에.  
 497) 장평놈은 : 장끼(雄雉)놈은.

이 콩 보고 그냥 가누나  
 좋을시고 좋을시고 좃엄시난  
 탁정시눔은 오란  
 왈랑찰랑 말허가난  
 네 년 얻기 불행이다  
 이맛박이나<sup>498)</sup> 짚어도라  
 눈공쟁이나 짚어도라  
 짚언 앓아시난 탁정신 확 오란  
 평은 가져간 창지<sup>499)</sup> 뻔  
 뒷발데레 데껴<sup>500)</sup> 부난  
 가져다가 가랑잎 툐안 수렴하곡  
 끄읏은<sup>501)</sup> 매체하고  
 따옥이눔<sup>502)</sup> 날라가단  
 소로기눔도<sup>503)</sup> 날라가단  
 우리 같은 샘새로 보건대  
 장수할 줄 알았더니  
 단명할 줄 몰랐구나  
 까마귀도 날아가단  
 우리 같은 샘새로 보건대  
 단명할 줄 몰랐구나  
 선 가지 메자 곱은 가지 메자  
 메영 간 묻어 된 앓안  
 아고 아고 앓안 울엄시난  
 초불낭군<sup>504)</sup> 얻어두난  
 총쟁이가 맞혀가고  
 두불낭군<sup>505)</sup> 얻어두난  
 피쟁이가 맞혀가고  
 세불낭군<sup>506)</sup> 얻어두난  
 개쟁이가 맞혀가고  
 네불낭군<sup>507)</sup> 얻어두난  
 탁정시눔이 맞혀가고  
 울엄시난 따옥이눔 나영<sup>508)</sup> 살문<sup>509)</sup> 어찌하나  
 설룬<sup>510)</sup> 낭군 죽언 첫 삭제<sup>511)</sup> 안 냉겨<sup>512)</sup> 된




---

498) 이맛박이나 : 이마빼기(額)나.  
 499) 창지 : 창자.  
 500) 데껴 : 던져.  
 501) 끄읏 : 칩읏.  
 502) 따옥이눔 : 따오기눔.  
 503) 소로기눔도 : 소리개눔도.  
 504) 초불낭군 : 첫 번째 남편.  
 505) 두불낭군 : 두 번째 남편.  
 506) 세불낭군 : 세 번째 남편.  
 507) 네불낭군 : 네 번째 남편.  
 508) 나영 : 나하고.  
 509) 살문 : 살면.

나영 사는 게 무슨 말이나  
 까마귀놈도 나영 살게 어찌하나  
 설룬 낭군 죽언 삼년상도 안 냉겨 된  
 나영 산단 말이 무슨 말이나 하며  
 자왈<sup>513)</sup> 속으로 호로록 들어가니  
 까마귀영 소로기놈은  
 동서테레 포뜰포뜰 날아가더라

## 2-나-(13)

- 『제주전래동요사전』, pp.145~146.

평 평 장서방 어찌 어찌 살amna  
 이리 저리 돌아다니명 살amna  
 밋 먹고 살amna  
 삼 년 묵은 콩그루에<sup>514)</sup> 콩 혼 방울 좇어 먹언 살amna  
 귀체 ㄱ뜯 도독놈은 날 잡으레 오람구나  
 콩 혼 방울 물엇더니 귀체 ㄱ뜯 도독놈은 날 잡으레 왔구나  
 [장평은<sup>515)</sup> 영호연<sup>516)</sup> 죽엇쥬]  
 내 서방 어디 가시고 울명<sup>517)</sup> 땡기단 보난  
 까마귀 놈은 나영 흙끼<sup>518)</sup> 혼디 살자  
 아이고 내 몸은 곱기도 곱다마는 너<sup>519)</sup> 몸은 검기도 검다  
 메가<sup>520)</sup> 완 나영<sup>521)</sup> 흙끼 ㄱ찌 살자  
 내 몸 봐라 얼메나 풍신헛가<sup>522)</sup>  
 내 저드랭이에<sup>523)</sup> 안겨만 봐라 얼메나 풍신헛니  
 내 몸은 곱기도 곱다마는 너 몸은 밍기도 밍디  
 나 저드랭이에 콩 혼 방울 물엇다 먹으른 얼메나 고우니  
 아르릉 따르릉

## 2-가-(14)

- 『제주전래동요사전』, pp.150~151.

평 평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암소  
 알롱달롱 저고리에

---

510) 설룬 : 서러운.  
 511) 삭제 : 삭제(朔祭). 음력 초하룻날 지내는 제사.  
 512) 냉겨 : 남겨.  
 513) 자왈 :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서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  
 514) 콩그루에 : 콩그루더기에.  
 515) 장평은 : 장끼는.  
 516) 영호연 : 이렇게 하여.  
 517) 울명 : 울면서.  
 518) 흙끼 : 합께.  
 519) 너 : 너(汝).  
 520) 메가 : 매(鷹)가.  
 521) 나영 : 나하고.  
 522) 풍신헛가 : 풍만(豊滿)한가.  
 523) 저드랭이에 : 겨드랑이에.



즈지맹지<sup>524</sup> 짓을<sup>525</sup> 돌고<sup>526</sup>  
 백황실의 동전<sup>527</sup> 돌아  
 삼 년 묵은 ㄱ실밭디<sup>528</sup>  
 어리등당 좃엄시난  
 총을 든 나아들놈<sup>529</sup>  
 웬 독므릅<sup>530</sup> 꾸울리곡<sup>531</sup>  
 느단 독므릅<sup>532</sup> 주침<sup>533</sup> 걸언  
 다랑ㅎ게<sup>534</sup> 노난  
 목구녕도<sup>535</sup> 보아 도라  
 임텨이도<sup>536</sup> 보아 도라  
 나 가심도<sup>537</sup> 지퍼 보라  
 지퍼 보난 석석이여 이 놀개도 자울자울<sup>538</sup>  
 저 놀개도 자울자울  
 가정 간 브랑브랑  
 숲아근에<sup>539</sup> 복복 틀어 먹언  
 뒷받테레 데껴<sup>540</sup> 부난  
 암꿍은 물어단에  
 정당<sup>541</sup> 걷언 수렴ㅎ곡<sup>542</sup>  
 꼭겹<sup>543</sup> 걷언 대렴ㅎ곡<sup>544</sup>  
 대추낭의<sup>545</sup> 관을 차곡  
 석 들 열흘 구산ㅎ연<sup>546</sup>  
 감장<sup>547</sup> 못ㅎ연 울엄시난  
 어디 잇단 가마귀놈



- 524) 즈지맹지 : 자주명주(紫朱明紬).  
 525) 짓을 : 짓을.  
 526) 돌고 : 달고.  
 527) 동전 : 동정. 옷깃 위에 조붓하게 덧붙인 흰 형겹오리.  
 528) ㄱ실밭디 : 가을걷이를 한 뒤 뒷해 봄까지 갈지 아니한 밭에.  
 529) 나아들놈 : 내아들놈. 상대방이나 제삼자를 욕설 혹은 애칭으로 일컫는 말.  
 530) 웬 독므릅 : 윈 무릎.  
 531) 꾸울리곡 : 꿇고.  
 532) 느단 독므릅 : 오른 무릎.  
 533) 주침 : 주춤.  
 534) 다랑ㅎ게 : 탕하게.  
 535) 목구녕도 : 목구멍도.  
 536) 임텨이도 : 이마도.  
 537) 가심도 : 가슴도.  
 538) 자울자울 : 다리를 약간 절름거리며 걷는 모양.  
 539) 숲아근에 : 삶아서는.  
 540) 데껴 : 던져.  
 541) 정당 : 멍멍이덩굴.  
 542) 수렴ㅎ곡 : 염습(殮襲)하고.  
 543) 꼭겹 : 칩년출.  
 544) 대렴ㅎ곡 : 대렴(大殮)하고.  
 545) 대추낭의 : 대추나무의.  
 546) 구산ㅎ연 : 구산(求山)하여.  
 547) 감장 : 감장(勘葬). 장사(葬事) 치르기를 끝내는 것.

퍼달퍼달 돌아오란  
 꿩아지망 무사 울어  
 낭군님이 죽어근에  
 석 돌 열흘 구산호연  
 감장 못호연 울엄고라  
 나영<sup>548)</sup> 살믄 어떻호코  
 내가 감장호여 주마  
 난 말다 몸 검은 게  
 조금 시난 소로기눔<sup>549)</sup>  
 퍼달퍼달 돌아오란  
 꿩아지망<sup>550)</sup> 무사 울어  
 곧도<sup>551)</sup> 말고 이르도 말라  
 낭군님이 죽어근에  
 석 돌 열흘 구산호연  
 감장 못호연 울엄고라  
 나영 살믄 어떻호코  
 난 말다 눈은 붉기 족족호 게  
 눈은 붉기 족족호여도  
 황해도<sup>552)</sup> 황정성 큰아덜이노라  
 어서 게믄<sup>553)</sup> 기영호라<sup>554)</sup>  
 빌레왓되<sup>555)</sup> 간 빌어단  
 ㄷ다시<sup>556)</sup> 간 곶아단  
 죽성<sup>557)</sup> 간 죽 썬단  
 장밧되<sup>558)</sup> 간 장 빌어단  
 거리 간 거렁 먹언  
 무드네<sup>559)</sup> 간 묻어근에  
 봉아름<sup>560)</sup> 간 봉토 썬  
 샷갓에서 삭제호고  
 담고망에서<sup>561)</sup> 담제호더라<sup>562)</sup>




---

548) 나영 : 나하고.  
 549) 소로기눔 : 소리개눔.  
 550) 꿩아지망 : 꿩아주머니.  
 551) 곧도 : 말도.  
 552) 황해도 : 황해도(黃海道).  
 553) 게믄 : 그러면.  
 554) 기영호라 : 그리하라.  
 555) 빌레왓되 : 넓적하고 평평한 돌들이 지면 또는 땅에 많이 묻혀 있는 밭에.  
 556) ㄷ다시 : 제주시 오등동의 동네들.  
 557) 죽성 : 제주시 오등동의 동네들.  
 558) 장밧되 : 장사(葬事)를 지내는 곳. 장지(葬地).  
 559) 무드네 : 제주시 영평동(알무드네)와 제주시 용강동(웃무드네).  
 560) 봉아름 : 제주시 봉개동.  
 561) 담고망에서 : 담구명에서.  
 562) 담제호더라 : 대상(大祥)을 치른 그 다음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

## 2-가-(15)

- 『제주전래동요사전』, p.155.

핑 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암소  
이 담 녀영<sup>563</sup> 딸 나곡  
저 담 녀영 아들 나곡  
콩 혼 방울 문들어시난<sup>564</sup>  
콩 혼 방울은 먹지 기려완<sup>565</sup>  
그 콩방울 먹어 노난  
이 내 몸이 석석이여  
입아 입아 정든 입아  
이 내 눈을 보아 도라  
동제도<sup>566</sup> 보난 석석이여  
홀 수 옷이<sup>567</sup> 푸린<sup>568</sup> 포에<sup>569</sup>  
집신<sup>570</sup> 감발호여서라

## 2-가-(16)

- 『제주전래동요사전』, p.156.

핑 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암소  
이리 저리 돌다보니  
어엽어엽<sup>571</sup> 돌단보니  
콩 두 방울이 있어서  
이걸 먹을까 말까  
조치이 핑이  
아이고 낭군님아 그걸 먹지 마십써 허여도  
아니라 내가 먹나  
퍽닥하게 먹어보니  
가족같이 쓴 놈이 퍽닥 몽둥이 둘러매연 오란  
허영현<sup>572</sup> 서른여답<sup>573</sup> 이빠디가<sup>574</sup>  
해들씩하게 웃으멍 돌레메 간다  
주름에 가보니 우리 낭군 복도 좋다  
복복 들언 이젠 목욕을 시켜 간다 또 잡아간다  
백모살로<sup>575</sup> 꿩여간다

---

563) 녀영 : 녀어.  
564) 문들어시난 : 가졌던 것을 떨어뜨려 있으니까.  
565) 기려완 : 싫어.  
566) 동제도 : 동자도.  
567) 옷이 : 없이.  
568) 푸린 : 푸른.  
569) 포에 : 보(裸)에.  
570) 집신 : 짚신.  
571) 어엽어엽 : 구석구석.  
572) 허영현 : 하얀.  
573) 서른여답 : 서른여덟.  
574) 이빠디가 : 치아가.  
575) 백모살로 : 흰모래로.

높은 상에 올린 이제 절 삼베 맡아간다  
우리 남편 복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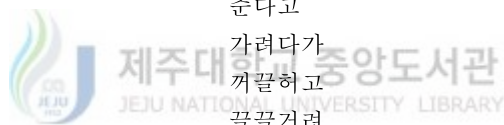
2-나-(1)

- 『한국구비문학대계 5-1 전라북도 남원군』, pp.66~67.

우리 어머니가	날키워서
예우살이	혈적에 <sup>578)</sup>
시집가고 가마탈제	가마탈제
독을 <sup>576)</sup> 하나	넣어 줘선
그독이	말을 해야
네가 말을 하고	살아라
말을 아니	허고 사니
말 안한다고	올어머니
나를 데리고	친정으로
데려다	갈적에

[말로써] 시어머니가 데리고, 가라고  
쫓은개로 내가 노래를 이상스럽게 하네

우리어머니	시어머니
데려다다	준다고
날 데리고	가려다가
꿩이 한마리	끼끌허고
쭈지를 <sup>577)</sup> 떨고	끌끌거리
지쭈지는	떼여서
우리 어머니를	주고지고
끌끌우는	저목성은
시아버지나	주고지고
짜짜치는	밭모가지
시누애기나	주고지고
찍기별긴	눈구녁은 <sup>579)</sup>
시아재나	주고지고
말 험다고	되짚어서
도로데리고	나를 왔네



하하하. [조사자 : 말 안 한다고 도로 데려왔네요.] 아니, 말한다고 되짚어서 즈그집으로 도로왔  
어요. [조사자 : 병어리라고 내버릴라고 한 거 아니요?] 병어리가 말 안 한다고 보낼라고 했는  
디. [조사자 : 참, 요 노래는 의미가 깊네요.]

576) 독을 : 돌을.  
577) 쭈지를 : 날개를.  
578) 예우살이 혈적에 : 시집보낼 때.  
579) 눈구녁은 : 찢겨 벌어진 눈구멍은.

2-나-(2)

- 『한국구비문학대계 5-7 전라북도 정주시·정읍군편』, pp.580~581.

이재너머에	저재너머에	
그재를	넘어가니	
핑핑우는	저약핑을잡어서	
털털터는	저날개는	
서방님이나	주고지가	
짜짜없는	저야발은	
시누애기나	주고지가	
콧콧쫓는	저입은	
우리시어머니나	주고지가	
핑에팔자	종대드라	
터럭수건	목에걸고	
비단비단	목에걸고	
핑핑하는	소리듣고	
산초목에	초군들이	올라오면
개부든소리	나죽갸네	
총소리에	나죽갸네	
늘늘하는	여성소리	
배락이나	때림소다	
못~	살갸다	

2-나-(3)



- 『한국민요집 V』, p.240.

핑아핑아 너도날맹이로  
 시집살이 못해서  
 쫓겨가나  
 나도 날맹이로  
 시집살이 못해서  
 쫓겨간다 (전북 정읍지방)

2-나-(4)

-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민요해설집』, p.273.

저 건네라 꼴꼴 우는 저 핑 잡어  
 짹짹 해빈<sup>580)</sup> 발목뎡이  
 동서님을 드리고지나<sup>581)</sup>  
 양쪽다리 비피살은<sup>582)</sup>  
 시아바니 내우 드리고지나  
 덮고 덮고 덮는 죽지  
 시아제를 드리고지나

580) 해빈 : ‘허비다’보다 어감이 작은 말인 ‘해비다’의 관형형.  
 581) 드리고지나 : 드리고 싶구나.  
 582) 비피살 : 허벽지살.

종일종일 저 주덩치<sup>583)</sup>  
 시누애기 드리고지나  
 소리 좋고 울대목은<sup>584)</sup>  
 서방님을 드리고지나  
 썩고 썩는 내장 내서  
 내나 먹고 내나 썩네

2-나-(5)

- 『한국민요대전 제주도민요해설집』, pp.80~82.

A : 꿩꿩장서방 어땡어땡 살암디<sup>585)</sup>  
 B : 꿩꿩장서방 어땡어땡 살암디  
 A : 옛날옛날 시집살이 흐젠흐난<sup>586)</sup>  
 B : 옛날옛날 시집살이 흐젠흐난  
 A : 귀막아 삼년 말물란 삼년  
 B : 귀막아 삼년 말물란 삼년  
 A : 눈어독언 삼년 아홉해구년 사난  
 B : 눈어독언 삼년 아홉해구년 사난  
 A : 시어명이 흐는말씀 아들고라<sup>587)</sup>  
 B : 시어명이 흐는말씀 아들고라  
 A : 답답해연 못살키어 친정에 돌아가블랜<sup>588)</sup>  
 B : 답답해연 못살키어 친정에 돌아가블랜  
 A : 흐난에도<sup>589)</sup> 그 아들은  
 B : 흐난에도 그 아들은  
 A : 각시달안<sup>590)</sup> 친정더레 가노랜흐난<sup>591)</sup>  
 B : 각시달안 친정더레 가노랜흐난  
 A : 꿩은 아갓단 꿩꿩흐명  
 B : 꿩은 아갓단 꿩꿩흐명  
 A : 담우터레 올라아지난<sup>592)</sup> 그메누리 흐는말이  
 B : 담우터레 올라아지난 그메누리 흐는말이  
 A : 꿩꿩장서방 어땡어땡 살암디  
 B : 꿩꿩장서방 어땡어땡 살암디  
 A : 쫑쫑부리랑 시누리나 주곡  
 B : 쫑쫑부리랑 시누리나 주곡  
 A : 덕덕날개랑 시어명이나 드리곡

---

583) 주덩치 : 주덩이.  
 584) 울대목 : 울대가 있는 목부분. 울대는 조류의 소리를 내는 기관.  
 585) 어땡어땡 살암디 : 어찌어찌 살고 있소.  
 586) 시집살이 흐젠흐난 : 시집살이하려 했더니.  
 587) 아들고라 : 아들에게.  
 588) 친정에 돌아가블랜 : 친정에 데리고 가 버리라고.  
 589) 흐난해도 : 하니까.  
 590) 각시달안 : 각시 데리고.  
 591) 친정더레 가노랜흐난 : 친정으로 가노라고 하니.  
 592) 담우터레 올라아지난 : 담위로 올라앉으니.

- B : 덕덕날개랑 시어멍이나 드리곡  
A : 솔진 뒷다리랑 시아바님이나 드리곡  
B : 솔진 뒷다리랑 시아바님이나 드리곡  
A : 간장 석고 곡석은 가심이랑  
B : 간장 석고 곡석은 가심이랑  
A : 남광 내가 먹어보젠 흥난<sup>593)</sup>  
B : 남광 내가 먹어보젠 흥난  
A : 그말을 들언 낭군님은  
B : 그말을 들언 낭군님은  
A : 그냥돌안 돌아오란<sup>594)</sup> 잘살아 가는고  
B : 그냥돌안 돌아오란 잘살아 가는고  
A : 시어멍은 줌복이 녀이<sup>595)</sup>  
B : 시어멍은 줌복이 녀이  
A : 나를 보민 믱지직 흥는고<sup>596)</sup>  
B : 나를 보민 믱지직 흥는고  
A : 시아방은 구쟁이 녀이<sup>597)</sup>  
B : 시아방은 구쟁이 녀이  
A : 나를 보민 세만 들각<sup>598)</sup>  
B : 나를 보민 세만 들각  
A : 시누인도 코쟁이 녀이<sup>599)</sup>  
B : 시누인도 코쟁이 녀이  
A : 나를 보민 호로록 흥는고  
B : 나를 보민 호로록 흥는고  
A : 시아지방은 우력의 녀이  
B : 시아지방은 우력의 녀이  
A : 나를 보민 입만 해씩<sup>600)</sup>  
B : 나를 보민 입만 해씩  
A : 남편님은 뭉게 녀이<sup>601)</sup>  
B : 남편님은 뭉게 녀이  
A : 나를 보민 영굽젠 흥는고<sup>602)</sup>  
B : 나를 보민 영굽젠 흥는고  
A : 잘살아간다 아이고아이고  
B : 잘살아간다 아이고아이고

---

593) 먹어보젠 흥난 : 먹어보려했더니.  
594) 그냥돌안 돌아오란 : 그대로 데리고 돌아와서는.  
595) 줌복이 녀이 : 전복의 녀이.  
596) 믱지직 흥는고 : 화넨 듯 뽀루통하는고.  
597) 구쟁이 녀이 : 소라의 녀이.  
598) 세만 들각 : 혀만 꿀꺽.  
599) 코쟁이 녀이 : ‘코쟁이’ 녀이. ‘코쟁이’는 바닷고기의 이름.  
600) 입만 해씩 : 입만 벌린다. ‘해씩’은 다문 입이 벌리는 모양을 이름.  
601) 뭉게 녀이 : 문어의 녀이.  
602) 영굽젠 흥는고 : 끌어안으려고만 하는고.

## 2-나-(6)

- [음원] 한국구비문학대계

꺄꺄 꺄는 저평을 잡아  
뚝뚝르 뜨는 눈구녕떼기 시아바씨 상에 놓고  
꼭꼭 쫓는 주둥이 괴기 시어마씨 상에 놓고  
씩씩거리변 발목뒤 괴기 시누애씨 상에 놓고  
턱턱 덮는 날개 괴기 우런{우리}님의 상에 놓고  
앞가슴에 복장의 살은 이내내가 목을란다 (경남 함양군)

## 2-나-(7)

- [현지조사(제주도 제주시 이도일동 이계생)] 현승환·김승연

흘긏흘긏 바래는 눈까락마다<sup>603</sup>  
시아버니나 고아 맥일까  
닥닥 두들리는 저 놀개랑  
시어머니나 고아 맥일까  
줏구는<sup>604</sup> 저 입까리랑<sup>605</sup>  
입이랑 빠당 시누이나 고아 맥일까  
걷고 걷는 저 달리아  
서방님이나 고아 맥일까  
타고 타는 가심 꺄이랑  
나나 고아 먹을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이상 사설 표기는 출전을 따랐음.

603) 눈까락마다 : 눈초리마다.

604) 좏구는 : 짓는.

605) 입까리랑 : 까불어 대는 입을 낮춘 표현인 듯. (입+까불다).